

카타르

정보수정일자: 2014. 06. 30

작성처: 도하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The logo for KOTRA (Korea Trade Promotion & Agency) is displayed in a blue, lowercase, sans-serif font.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 사회 동향 /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5

II. 경제

- 경제지표 DB / 19
- 경제동향 및 전망 / 20
- 주요 산업 동향 / 30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45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46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50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57
 - 대한수입규제 동향 / 61
 - 관세제도 / 62
 - 주요인증제도 / 63
 - 지식재산권 / 66
 -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 69
- 3. 무역환경**
 - 수출유망품목 / 71
 - 시장특성 / 73
 - 바이어발굴 / 76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78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79
 - 수출 성공실패사례 / 80
 - 수출 시 애로사항 / 81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82
- 투자인센티브 제도 / 85
- 외국인 투자동향 / 86
- 한국기업 투자동향 / 91
- 한국기업 진출현황 / 92
-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 9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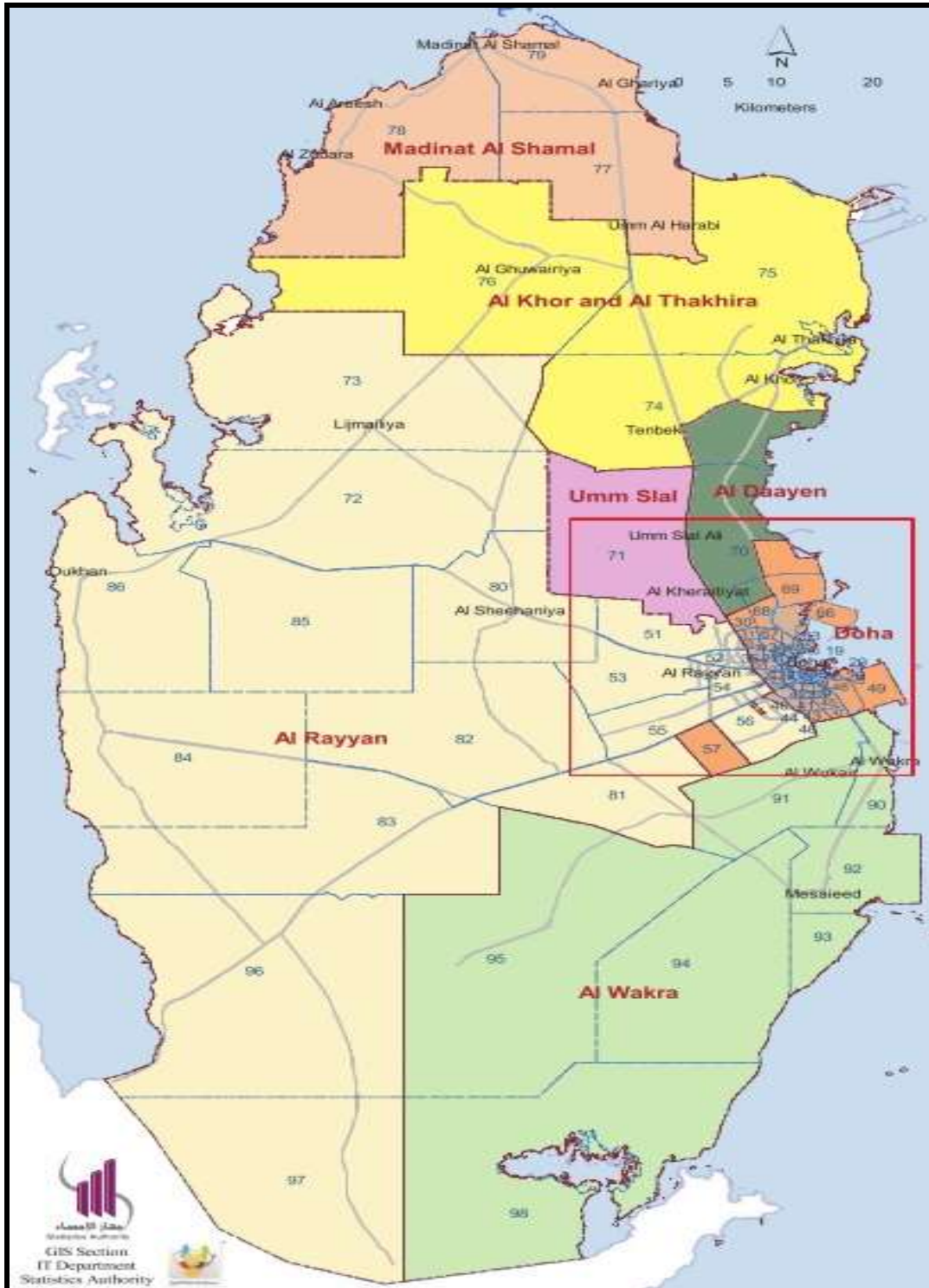
- 주요 투자법 내용 / 96
- 투자방식 / 99
- 투자진출형태 / 101
- 진출형태별 절차 / 102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105
- 투자입지여건 / 106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107

3. 사업관리

- 노무관리제도 / 108
- 조세제도 / 114
- 금융제도 / 11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17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118
-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121
- 비즈니스 에티켓 / 123
- 이주정착 가이드 / 124
- 생활여건 / 127
- 취향정보 / 128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129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130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134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37
- KOTRA 무역관 안내 / 138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카타르 (State of Qatar)
위치	아라비아 반도 동쪽, 호르무즈 해협과 쿠웨이트 사이 걸프만의 반도
면적	11,586 km ² (경기도 면적: 10,717km ²)
기후	여름엔 덥고 습함. (7~9월: 섭씨 45도, 습도 85%) 겨울은 시원하고 건조(12~3월: 섭씨 10~20도 사이, 습도 50%)
수도	도하 (Doha)
인구	약 215만 명 *2014.6 기준
주요도시	움사이드(Umm-Said), 두칸(Dukhan), 알코호르(Al-Khor), 라스라판(Ras Laffan)
민족	아랍(40%), 인도(18%), 파키스탄(18%), 이란(10%), 기타(14%)
언어	아랍어 (영어도 널리 통용)
종교	무슬림 77.5%, 기독교 8.5%, 기타 14% *2004 기준
건국일	1971.9.3 (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실권자)	국왕, 타미 빈 하마드 알타니 (Tamim bin Hamad Al-Thani, 2013.6월 즉위)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 CIA, EIU Country Profile,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주: 2014.6월 기준

나. 주요 경제지표

GDP	222,506 백만 (단위:US\$)*
실질경제성장률	6.5%*
1인당 GDP	103,555 (단위:US\$)*
실업률	0.4%*
물가상승률	3.7%*
화폐단위	Qatar Riyal (QR)
환율	1US\$ = 3.64QR
외채	157,872 백만 (단위:US\$)*
외환보유고	47,146 백만 (단위:US\$)*
산업구조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한 자원관련 사업 중심
교역규모	○ 수출: 122,266 백만 (단위:US\$)* ○ 수입: 39,986 백만 (단위:US\$)*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LNG, 원유, 석유화학제품, 비료, 알루미늄 ○ 수입: 자동차, 산업기기, 식료품, 화학제품
------------	---

* EIU예상치

** 주: 2014.6월 기준, 자료: EIU Country report

카타르는 원유 매장량(세계 14위)은 타 산유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나,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3위로 총 매장량의 14%를 차지한다. 원유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적 GDP상승을 견인한다. 실제로 카타르 총 수출에서 천연가스(HS코드 2711)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에 달한다. 더불어, 월드컵 준비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사업 착수와 비-에너지분야 육성을 위한 투자로 인해 향후 수년간 카타르 경제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성장세는 비-에너지 분야가 주도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다. 한-카타르 관계

	체결일	체결내용
체결 협정	1984년 4월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
	1987년 7월	문화협력협정
	1999년 4월	투자보장협정
	2005년 11월	항공협정
	2007년 3월	이중과세방지협정
	2009년 10월	치안협력협정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852 백만 (단위: US\$) *2013 기준 ○ 수입: 25,874 백만 (단위: US\$) *2013 기준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단위: US\$) *2013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구조물(994 백만), 승용차(172 백만), 건설중장비(57 백만), 전선(39 백만), 화학기계(30 백만) ○ 수입 (단위: US\$) *2013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12,022 백만), 원유(9,264 백만), 경질유(3,061 백만), 부탄(571 백만), 프로판(501 백만) 	
투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카타르 투자: 59 백만 (단위: US\$) *2012.12 기준 ○ 對한국 투자: 0.2 백만 (단위: US\$) 	
교민	2,195명 *2011.11 기준(최신 집계)	

자료: 카타르 주한대사관, 대한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주: 2014.6월 기준

2. 정치사회동향

가. 정치동향

2005.6월부터 새로운 헌법을 발효하면서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세습 왕정체제 유지, 가문을 중시하는 사회 관습 등으로 인한 자문위원회(의회)의 권한 제한 및 정당 활동 금지 등,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카타르 민주화의 첫 단추가 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첫 총선이 2013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무기한 연기 중이다.

2013년 초, 그 동안 외신에서 수 차례 보도되었던 왕권이양설이 외교가를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였고, 2013년 5월경 카타르 정보에 비교적 빠른 영국언론을 중심으로 왕권이양설이 집중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 6월, 하마드 전 국왕의 급작스러운 왕권승계발표로 인하여 타밈 왕세자가 신규 국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왕권승계에 대한 명확한 배경설명이 없어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건강 악화설과 정치적 압박에 의한 왕권승계설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많은 추측만 불러일으킨 채 카타르의 왕권승계는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단기간에 타밈 신 국왕은 신규 내각을 발표하여 자신의 정치 기반을 다졌다.

타밈 국왕 즉위 직후 하마드 전 국왕과 모자 전 왕비는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는 타밈 국왕의 독립적인 정치기반 구축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로 타밈 국왕은 즉위 직후부터 활발한 대외활동을 시작하며 대외적 기반 강화에도 힘썼다. 그러나 즉위 몇 달이 지난 시점부터 모자 전 왕비가 기존에 진행중이던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후 카타르 날(National Day)행사에는 하마드 전 국왕과 타밈 국왕이 나란히 퍼레이드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 GCC 국가 중 최초로 성문헌법 제정

하마드 전 국왕은 2003년 GCC(걸프협력협의회) 회원국으로는 최초로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은 정당 활동과 완전한 의회 기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3권 분립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갖는 자문위원회(마즐리스 알 슈라)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마드 전 국왕은 종교법원을 일반법원에 편입시키는 등 사법개혁도 단행했으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했다.

하마드 전 국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는 2013년 하반기에 자문위원회 위원을 뽑는 첫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왕권교체와 주변정세 불안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하마드 전 국왕은 “총선은 카타르를 현대국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카타르의 ‘힐러리 클린턴’

하마드 전 국왕이 민주화 정치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알 니스네드 왕대비는 큰 역할을 하였다. 왕대비의 대외활동은 카타르에 전례가 없는 일로, 국왕의 총애를 받으며 국왕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카타르 재단(Qatar Foundation) 이사장으로서 에듀케이션 시티(Education City, 교육도시)에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수 차례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카타르의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그녀는 이슬람 국가에서 금기시돼 온 여성의 권리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실례로, 여성의 자가운전 허용, 이혼 위자료 없이 쫓겨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설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고등교육 체계 개혁, 비-무슬림을 위한 예배시설 설립 등이 이루어졌다. 알 니스네드 왕대비는 영어에 능통해 유네스코 기초 고등교육 특사, 아랍민주주의재단 이사장, 카타르 국가 가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교육과 가정 문제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녀는 다른 아랍 왕정 국가 왕대비들과 달리 독자적인 대외 활동도 펼치고 있다. 그녀는 2008년 8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세계 최대 LNG선 ‘모자’호 명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모자 왕대비는 하마드 전 국왕의 왕권승계 발표와 함께 타밈 신 국왕의 국정기반 안정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동안 뒷견으로 물러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국왕이 취임한지 3달이 되어가는 시점이 2013.9월경부터 서서히 활동을 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타밈 현 국왕의 왕비들은 전혀 공식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나. 실용주의 외교노선

카타르는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및 아랍권 국가와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엄청난 국부를 바탕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세계의 대의명분보다는 국가 실리를 우선시하는 다각적·독자적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가 중동에서 중요한 정세 변화의 핵심 축 역할을 맡게 된 원인은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적극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카타르는 모든 국가와 철저히 실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및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는 친 서방 노선을 취하는 동시에 이란, 시리아 및 리비아 등 역내 반미 국가들과도 적절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외교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상호 적대국들을 포함, 너무 많은 국가들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소국으로서의 최선책임을 강조하며, 타국간의 관계에 무관하게 중립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타르는 2008년 레바논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면서 중재자로서의 능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는 탈레반에 의해 포로로 수년간 감금되었던 미군의 석방협상에 중재자로 나서 미군이 억류하고 있던 탈레반 주요인사들과 맞교환 방식의 석방을 성사시키는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미국과는 군사, 교육, 보건 등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조금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란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그 예로,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를 비롯해 미국의 군사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기구(GCC) 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란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마드 전 국왕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유럽, 미국이 이란에 가하는 제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격에 반대하며 만약 미국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카타르 내 미군기지 사용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에는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공동보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과 인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LNG주요 수입국 공동체 구성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동체 구성에 논의 중에 있다. 2009년 3월에는 아랍-남미 국가 협의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미와의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타르는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해 온 시리아 정부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아랍 22개국이 회원국인 아랍 연맹에서 시리아를 제명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자고 앞장선 국가도 카타르이다. 하마드 전 국왕은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 정부군의 시위대 강경진압을 중단시키려면 아랍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리아에 대한 외국의 군사개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카타르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대 리비아 공격 동참을 선언했다(2011년 3월 21일). 당시 카타르의 다국적군 참여 결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다국적군을 구성하면서 아랍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으나, 카타르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제사회에 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에 대의명분을 갖게 됐다.

카타르는 리비아 사태와 관련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고 리비아국민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가 신속히 실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리비아 내 민간인을 보호하고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인 유엔 안보리 결의(1973호)에 동참기로 결정했다.

이집트를 30년간 철권 통치해 온 호스니 무바라크 전(前) 대통령이 가야했을 때(2011.2.11.)도 카타르는 아랍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카타르 왕실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집트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열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타르도 아시아 국가의 일원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이집트 사태에서 군부에 의해 축출된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 형제단을 전폭 지지하였던 카타르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타밈 신 국왕은 향후 정치집권세력에 상관 없이 이집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동안 지원하던 LNG 등의 지원을 이어갔다.

그러나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인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틈타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카타르는 이슬람 수니파 국가로서 아랍 각국의 이슬람주의 세력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교회와 성당도 운영되고 있다. 카타르는 '중동의 스위스'를 표방하며 중립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를 통해 각종 테러가 빈번한 중동지역에서 테러 안전지대로 평가 받고 있다. 아랍 몇몇 국가에서 시민혁명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현재까지 왕정국가인 카타르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다. 평화 중재자의 위상과 역할, 치우치지 않은 외교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카타르가 강소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셈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집트에 대한 원조 등 중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GCC국가 중 사우디가 주도하는 세력인 사우디, UAE, 바레인과는 갈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으로, 이는 GCC국가 중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우디가 급속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카타르를 견제함과 동시에 카타르가 왕권에 반대하는 세력인 이슬람 형제단을 지원한다는데 품고 있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축출된 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며, 심지어 2013년 말 사우디의 주도하에 사우디, UAE, 바레인 3국의 카타르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카타르는 곧 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해당 협상을 통하여 해당 국가들과의 갈등이 잘 봉합되었다고 하였으나, 2014년 6월까지 해당 국가의 대사들은 카타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UAE에서 잇따른 카타르인들의 법정구속이 이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타르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다. 사회 동향

1) 인구 - 꾸준한 인구 성장, 대부분이 해외 이주민

카타르 인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7.6%씩 증가하며, 2014년 6월 총 인구 약 215만명을 달성하며 연신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30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 네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해외 이주자가 7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연령별 인구 구조

구 분	2009	2010	2011.6
-15	223,767	242,366	257,606
15-64	1,399,158	1,458,752	1,459,236
64+	15,701	13,980	15,875
총 인구수	1,638,626	1,715,098	1,732,717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4.6월 기준 확인정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고, 이 차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30년 남녀 성비는 각각 3: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외 노동인구 유입 증가에 기인한다.

카타르 인구 비율

(2013년 5월 기준)

구 분	인구 수(명)	비율(%)
남성	1,451,674	73.95
여성	511,450	26.05
총 계	1,963,124	100.0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4.6월 기준 확인정보)

2) 교육

□ 美 명문대학 분교 유치

하마드 전 국왕은 교육을 중점 정책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낮은 교육열을 타파하기 위해 카타르재단을 통한 국민 교육 계획을 세웠다. 카타르재단은 2003년 수도 도하 인근에 면적 1000만㎡ 규모의 에듀케이션 시티를 세웠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명대학들이 분교를 설립할 경우 건물을 지어주고 교직원에게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12년을 기준, 카타르 도하에는 미국의 코넬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조지타운대, 카네기 멜론대, 텍사스A&M대, 노스웨스턴대의 분교가 있고 2013.9월에는 런던대 분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기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설립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 수년 내 카타르 내 하버드 로스쿨 설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아직은 많은 수학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석사와 박사과정의 경우 한정된 분야만 수학이 가능하다.

유명 대학 분교는 본교 대학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며, 전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한정적이지만 제공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커리큘럼과 학위도 모두 본교와 같다. 에듀케이션 시티에서는 카타르 학생을 비롯해 미국, 중동, 동유럽, 아프리카, 유럽 등 30여개국에서 온 교수와 학생 수천 명이 공부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앞으로 에듀케이션 시티를 더욱 발전시켜 '중동의 교육 허브(Hub)'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0억 리얄(약 3000억원)을 교육 예산으로 배정, 8억 리얄(약 2400억원)을 집행하고 2억 리얄(약 600억원)은 미래 교육분야 투자를 위해 적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를 만들고 다국적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이에 부응해 엑스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카타르 교육시설 별 남녀 취학 인원

(2012년 11월 기준)

구 분		2009 / 2010		2010 / 201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아	국립	1,907	2,764	2,411	3,173
	사립	9,635	8,389	12,636	11,296
초등	국립	18,825	20,685	19,645	21,515
	사립	26,640	22,573	29,047	24,778
중등	국립	10,272	10,840	10,536	11,041
	사립	8,556	7,145	9,242	7,803
고등	국립	10,384	10,821	11,071	11,279
	사립	5,898	5,008	6,396	5,386
총 계	국립	41,388	45,110	43,663	47,008
	사립	50,729	43,115	57,321	49,263
	총 계	92,117	88,225	100,984	96,271
대학	국립	2,090	6,616	2,339	7,454
	사립	3,062	2,171	3,159	2,400
	총 계	5,152	8,787	5,498	9,854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4.6월 기준 확인정보)

카타르 문맹률

구분	2004 (%)	2010 (%)	2011 (%)
~15세	11	3.7	3.6
- 남성	10.9	3.5	3.4
- 여성	11.4	4.6	4.4
15~24세	4.1	3.2	2.1
- 남성	5.1	3.7	2.4
- 여성	2.5	1.7	1.3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4.6월 기준 확인정보)

3) 주거

2010년 기준 카타르 주거 시설은 약 26만 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파트가 전체 주거시설의 37%인 반면, 빌라는 24%에 달한다. 이 중 자가 소유주택은 21%의 점유율을 나타낸 반면, 임대주택은 58%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공공 및 단체(회사) 명의의 주거비율은 9%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형태

구분	1997	2004	2010
빌라	20,948	31,425	62,396
아파트	25,037	37,757	93,376
기타	46,317	57,021	103,194
총 계	92,302	126,203	259,066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4.6월 기준 확인정보)

주거형태별 신규 건설 현황 (완공기준)

구분	2009	2010	2011
빌라	9,386	6,450	5,001
일반주택	136	131	246
아파트	8,786	8,553	5,175
기타	526	498	417
총 계	18,834	15,632	10,839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4.6월 기준 확인정보)

4) 전망

카타르의 GDP 성장률은 하마드 전 국왕 취임 이후 연평균 15%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의 도약은 그 동안 '두바이의 기적' 때문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개최 확정과 함께 카타르 정부의 막대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투자 감행으로 인해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국내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우리 건설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카타르가 국내 언론 보도에 인용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카타르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카타르 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은 기존 에너지자원으로부터의 수익을 활용하여 경제 발전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카타르는 도하국제공항 신축, 펄-카타르(거주, 상업, 관광 목적으로 도하에 건설된 인공 섬)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펄 카타르(Pearl Qatar)’는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총 32km의 해안선을 가진 인공 섬이다. 이 인공 섬은 여의도 절반 크기인 400만㎡ 면적에 1만6000가구의 고급 아파트, 800대 수용 규모의 요트 선착장과 5성급 호텔들을 갖추게 된다. 카타르 정부는 이곳의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카타르는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신도시 루세일도 건설 중이다. 카타르 정부는 이곳에 에너지거래소가 들어설 ‘에너지 시티’를 만들 계획이다. 엑스모빌과 셸 등이 이미 이곳에 투자했다. 선제적인 투자자 확보 후, 필요에 따른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카타르 정부의 방침이다.

카타르의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은 각종 인프라 구축(경기장과 철도사업)에 더 큰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2011년 카타르 재무부장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시설 구축 산업에 U\$1500억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이 기존 주력산업인 석유와 가스사업과 무관함을 밝혔다. 실제로 카타르는 적어도 2016년까지는 신규 가스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함에 따라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카타르 정부는 카타르철도(Qatar Railways)를 설립하여 교통체증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카타르의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Qatar National Vision 2030’에 부응해 카타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US\$350억 규모의 대규모 철도인프라 구축을 시행 중이다. 특히, 당무역관이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전동차의 1차 예상 주문량은 120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며, 4개의 노선 총 연장 215km, 100개의 역사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3.6월 발표된 4건의 대형 발주에서 SK건설(Red Line-North), GS건설(Red Line-South), 삼성물산(Msheireb & Education City 중앙역사)를 수주하였고, 아직 발표전인 Gold Line 발주 건도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그리고 ‘철도차량 및 시스템’부분의 입찰전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캐나다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비전 2030’ - 장기적인 국가 개발을 목표로 삼아

카타르는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각 분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반면, 아랍·이슬람 국가의 고유문화와 전통적 가치보존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카타르 개발기획처(General Secretariat for Development Planning)는 2008년 10월 카타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담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였다. 국가 비전은 5개의 과제와 더불어 4개 분야의 목표를 제시했다. 5개 과제는 현대화와 전통 보존, 관리 성장과 자유로운 확장, 환경을 생각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노동력 개발 및 노동시장 균형 유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의 욕구 충족 등이다. 그리고 4개 분야는 인적자원 개발,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개발 분야이다. “과거 진주채취 시절 일본의 인조진주개발로 급작스런 빈곤이 닥쳐왔던 경험으로부터 언제나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 석유와 가스 수입금을 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 개발에 투자하여 차세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투자를 위해 기존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필요 없도록 전실한 퇴직연금 구축을 계획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즈 하마드 전 국왕 인터뷰 中(2010.10.24.)

5) 대외투자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 국내에서 교육, 보건 정책에 투자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를 대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카타르의 목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통해 교육, 과학기술, 금융 등 3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카타르의 대외 투자는 카타르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가 주도하고 있다. 카타르투자청은 국가 수익 잉여금의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에너지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카타르 수입원의 다양화를 통한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카타르투자청은 타밈 국왕이 진두지휘하고 있고 주식, 사모펀드, 부동산, 상품, 천연자원 및 자회사인 Qatar Holding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카타르투자청은 자회사로 Qatar Holding뿐만 아니라 Qatar Diar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Hassad Food, Delta Two Ltd., Qatar Sports Investment 등을 가지고 있고, 전략 투자, 부동산 투자, 전략안보 관련 투자, 스포츠&레저 분야 등 각기 전문 분야를 달리 하고 있다.

카타르는 석유가스 가격에 따라 재정흑자 규모가 달라지는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매년 U\$200억을 해외투자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 루이비통, 런던의 헤롯백화점 인수나 크리스티 입찰 참여 등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망 축구구단 인수와 더불어 스포츠 분야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고 FC 바르셀로나의 공식 스폰서가 Qatar Foundation, Qatar Airways가 연속 선정되며 많은 자본을 카타르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투입하고 있다.

해외 투자 시,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권고에 따라 투자결정이 이뤄지며, 국왕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카타르 투자청(QIA, Qatar Investment Authority)이 반드시 이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국왕가족은 QIA와는 별도로 사적인 가족투자기금을 갖고 별개로 운용하고 있다.

6) 에너지산업 육성

카타르는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알루미늄 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경공업 성장에 관심을 갖고 카타르에 투자할 외국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카타르는 국부의 원천인 천연가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그

산실이 현재 카타르의 효자 수출 상품으로 떠오른 액화천연가스(LNG)이다.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연간 7700만 톤의 LNG 생산 설비를 갖춘 카타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의 보고인 노스 필드에서 가까운 북동부 바닷가 라스라판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면적이 100㎢로, 이곳에는 천연가스 트레인(Train) 5개가 들어서 있다. 트레인은 천연가스를 뽑아 압력과 온도를 조절해 최종적으로 LNG를 만드는 플랜트의 한 단위를 말한다. 가스관은 해변에서 6km 떨어진 바다까지 이어져 있다. 가스관은 그곳에서 천연가스가 있는 해저의 지각 구조까지 최대 2km를 더 들어간다. 카타르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해 왔다.

□ 금속·화학산업 육성

카타르는 천연가스를 천연가스액화정제시설(GTL: Gas To Liquid)을 통해 합성석유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영국의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셸과 합작으로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제트유(항공기용)도 세계 최초로 생산했다. 셸은 이 프로젝트에 U\$190억을 투자했다.

제트유는 가스액화석유와 기존 석유기반 등유를 5대 5의 비율로 섞어 만든 연료로, 기존 연료에 비해 이산화황과 미립자 배출량이 적어 항공과 물류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 카타르는 2012년부터 이 연료를 매년 100만 톤씩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250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지구를 4000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또한, 카타르 항공이 시범적으로 GTL항공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 비중을 수년 안에 50%이상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카타르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셸을 비롯한 엑슨모빌, 토털, 코노코필립스 등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2012년까지 U\$1000억을 투자해왔다. 이들은 오는 2020년까지 U\$1200억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국가로는 드물게 알루미늄 제련업 등 금속산업과 농업에 필요한 비료 생산을 비롯한 각종 화학산업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완공된 메사이드 비료공장으로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비료공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7) 2022 월드컵 개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아랍 및 회교권 개최되는 최초의 월드컵이다. 또한, 카타르는 중동 스포츠 중심국을 표방하고 있어 2022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월드컵 사상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 국토가 가장 작은 나라,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나가 본 적 없는 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월드컵이므로 카타르에게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월드컵이 스포츠이지만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는 앞으로 중동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강소국으로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전망 된다.

8) 알 자지라 방송

하마드 전 국왕은 중동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알자지라 방송을 설립했다. 하지만 알자지라 방송이 역내 일부 국가들과 종종 논란을 야기하면서 하마드 전 국왕에게 많은 문제를 초래해왔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집트 사태에 대해 보도하던 알자지라 소속 기자들이 이집트 군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카타르 정부는 이를 지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구금된 기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카타르 정부는 언론을 통한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방송국 인수를 추진 및 성사하였다. 따라서, 카타르에게 알자지라 방송국은 단순한 방송국이 아닌 국위선양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카타르 정부의 방침 및 영향력 행사에 불만을 품은 알자지라 방송국 직원들이 2013년 집단 사퇴하는 등 내부적인 마찰도 포착되고 있다.

□ 알 자지라 - '아랍시민혁명의 파트너'

아랍어로 '섬'이라는 뜻의 알 자지라는 도하에 본부를 두고 위성으로 24시간 뉴스와 정보를 송출하는 중동 지역의 최고 인기 TV 방송이다. 1996년 11월 하마드 전 국왕을 비롯한 카타르 왕실이 U\$1억5000만을 투자해 설립한 알 자지라는 중동지역에서 '방송혁명'을 일으켜왔다. 24시간 실시간 뉴스와 함께 적나라한 사실 폭로와 과감한 비판을 거침없이 방송함으로써 알 자지라는 군주와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아랍 각국의 국영 방송과는 뚜렷한 차별을 보여주었다.

알 자지라의 위상은 아랍 시민혁명을 보도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에서의 반정부 시위와 내전 상황에 대한 속보를 지속적으로 송출함으로써 알 자지라는 이들 국가에서 시민혁명이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

과거, 알 자지라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였었다. 미국은 알자지라에 대해 반미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집중 비난하기도 했다. 실제로 알 자지라는 이라크 전쟁 등을 보도하면서 순교, 살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민간인 피해를 부각시킴으로써 당시 부시 미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정과의 불화로 이슬람 성지순례 취재를 2년 연속 금지 당하기도 했다. 이 방송은 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호화 생일 축제를 비꼬는 보도를 내보내 후세인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다.

알 자지라는 기준 전 세계에 65개 지국을 두고 있고 기자 400명과 24시간 영어 및 아랍어 방송 채널, 다큐멘터리와 아동 채널, 10여 개의 스포츠채널을 갖고 있는 등 아랍 언론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알 자지라는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에 도전한 최초의 국제뉴스 전문 방송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카타르의 국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9) 국제무대 입지 강화 전략

카타르는 국제 기관 및 국제 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과 경쟁한 바 있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18)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8일까지 12일간 수도인 도하에서 해당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요

한국은 카타르에게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나라로, 카타르에 있어서는 제2위 액화천연가스 수출 대상국이다. 이에 카타르는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자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카타르는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연합(UN)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문제에 관해서는 자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기피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등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고위 인사 교류가 미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자, 금융, 보건, 정보기술, 국방 등 비 에너지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및 협력이 증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상호 고위 인사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카타르는 아랍 지역 유일의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SC)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지하였다. 특히 한국의 반기문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출범했을 당시 이슬람 형제 국가인 요르단의 자이드 주국제연합대사의 입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또한 카타르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위원장이자 카타르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타밈 당시 왕세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카타르는 이라크 평화 정착 및 재건 지원을 위해 과거 한국의 이라크 파병 지지와 국제연합 잠정평화유지군(UNIFIL) 파병 및 레바논 재건 지원과 같은 중동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랍 국가 유일의 국제연합 잠정 평화유지군인 카타르는 한반도의 평화 유치가 국제 정세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는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경쟁한 바 있는 2012년 제1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8)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COP-1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3년 8월,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 관계자들의 카타르 방문 이후, 카타르 투자청과 협력을 통한 제 3국 투자프로젝트 진행에도 다소 진척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나. 한-카타르 외교관계 수립현황

외교관계 수립 연표

1971.9	우리정부, 카타르 승인
1974.4	한·카타르 수교
1976.10	주카타르 한국대사관 개설
1992.3	주한 카타르 대사관 개설
1993.1	북한과의 수교
2008.10	알-마리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2009.10	장시정 주카타르대사 신임장 제정
2012.4	정기종 주카타르대사 신임장 제정

자료: 카타르 주한대사관 (2013. 12 월 기준 확인 정보)

주요 인사 교류 일지

訪 카타르	방한
○ 2001년 5월 이한동 국무총리	○ 1984년 1월 칼리파 국왕
○ 2001년 11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1996년 2월 하마드 외교부 장관
○ 제4차 WTO 각료회의 참석	○ 1999년 4월 하마드 전 국왕
○ 2003년 1월 신국환 산자부 장관	○ 2002년 4월 카말 재무장관
○ 2004년 2월 강동석 건교부 장관	○ 2002년 9월 알-아티야 제2부총리 겸 에너지장관
○ 대통령 특사	○ 연간 1차례 비공식 방문 중
○ 2005년 11월 이해찬 국무총리	○ 2002년 10월 타미 왕세자
○ 2006년 5월 반기문 외교장관	○ 제14회 부산아시아게임 참석
○ 제5차 ACD 회의 참석	○ 2006년 8월 알-아티야 총참모장
○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	○ 2006년 9월 조안 왕세자
○ 2008년 11월 한승수 국무총리	○ 제15회 도하아시아게임 성화봉송
○ 2009년 10월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 2007년 1월 하마드 제1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2009년 10월 강희락 경찰청장	○ 2008년 7월 모자 국왕대비
○ 2009년 11월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 2008년 11월 알-아티야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
○ 2009년 11월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 2009년 5월 타미 왕세자 (알-아티야 부총리가 수행)
○ 2009년 11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 2009년 11월 알-아티야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
○ 2010년 1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	○ 2010년 4월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
○ 2011년 1월 정몽준 의원 (축구협회명예회장)	○ 2010년 10월 알-아티야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
○ 2011년 3월 이마의 환경장관	○ 2010년 10월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 (ITS 회의)
	○ 2011년 6월 알-까흐타니 보건장관

訪 카타르	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특사 ○ 2011년 6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11년 8월 이정신 박사 前 아산병원장 및 카타르 보건최고위원회 위원 ○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 ○ 2012년 3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 2013년 1월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 ○ 2013년 8월 정홍원 국무총리, 김규형 외교부 차관, 한진현 산업부 차관, 여형구 국토부 차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10월 알-사다 에너지산업부 장관 ○ 2012년 5월 알-사다 에너지산업부장관 ○ 2012년 5월 알-아티야 행정통제투명성청장 ○ 녹색성장정상회의 참석 ○ 2012년 6월 알-쿠와리 문화부장관 ○ 2012년 2월 알-사다 에너지산업부장관 (대통령 취임 축하사절단) ○ 2014년 3월 알-사에드 국무장관 겸 투자청장

자료: 카타르 주한대사관 및 코트라 자체자료 (2014.4월 기준 확인 정보)

양국간 협정 체결 현황

경제/기술/무역협력	1984.4 서명, 1984.6 발효
문화협력	1987.7 서명, 1988.6 발효
투자보장	1999.4 서명, 1999.5 발효
항공	2005.11 서명, 2009.2. 발효
이중과세방지	2007.3 서명, 2009.4.15 발효
치안협력	2009.10. 서명, 2010.1. 발효

자료: 카타르 주한대사관 (2014.4월 기준 확인 정보)

다. 최신 이슈

□ 이명박 대통령 카타르 국빈 방문(2012.2)

우선 한국과 카타르 사이에 양국 정상이 직접 관장하는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동 협의회에서 그 동안 가스, 원유 산업, 그리고 건설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넘어 제3국 합작진출 등 양 국간 협력을 훨씬 더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도시계획부 장관 접견에서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은 2022 월드컵과 관련한 인프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였고, 더 나아가 카타르 쪽에서는 도로나 교량, 철도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빌딩, 학교, 병원, 도시계획, ITS(지능형교통체계)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카타르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산업 부분에 관해서도 몇 가지 합의된 내용들이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과 카타르 에너지산업부 장관 간의 합의 결과, 에너지산업 부분의

협력을 위해서 4월에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기로 해 에너지산업협력위원회를 계속 가동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 가스공사와 카타르 국영가스공사 간에 MOU가 체결되었다. 앞으로 21년 동안 카타르 가스의 연간 200내지 400만 톤을 21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주 내용이다.

금번 이명박 대통령과 하마드 전 국왕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제반 일정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 간에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증진에 관해 진지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향후 양국 간의 관계가 보다 더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정홍원 국무총리 카타르 순방(2013.8)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규현 외교부 차관, 한진현 산업부 차관, 여형구 국토부 차관을 대동하여 2013.8월 카타르를 순방하였다. 한-카타르 경제협력 추진 및 아국기업 카타르 프로젝트 수주지원이 주 목적이었던 이번 방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타밈 국왕, 압둘라 총리, 아흐메드 부총리와 여러 부처 장관들과 면담을 하였고 압둘라 카타르철도공사(Q-Rail) 집행위원회 회장과도 자리를 마련하여 한창 주목 받고 있는 카타르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우리 기업 수주를 지원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카타르 도시계획부는 도시계획 및 인프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카타르 인프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었다.

또한, 그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카타르투자청과 국토해양부의 해외공동투자진출 계획에 대해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타밈 국왕은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카타르투자청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 2014년은 한-카타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압둘라 총리는 지난 40년간 양국 에너지, 건설분야 협력을 언급하며 향후 지식경제분야 협력으로 그 분야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로서의 전략적 관계를 넘어 카타르가 중동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순방기간 동안 화기애애하고 진취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2009	2010	2011	2012 ^b	2013 ^c	2014 ^c
GDP						
명목 GDP (US\$ 백만)	97,798	125,112	171,476	192,402	205,891	209,317
실질 GDP 성장률 (%)	12.0	16.7	13.0	6.2	5.5	5.0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실질 변화율, %)						
민간소비지출	12.8	11.9	6.2	10.0	9.0	8.0
정부지출	32.9	12.3	10.1	8.0	7.5	7.5
수출	2.1	27.3	24.0	2.5	1.5	2.0
수입	-10.9	1.7	29.3	5.9	8.0	6.5
인구와 소득						
인구 (백만)	1.6	1.6	1.7	1.8 ^a	2.1 ^a	2.1
1인당 GDP (US\$)	77,198 ^b	90,887 ^b	100,374 ^b	100,889	102,060	101,501
실업률	0.5 ^b	0.5 ^b	0.4 ^b	0.5	0.3	0.4
국가 재정지표 (GDP 대비, %)						
정부 수입	44.4 ^b	31.4 ^b	34.6 ^b	39.3	39.0	37.2
정부 지출	31.9 ^b	28.9 ^b	27.1 ^b	27.7	29.6	31.1
정부재정수지	12.5 ^b	2.5 ^b	7.5	11.6	9.4	6.1
물가와 금융지표						
환율 QR:US\$	3.64	3.64	3.64	3.64 ^a	3.64	3.64
소비자물가	-10.2	0.4	2.1	2.6 ^a	3.7	4.4
시중금리	5.5	5.5	4.9	4.5 ^a	5.3	5.5
경상계정 (US\$ 백만)						
무역수지	25,555	53,873	87,373	102,181 ^a	91,364	81,902
수출	48,007	74,810	114,299	132,968 ^a	126,983	121,889
수입	-22,452	-20,937	-26,926	-30,787 ^a	-35,619	-39,986
서비스수지	-3,916	-5,769	-9,473	-13,984 ^a	-17,235	-18,492
소득수지	-9,413	-12,944	-13,271	-12,130 ^a	-11,798	-11,221
경상이전수지	-5,837	-11,363	-12,651	-14,481 ^a	-14,777	-15,955
경상수지	6,389	23,797	51,978	61,585 ^a	47,555	36,235
외채 (US\$ 백만)						
부채	80,482 ^b	109,294 ^b	133,309	139,158	149,373	157,861
외환보유액 (US\$ 백만)						
총 외환보유액	18,806	31,187	16,825	33,189	40,090	44,054

※ 주: a-실질, b-추정, c-전망, 자료: EIU (2013.12월 기준)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개황

카타르 경제는 2002년 이후 고유가 시기에 맞춰 석유생산량을 늘리고, 가스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특히 2005~2009년 중 실질 GDP 증가율은 평균 17.4%를 기록, 미국에 이은 유럽 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급격한 경색에도 불구하고 2010년 16.7%, 2011년 13%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2년 6.2%로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 하였다.

주요 경제지표

(단위: US\$ 백만)

지 표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예측치)
경제성장률	%	12.0	16.7	13.0	6.2	5.5
1인당 GDP	US\$	77,198 ^b	90,887 ^b	100,374 ^b	100,889	102,060
명목 GDP	US\$	97,798	125,112	171,476	192,402	205,891
정부부채	US\$	80,482 ^b	109,294 ^b	133,309	139,158	149,373
소비자물가 상승률	%	-10.2	0.4	2.1	2.6 ^a	3.7
민간소비증가율	%	12.8	11.9	6.2	10.0	9.0
실업률	%	0.5 ^b	0.5 ^b	0.4 ^b	0.5	0.3
수출실적	US\$	48,007	74,810	114,299	132,968 ^a	126,983
수입실적	US\$	-22,452	-20,937	-26,926	-30,787 ^a	-35,619
무역수지	US\$	25,555	53,873	87,373	102,181 ^a	91,364
외국인투자금액(당해년)	US\$	8,124.7	4,670.3	-86.8	326.9	-
총외채	US\$	80,482 ^b	109,294 ^b	133,309	139,158	149,373
외환보유고	US\$	18,806	31,187	16,825	33,189	40,090
이자율	%	5.5	5.5	4.9	4.5 ^a	5.3
환율	US\$	3.64	3.64	3.64	3.64	3.64

자료: EIU, World Bank, IMF(2013. 12월 확인 정보)

나. 경제 전망

카타르의 석유화학 20년 투자계획 프로그램은 2011년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2008년~2009년 세계경제 위기에 불구하고 카타르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11년 LNG가스 생산량을 7천7백만 톤으로 늘리는 등 경이로운 발전 모습을 보여주었다. LNG생산량 증가는 2011년 실질GDP 성장률을 15% 끌어올렸고, 유가 증가 또한 GDP성장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국가 재정과 경상수지는 방대한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대비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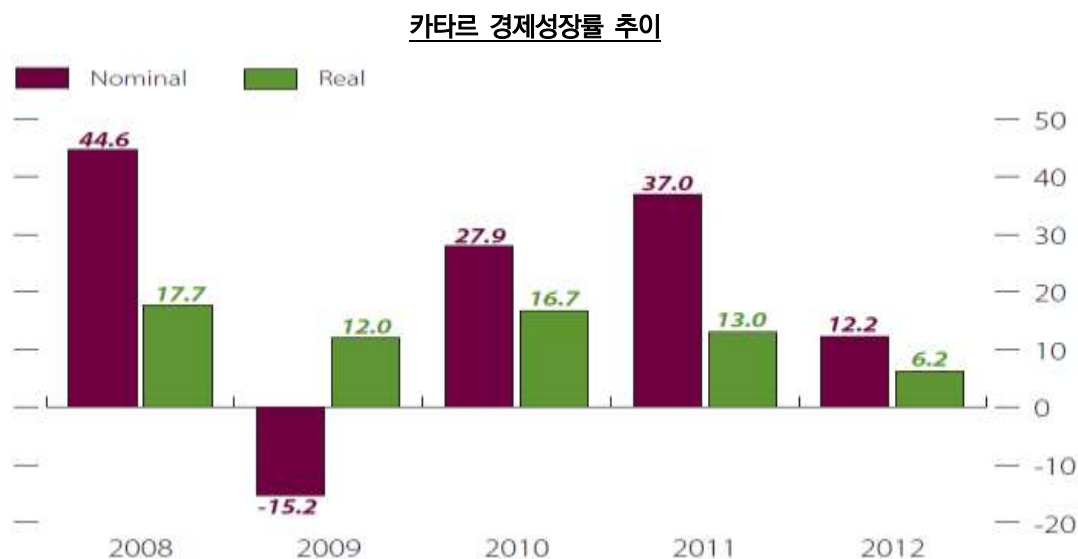
카타르의 명목GDP성장률은 천연자원개발 계획과 액화가스(LNG) 집중 투자로 인한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84.6%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같은 기간 GNI 역시 177.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실질 GDP성장률은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11년 13.5%를 기록, 전년 16.7% 대비 감소하였으나 2009년 12%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석유와 가스분야는 2010년 2011년 각각 명목GDP의 51.7%, 58.3%를 차지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의 성장이 이룩해낸 카타르의 경제 성장은 석유 화학 산업, 금융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카타르 국내 시장 호황에도 힘을 보탰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성장에 있어 과거 드리웠던 금빛 장막을 거두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6.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산업에만 의존하여 급격히 성장한 카타르 경제는 자원의 유한성, 가격 변동성 등의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카타르는 자원 의존적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석유화학 산업분야에 지속적,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세계가스 수요량 조사에 의거하여 북쪽천연자원매장지역 가스를 2015년 까지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카타르의 석유화학제품의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이를 통해 국내경제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아직은 생소한 GTL분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Sasol과 공동투자를 통해 Oryx GTL을 설립하여 2012년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렸고 Shell과의 공동투자로 Pearl GTL을 설립하였다. 세계 시장에서는 투자대비 이윤에 의문을 갖고 있지만 카타르는 지속 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차원에서 GTL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카타르항공의 제트연료의 50%이상을 GTL로 대체하며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다.

카타르는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수많은 카타르 기업들이 회사의 확장을 위해 금융시장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자금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경우 카타르 국부펀드(QIA)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카타르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전망이다. 세계경제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경제개혁 정책을 수정하면서 기업세금은 10%로 낮추고, 금융부분 규제를 간소화 했다. 부가세 도입은 GCC 국가들의 전반적인 이슈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곧 실현 시기 및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카타르의 경제 성장은 비-에너지 산업 분야에 달려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분야를 다각화 시키는 것은 카타르가 극복해야 할 필수 장벽이다. 비록 지난 10년 간 카타르는 비-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아직도 국가 재정은 에너지 산업분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한 카타르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카타르의 산업 다각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카타르의 아시안게임개최가 국민소득의 30%가까이 기여를 했던 경험으로 미루어봐, 2022 카타르의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 또한 카타르 경제를 세계 중심에 세워놓는 전략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Min.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 Jun 2013

※ 2014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 세계 평균 3.6% • 미국 2.6% • EU 1.0% • 중국 7.3% • 한국 3.7%

1) 재정

2011/2012 회계연도에는 정부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정부가 주변국들의 아랍 시위 혁명 사태를 의식하고 자국민들의 급여수준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수도인 도하에 지하철 도입을 위한 도하 메트로프로젝트를 포함한 철도 프로젝트 등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지출 또한 그와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투자는 2016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2014년부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카타르의 재정수입은 2016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증가 속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NG가스의 수익을 제외한 재정수입은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2016년까지 매년 평균 5%내외로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2010년과 2011년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석유-가스 수익은 전체 재정수입 중 여전히 3/4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유가가 예상치를 밑돌 경우, 향후 5년간 해외자산으로 얻을 수익이 재정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까지 재정 흑자는 GDP기준 평균5%를 상회할 것이며 2007년~2011년 보다 정부 지출액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수익도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2) 통화전망

카타르는 달러에 대한 고정 환율제 유지로 인해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고 있다. 2008년 달러환율이 0.25% 하락한 이후 카타르 중앙은행은 달러의 변동 환율을 따르던 정책을 폐지하고 고정 환율(1US\$ = 3.64QR)을 따르기 시작했다. 정부는 현재의 고정 환율 제도를 지속하려 하지만, 수출가스와 석유에 US달러로 금액이 표기 되는 것과 고정 환율이 투자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달러의 약세가 심하지 않다면 환율에 대한 평가절상은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정 환율로 인해 통화정책의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2011년 8월 카타르 중앙은행은 대출 금리를 0.5% 내린 4.5%로 인하하였고, 이는 2011년 4월에 단행된 0.5% 금리 인하에 이은 동일연도 두 번째 금리인하였다. 그리고 4.5%로 인하된 금리는 2012년 12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신용거래량은 40%에 육박했지만 민간부문의 신용거래량은 8.5%에 그쳤다. 정부는 민간부문의 신용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금리 삭감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2011년 11월의 민간부문 신용거래량이 22.3%까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그 후 2012년 5월 거래량은 13.5%로 다시 하락하여 2012년 평균 성장률 16%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까지 평균 15%의 신용거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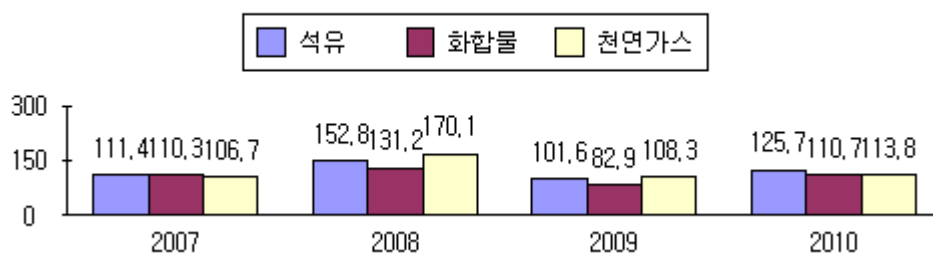
2013년 전반기 대출성장률은 보통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2011-12년도 부동산대출 거래는 약 40% 증가하였다. 해당기간 동안의 부동산대출 증가는 근래 카타르의 인구증가를 반영하였다기 보다는 2022년 월드컵 준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대출에 치중한 대출구조가 향후 수년 안에 부동산거품 붕괴현상을 초래하여 위험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만과 UAE를 제외한 GCC국가들은 GCC단일통화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동안은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이후에 단일 통화기구 설립이 예상되지만 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더불어, 카타르는 현재의 환율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이고 GCC지역 단일통화 정책은 한동안 추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 경제성장

석유화학제품 물가(2006=100)



자료: QSA, various data releases (<http://www.qsa.gov.qa/eng/index.htm>)

예상 경제 성장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GDP	6.2	5.9	6.1	7.4
민간소비	8	8.1	9.3	10.6
정부소비	4.5	6.1	6.8	7.5
총 고정투자	7	6	5.2	8
수출상품&서비스	2.1	2.2	2.4	2.5
수입상품&서비스	1.6	1.9	2	2.7
국내수요	6.9	6.6	6.7	8.7
농업	4.5	5	5	5
제조업	4.2	4.9	5	6
서비스업	11.5	8.5	8.8	1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2010년과 2011년의 카타르 경제는 탄화수소 가격상승과 LNG생산량 2배 증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두 해 모두 아시아에서 LNG 가스 수요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값비싼 석탄, 석유가격의 영향과 고품질 가스 생산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2011년 대지진으로 핵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일본이 아시아시장 가스 수요를 주도하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세일가스를 개발 중인 미국은 더 이상 카타르 LNG가스의 고객이 아니다. 하지만 유럽의 가스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고,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으로 인한 높은 수요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LNG가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6년쯤에 호주나 북미지역에서 LNG가스를 대체할 자원이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NG가격의 하락을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분간은 대체자원의 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에서 LNG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천연자원 생산량은 알 샤heen(Al Shaheen) 석유매장지의 생산량 확대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펄 GTL(gas-to-liquids)프로젝트는 2011년 카타르 경제 성장을 가속화 시켰는데 6월엔 시험적으로 하루7만 배럴씩 생산되었고 11월엔 6월의 두 배인 14만 배럴(하루 기준)이 생산되었다.

카타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LNG가스와 GTL프로젝트 생산량의 증가로 2011년 실질 GDP는 14.1%증가 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까지 대중교통,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카타르 정부의 2030 정책의 일환으로 해당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한 자원부국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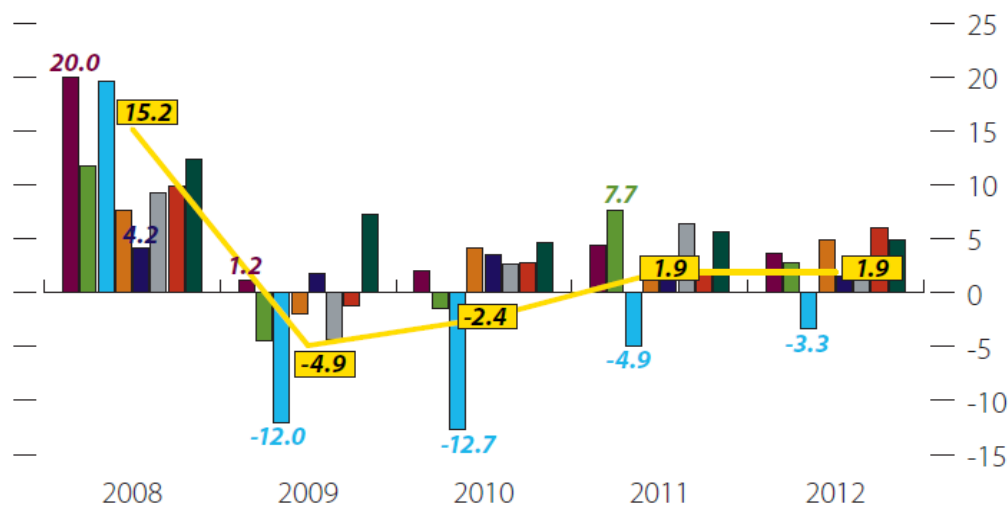
이민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매년 9% 정도로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되며 이는 내수경기를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월드컵관련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이루어 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 또한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가스수출량에 대한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과거2년에 비해 성장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2016년 까지의 GDP 성장률은 평균 6.4%로 예상하고 있다.

4) 소비와 지출

카타르의 저축비율은 경제 호황과 함께 상승했다. 2011년 저축 비율은 처분소득(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18.4%를 차지했고, 2012년 말 19.5%까지 오를 전망이다. 2011년 소비지출은 12.2%상승했고, 가처분소득은 14.1%상승 했으며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0년의 명목GDP대비 가계지출은 2006년도 16.2%에서 14.2%로 하락했다. 정부지출은 2008년 9.8%로 최저였고, 2006년 14.5%가 최대치이며 평균적으로 12-14%를 유지하고 있다. 고정투자지출은 2007년에 GDP대비 47.1%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고, 2010년28.6%를 기록하며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13년 현재, 28.5%의 정부지출 비율을 보이며, 여전히 높은 정부지출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카타르 경제에 대한 전망에 앞서 카타르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 Qatar Info. Exchange database(<http://www.qix.gov.qa/>) (2013.12 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두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1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년 CPI는 꾸준한 임차료인상,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전년도(1.9%)보다 높은 3.6%가 예상된다. 특히 물가바스켓의 32%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임차료는 2012.6월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 오름세에 있다. 2014년의 경우 인구유입, 건설기자재 수요증가 등 요인으로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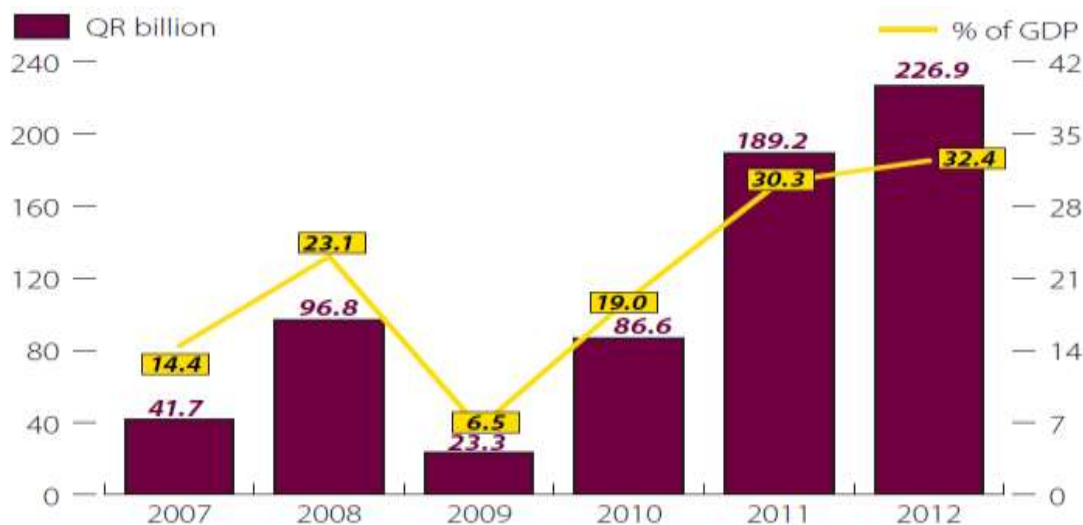
5) 대외부문

LNG가스, GTL, 석유제품의 높은 가격과 꾸준한 수출은 GDP에서 무역부문 상승세를 유지시켜줄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들이 수익을 본국송금 하면서 외국근로자들의 해외송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가스와 석유화학제품의 주도하에 7%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은 2013년 1.3%, 2014년 1.5%로 전망되며, 그 성장세가 둔화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2016년 사이에는 월드컵 관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수입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2011년 무역흑자는 U\$840억으로, 2016년 까지 증가하여 대략 U\$900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 수지



자료: Qatar Central Bank(www.qcb.gov.qa) (2013.12월 기준)

가스 가격 추이



주: 가스가격: 장기공급, 미국 및 EU 가스가격의 가중평균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13 (2013.12 월 기준)

가스가격은 가스수출위주의 카타르 경제 대외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반면, 2014년 가스가격은 중국·인도에서의 청정에너지 수요증가로 오히려 전년대비 1%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다. 2022년 월드컵 유치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동향

카타르는 중동 최초로 월드컵 경기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카타르가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 풍부한 재정의 뒷받침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투자는 정부재원으로 시행된다. 또한 높은 신용등급 유지로, 필요 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저리자금조달도 용이한 편이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카타르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발주액 기준 약 750억불로 GCC 국가 중 사우디, UAE에 이은 3위였다. 이는 LNG 수출확대에 따른 확대된 재정 수익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동기간 중 최대 투자부문은 부동산 개발로 약 200억불이 투자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약 \$400억 규모의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취소되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 대부분이 향후 5년간 내 재개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오부자금에 의존해 부동산을 개발하였던 UAE(특히, 두바이)와는 달리, 카타르는 그 동안 축적된 풍부한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적었고 이와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카타르는 그 동안 부동산에 집중됐던 투자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2017년 완공 예정인 신도하국제공항 건설과 세계적인 수준의 신항만 건설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투자가 될 국가 철도 시스템, 그 밖에 도로, 교량, 터널, 교육도시 건설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월드컵에 맞춰 9개의 경기장을 신설하고 부족한 객실 수 확보를 위해 호텔 신축과 더불어 상업·주거용 건물로 전환이 가능한 선수 및 관광객용 아파트촌 건립, 민박집 활성화, 크루즈선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카타르의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처는 정부 및 정부관련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주요 발주처로는 QDRC(카타르 철도개발 기업), NDIA(신도하 국제공항) 운영위원회, ASHGHAL(공공사업청), KAHRAMAA(수전력공사) 등이 있다. 이들 발주처들은 같은 중동국가인 사우디나 UAE에 비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카타르 프로젝트 시장 동향

중동 지역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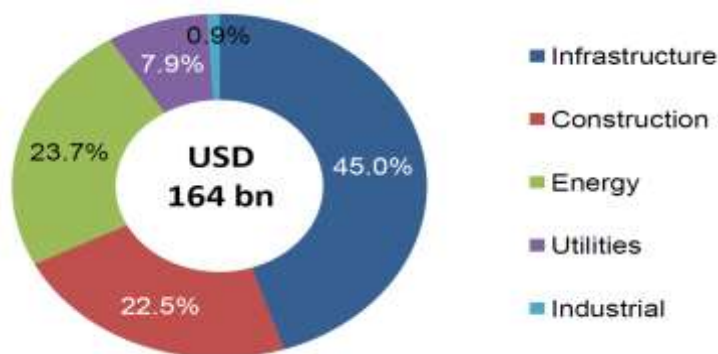
(단위: US\$백만)

구분	2013. 11 월	2012. 11 월	증감율(%)
사우디	1,023,247	778,170	31.5
아랍에미리트	711,969	540,637	31.7
카타르	281,002	222,943	26.0
쿠웨이트	193,387	195,888	-1.3
오만	146,835	115,879	26.7
바레인	62,621	66,389	-5.7
GCC	2,419,061	1,919,906	26.0
이라크	534,455	280,127	90.8
이란	238,229	277,140	-14.0
걸프지역 합계	3,191,745	2,484,561	28.5

자료: MEED (2013.12 월 기준 확인정보)

2013.11월 기준, 카타르의 '계획 및 진행 중인 프로젝트' 총 규모는 US\$2,810억으로 중동 국가 가운데 4위를 차지하였다. 동 수치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계획-F/S-FEED-EPC PQ-EPC 입찰 단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카타르의 부문별 프로젝트 구성비



자료: Meed Projects (2013.12월 기준)

2012년 10월 말 기준, 발표된 프로젝트의 산업부문별 비중은 인프라건설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에너지 23.7%, 빌딩 등 순수 건축 22.5%, 담수발전 등 전력분야가 7/9%, 기타 산업플랜트 0.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주요산업동향

가. 개요

카타르는 인구가 적고 국토 면적이 한국의 경기도 면적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석유(257억 배럴)와 천연가스(26조㎥)의 부존량이 많은 에너지 자원 부국이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와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이다. 특히 북부가스전(North Field, 노스필드)은 세계 최대 단일가스전으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15%가 매장되어 있다. 이처럼 석유·가스 분야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의존 경제구조이므로 카타르의 제조업·건설·농업 등의 분야는 미미하다.

카타르는 국제유가 변동에 의해 국가 경제가 좌우되는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방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가스 관련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비-에너지 산업 비율(명목 GDP대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에너지	51.7	54.9	44.8	51.7	57.7
비-에너지	48.3	45.1	55.2	48.3	42.3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확인정보)

에너지 산업, 비-에너지 산업 비율(실질 GDP대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에너지	44.7	43.0	40.2	44.3	45.0
비-에너지	55.3	57.0	59.8	55.7	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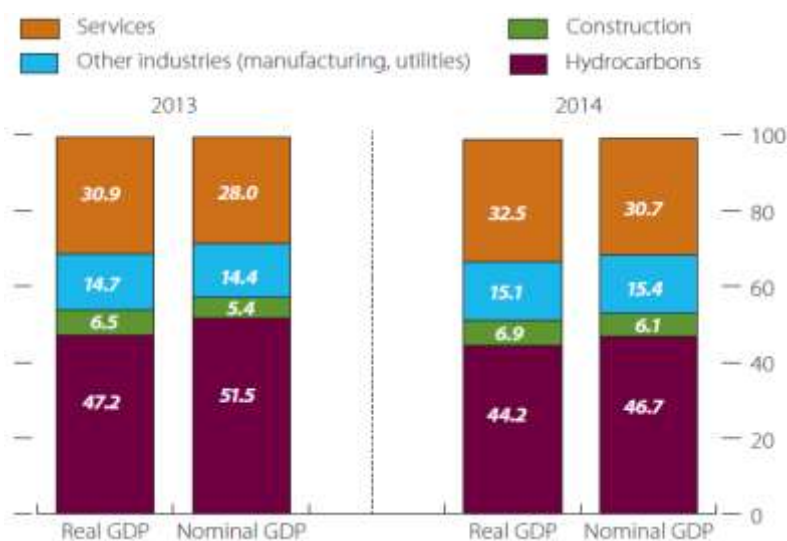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확인정보)

주요 비-에너지 산업 비율(실질 GDP대비)

구분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8.8	8.9	9.3	8.6
건설업	12.2	11.6	10.0	9.0
금융, 보험, 부동산, Business 서비스	11.0	12.3	11.3	11.6
공직	9.9	10.9	9.8	11.1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카타르 GDP 구성



자료: Min. of Development Planning & Statistics, Jun 2013

나. 석유 산업

카타르는 2010년 기준 약 47km²에 달하는 유전에 257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2012년 기준)의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100년 정도 석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 산업은 카타르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으로서 가스 산업에 이어 제2의 정부 수입 재원이다. 2013년 기준 1일 약 1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카타르 원유 생산량 및 매장량

구분		2009	2010	2011
생산량	백만 BBLs(barrels)	267.6	267.6	267.7
보존량	백만 BBLs(barrels)	4,125	3,547	3,303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원유생산량 세계 순위

(단위: 십만)

순위	국가	BBL
1	사우디아라비아	262,600
2	베네수엘라	211,200
3	캐나다	175,200
4	이란	137,000
5	이라크	115,000
6	쿠웨이트	104,000
7	UAE	97,800

8	러시아	60,000
9	리비아	46,420
10	나이지리아	37,200
11	카자흐스탄	30,000
12	카타르	25,38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 CIA(2013. 12월 확인정보)

□ Off-shore

카타르의 석유와 가스는 Maydan Mahzam, Bul Hanine 연안 구역에서 각각 1965년, 1972년부터 생산되어 왔다. QP사는 이 지역에서 두 개의 생산시설(PS-2, PS-3)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시설 모두 석유는 물론 수반가스(associated gas; 원유 위에 있는 천연 가스)와 석유 화학 제품도 생산한다. 석유는 Halul섬까지 연결된 수송관을 통해 이동하여 저장되었다가 수출이 이루어진다. 가스는 주로 저장된 오일을 끌어올리는 것을 돕고, Mesaieed NGL 시설의 주 연료로 사용된다.

QP사에 의해 운영되었던 세 군데의 다른 연안 지역 생산구역들은 QP사와 생산 공유 협정(EPSA/DPSA)을 맺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물은 모두 Halul 섬에 저장되었다가 수출된다.

- EPSA(Exploration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탐사 및 생산 공유 협정
- DPSA(Development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개발 및 생산 공유 협정

PS-1 (Idd El-Shargi Field, North and South Domes)	OPQL (Occidental Petroleum of Qatar Ltd)
Al-Khalij field	TOTAL Exploration & Production-Qatar (TEPQ)
Al- Karkara and A-Structure Fields	Qatar Petroleum Development-Japan (QPD)

□ On-shore

두칸지역은 거대 석유, 가스지역이며 1유정은 1940년 완공되었다. 도하 서쪽 8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유, 석유 화학물, 그리고 수반가스(associated gas; 원유 위에 있는 천연 가스)뿐만 아니라 비-부수가스(nonassociated gas) 또한 생산하고 있다.

두칸은 북쪽으로부터 남쪽까지 크게 세 구역(Khatiyah, Fahahil and Jaleha/ Diyab)으로 구성되며, 석유와 가스는 네 곳(Khatiyah North, Khatiyah Main, Fahahil Main and Jaleha)의 주요 가스화 탈유황 처리(gasification desulfurization process) 시설에서 분리된다. 남쪽 끝에 있는 Diyab위성 시설에서는 기본적인 비-가공과정이 이루어지고, 총 석유 생산은 Jaleha 시설로 보내져 가공된다. 처리된 석유는 수송관을 통해 두칸 동쪽에서 100KM떨어진 Mesaieed 항구로 수송된다. 최초의 석유수송은 1949년 12월 31일, 두칸에서

수송되어 Mesaieed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두칸은 하루에 대략 34만 배럴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고, 총 300개의 석유 생산 유정, 182개의 물 투입 유정, 그리고 58개의 가스 생산-주입 유정을 가지고 있다. 두칸 석유는 그 품질에서 최상급을 자랑하며 API 특정 중력 기준 40도와 황 함유량 1.5%를 자랑한다.

다. 천연가스 산업

카타르의 최대 가스전인 '노스 필드' 가스전은 약 900조 큐빅피터의 매장량을 자랑하며 단독 가스전으로는 세계 최대 가스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기준 카타르는 러시아, 이란에 이은 세계 3위 가스보유국이다. 북부가스전(North Field, 노스필드)의 가스 매장량은 26조m³(원유 환산시 1620억 배럴 상당)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가스 매장량의 15%로, 세계 최대의 단일 가스전이다.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Sheikh Hamad bin Khalifa Al-Thani) 국왕 즉위 이후 본격적인 북부가스전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천연가스가 석유를 제치고 국가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하였다. 막대한 천연가스 보존 자원은 카타르 국가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2009년부터 북부가스전알파(North Field Alpha), 알칼리지 가스(AKG, Al-Khaleej Gas) 1단계, 돌핀(Dolphin)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89.3bcm(billion cubic meter)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21.1bcm을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자체 소비하고 68.2bcm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물량 중 18.8bcm은 400km 연장의 해저 가스 파이프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으로 수출하고(돌핀 프로젝트), 나머지 49.4bcm로 약 36.6mmt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약어)를 생산하여 한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카타르의 2대 LNG 생산회사로는 Rasgas와 Qatargas가 있는데, 한국은 1995년도에 Rasgas와 연간 492만 톤의 장기수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Qatargas의 안정적인 개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Rasgas와 카타르 카스는 2010년 12월까지 당초 목표로 한 연 7700만 톤의 LNG 생산능력을 완비하였다. 카타르는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장기수입계약을 맺고 이들 국가들에 LNG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중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카타르 액화 천연 가스(LNG) 생산량 및 매장량

구 분		2009	2010	2011
생산량	BBtu	2,628,008	3,746,576	4,682,801
매장량	경 SCF	896	890	885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순위

순위	국가	십억 CU M
1	러시아	47,570
2	이란	33,070
3	카타르	25,200
4	투르크메니스탄	24,300
5	사우디아라비아	8,028
6	미국	7,716
7	U.A.E	6,089
8	베니수엘라	5,524
9	나이지리아	5,110
10	알제리아	4,502

자료: CIA(2013. 12월 확인정보)

□ Off-shore시설

Qatargas사의 Off-shore시설은 카타르 북동쪽 연안의 80km를 따라 위치하고 있다. The North Field Bravo offshore complex는 Qatargas Off-shore시설의 핵심구역으로, 1996년 허가를 받았다. 크게 주거시설, 두 개의 생산공정플랫폼, 세 개의 원천플랫폼(그중 두 개는 생산공정시설까지 다리로 연결되어있음), 그리고 5km떨어진 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Qatargas 생산시설 현황

트레인(프로젝트 No.)	시설용량(mmt)	운전개시	주요 수출국
1~2(I)	2×3.2	1999.8	한국
3(II)	4.7	2004.2	인도
4(II)	4.7	2005.8	유럽
5(II)	4.7	2007.3	유럽, 아시아
6(III)	7.8	2009.8	미국, 아시아
7(III)	7.8	2010.2	미국
생산능력	36.1		

자료: Qatar petroleum(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Rasgas 생산시설 현황

트레인(프로젝트 No.)	시설용량(mmt)	운전개시	주요 수출국
1~3(I)	3×3.2	1996.12	일본, 스페인
4~5(II)	2×7.8	2009.3	미국, 영국
6(III)	7.8	2010.12	미국, 유럽
7(IV)	7.8	2010.12	미국, 유럽
생산능력	40.8		

자료: Qatar petroleum(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 On-shore

카타르가스사의 내륙 시설은 Ras Laffan 산업도시 내의 3.9㎢정도이다. 주요 플랜트는 세계의 가동트레인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천연가스를 해안으로부터 끌어오고, LNG수출 상품 가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최초 세 개의 트레인들의 최대 수용량은 LNG 1억톤/annum (MTA)이다.

2010년 후반, 트레인6이 LNG생산을 시작했고, 2011년 초, 트레인7이 그 뒤를 이었다. 트레인6, 7의 총 수용량은 모두 7.8억톤/annum(MTA)정도이다. 트레인7의 가동 생산 시작과 함께, 카타르가스의 총 생산능력은 LNG 42백만 톤/annum이다.

□ Qatar Gas CURRENT OPERATIONS, 2012

○ Al-Khaleej Gas project (AKG) - LNG facilities at Ras Laffan City

- 엑슨모빌과 QP 사간의 AKG 프로젝트 협정은 2000년 5월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국내 산업으로부터의 폭등하는 소요량 때문이었다. Al-Khaleej Gas project (AKG)는 노스필드를 관리하며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스 공급(20억 cf/d)을 목표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물, 에탄가스, LPG, 황 또한 생산하고 있다.
- 프로젝트의 첫 단계였던 AKG-1은 2005년 11월 시작되었다. AKG-2는 2009년 12월 지역산업과 전력생산플랜트에 할당되는 1.25bcf/d 수용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제 두 단계의 AKG는 카타르 국내 가스 최대 공급원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AKG 프로젝트를 통해 대략 12.5억 cf/d의 가스를 생산, 판매할 뿐만 아니라, AKG-2는 1년 기준 2,400톤의 액화천연가스(프로판과 부탄), 석유화학 공급 원료로 사용될 2,500톤 정도의 에탄가스를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계획이다.

○ Barzan Gas Project(Qatar Petroleum 과 ExxonMobil)

- 카타르 석유(Qatar Petroleum)와 엑슨모빌 카타르(ExxonMobil Qatar)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13년 말까지 378억 리얄(QR) 규모의 바르잔 가스 개발 프로젝트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2013.12월 기준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내륙과 해양 천연가스 처리 설비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2단계 공사는 2015년 완료될 예정이다. 바르잔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은행들과 수출 진흥 기관들로부터 프로젝트 비용의 약 70%에 해당하는 U\$80억의 재원을 유치하였다.

- 자우야 프로젝트 모니터(Zawya Projects Monitor)에 따르면, 바르잔 가스 프로젝트는 카타르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북해 가스전(North Field)에서 국내 가스 및 석유화학 회사들이 일일 19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하고 처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단계	17억 cu.ft/d
2단계	20억 cu.ft/d
3단계	25억 cu.ft/d

○ Dolphin Gas Project

- 1999년부터 시작된 돌핀 프로젝트는 카타르 노스필드에서부터 UAE, 오만까지 수송관을 건설하여 천연가스 생산, 공정, 수송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투자비용은 U\$48억으로, 중동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도 대규모로 손꼽힌다.
- 2005년 9월, 돌핀 에너지사는 오만에 하루 기준 2천만 scf의 천연가스를 2008년부터 25년간 공급하는 협정을 맺었다. 2006년 8월 48인치의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었으며, 이는 라스라판에서 아부다비의 타월라까지 364km에 이른다.
- 2007년 7월부터, 돌핀에너지사는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카타르에서 생산, UAE로 수송,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말부터 협정에 따른 공급이 시작되었다. 2008년 2월에는 하루 기준 20억 SCF(평방큐빅피트)로 가스 생산량 최대치를 기록했다.
- 라스라판의 돌핀 플랜트는 지역시장,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물, LPG, 에탄, 황 또한 생산하고 있다.
- 수출 파이프 라인은 하루 최대 20억 SCF(평방큐빅피트)를 수송하며, 최대 32억까지 수송량을 늘리는 것이 카타르의 목표이다.

□ GTL Project

GTL (Gas-to-Liquid)은 고품질의 청정 연료로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원이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개발뿐만 아니라 GTL 제품 개발 및 상용화 또한 주력하고 있고, GTL 개발 프로젝트를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개발 다음의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GTL 생산량

(단위: 백만 배럴)

구분	2008	2009	2010
나프타	1.4	1.7	1.9
디젤	4.8	6.4	6.8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확인정보)

- Pearl GTL
 - 2004 년 10 월 QP 사는 더치셸(Dutch Shell)과 연간 780 만 톤(1 일 평균 14 만 배럴) 규모의 GTL 플랜트 계약(펠 GTL)을 체결하였다. 펠 GTL 은 QP 사와 Shell 사의 합작으로 거대 가스액화시설을 라스라판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2010 년에 완공하여 2011 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 '카타르 펠 GTL 프로젝트'는 해저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루 14 만배럴의 초저유황 경유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콘텐세이트(초경질원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총 사업규모가 U\$200 억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로 세계적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 12 곳이 총 10 개 공정을 나눠 담당했다.
 - 펠 GTL 은 세계에서 가장 큰 통합 GTL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카타르에서 실시된 에너지 프로젝트 중에서도 최고 규모를 자랑한다. 이로써 카타르는 천연자원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체 GTL 플랜트는 2012 년 정상 가동되어 카타르 North Field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하루 16 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활용하여 컨텐세이트유 12 만 배럴과 GTL 제품 14 만 배럴을 생산할 예정이다.
- GTL 생산제품
 - 나프타(석유/가스 화학산업의 원료), 가스오일(청정디젤유), 베이스오일(윤활유 원료), 케로신(청정항공유 혼합), LDF(세제원료), LPG
- Oryx GTL
 - 2003 년 1 월 카타르 QP 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에너지 화학업체인 사솔(Sasol)과 51:49 지분 합작으로 오릭스(Oryx) GTL Ltd.를 설립하여, 2006 년 6 월 생산 공장을 완공하였다. 생산능력은 디젤유 2 만 4 천배럴, 나프타 9 천배럴, LPG 1 천배럴이다. 2007 년부터 일일 평균 3 만 4000 배럴의 GTL 연료를 생산해 일본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 가스 안에 포함된 에탄은 GTL 프로젝트용 메탄에 대응하는 원료로서 새로운 석화원료로의 이용이 기대되고 있는데, Oryx GTL 에서 부생되는 에탄은 Ras Laffan Ethylene Co.의 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 Oryx GTL 은 향후 동일 규모의 2 계열을 증설해 생산능력을 일일 10 만배럴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라. 석유화학산업

카타르는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해외 석유 메이저들과 협력하여 석유화학 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계획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천연가스액(NGL, Natural Gas Liquid) 공장은 1974년 처음 플랜트를 가동한 이후 4단계에 걸쳐 확장되었으며, 현재 연간 에탄 807만 5000톤, 프로판 73만 5000톤, 부탄 409만 톤을

생산 중이다. 이 밖에 카타르 비닐회사(QVC, Qatar Vinyl Company), 카타르 연료첨가제공장(QAFAC, Qatar Fuel Additives Company), 카타르 화학회사(Q-Chem, 큐켄) 등이 석유화학 부문의 주요 기업이다.

주요 석유 화학 신증설 현황

회사명	위치	출자비율		제품	생산능력	완성시기
QAPCO	메사이드	IQ	80	에틸렌	220	2011
		Total PC	20	LDPE	250	
Ras Laffan Ethylene	라스라판	Q-Chem II	53.3	에틸렌	1,300	2009
		Qatofin	45.7			
		QP	1.0			
Q-Chem II	메사이드	QP	51	HDPE	350	2009
		CP Chem	49	LAO	350	
Qatofin	메사이드	QAPCO	63	LLDPE	450	2009
		Total PC	36			
		QP	1			
QP/호남	메사이드	Wasseta	70	에틸렌	1,000	2012
		호남석화	30	에틸렌 유도품	300	
프로필렌(OCT)	700					
PP	700					
스타이렌	580					
PS	200					
shell/에틸렌	라스라판	Shell	100	에틸렌	1,300~1,600	2013
ExxonMobil	라스라판	ExxonMobil	100	에틸렌	1,300~1,600	2013

자료: 미쓰비시 화학, 일본 화학경제(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Qatar Petrochemical Company Limited Q.S.C. ("QAPCO")	IQ (80%) TOTAL (20%)	1974
Qatar Vinyl Company Limited Q.S.C. ("QVC") Qatar Plastic Products Company W.L.L. Qatar Fuel Additives Company Limited Q.S.C. ("QAFAC")	IQ (50%) OPIC Middle East Corporation (20%) International Octane Limited (15%) LCY Middle East Corporation (15%)	1991

자료: 각 사 웹사이트

1) 주요 생산 제품

카타르 석유화학회사(QAPCO, Qatar Petrochemical Company)는 1981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연간 에틸렌 80만 톤,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40만 톤, 유황 4만 6000톤을 생산 중이다.

□ Ethylene

에틸렌은 다방면에서 화학 가공의 원료로서 사용된다. QAPCO에서 생산되는 50% 정도의 에틸렌이 LDPE공정에 이용된다. 25%는 QVC의 에틸렌 2-염화물, 염화비닐단량체,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생산에 이용된다. 나머지는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 수출한다. Qatofin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틸렌은 LLDPE생산 원료로 이용된다. 2012년부터 QAPCO LDPE-3 플랜트가 추가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에틸렌 생산 초과량은 수출량을 늘리는데 이용되지 않고, LDPE생산에 추가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 Low-Density Polyethylene (LDPE)

필름, 파이프, 케이블, 와이어 등에 이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열가소성 수지 생산 공정에 이용되며, 85개국 이상으로 수출 된다.

□ Sulphur

고품질의 황, 유황은 에틸렌의 공정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며 대부분 인도나 중국으로 수출된다.

□ Pyrolysis Gasoline

QAPCO에 의해 생산된 한정량의 열분해 휘발유는 협력지역회사 원료로 이용된다.

□ Mixed LPG, C3/C4

프로판과 부탄 생산에 이용된다.

□ Methanol

주요 수출국은 아시아, 유럽이다. 지역 산업에 판매되거나 MTBE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석유화학산업에서, 메탄올은 용제(솔벤트), 포름알데히드, 메틸알데히드, 아세트산, 에틸알코올, 무수아세트산, DME, MTBE의 생산 원료가 된다.

□ Methyl-Tertiary-Butyl-Ether (MTBE)

MTBE는 보다 깨끗한 연소를 위한 가솔린 첨가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MTBE는 걸프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수출된다. 나머지는 유럽,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로 수출되고 카타르 국내 시장에서도 유통된다.

마. 철강산업

카타르 철강회사(QS, Qatar Steel Company)는 1974년 설립되었고, 소유권은 100% 카타르 정부에 있다. 약 2천명의 직원과 함께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GCC국가로 수출한다. 또한 두바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강과 코일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1) 주요 생산품

□ Hot Bricked Iron (HBI) and Direct Reduced Iron (DRI)

QS사는 연간 70만 MT이상의 HBI/DRI를 생산한다. 주요 수출국은 중동지역과 인도이다.

□ Steel Billets, Steel Bars

대부분의 강철 빌렛은 철근으로 가공되며, 가공된 철근은 카타르 내의 건설자재로 주로 이용된다. 대부분의 생산품은 카타르 시장에 공급되나, 걸프지역 국가로 수출하기도 한다.

철강품 생산량

(단위: TN 000)

구분	2009	2010	2011
Basic iron and steel	5,230.6	5,628.8	5,924.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확인정보)

바. 비료산업

카타르 비료회사(QAFCO, Qatar Fertiliser Company)는 1969년 설립되었고, 현재 4개의 플랜트로부터 암모니아 245만 톤과 요소 300만 톤을 생산하여 인도, 한국,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1) 주요 생산품

□ Ammonia

대략 80%의 암모니아가 요소 생산의 원료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인도, 요르단, 미국으로 수출된다. 수출된 암모니아 역시 요소 생산의 원료 또는 암모늄 인산염 생산에 이용된다.

□ Urea

고체 비료에 이용되는 과립 요소를 20개국 이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 Urea Formaldehyde Condensate (UFC-85)

UFC-85는 해산제로 요소 산품에 더해져 그 정도를 강화시킨다. 약 65%의 UFC-85생산물이 QAFCO사의 요소 플랜트에 이용되고, 나머지는 GCC국가로 수출된다.

인공/화학비료 생산량

(단위: MT 000)

구 분	2009	2010	2011
암모니아	2,202.1	2,269.5	2,310.8
요소	2,998.4	3,010.0	3,217.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확인정보)

사. 농업·수산업

QNFSP(Qatar National Food Security Programme)는 2008년 설립되어 카타르 내 식품 수입의 안정성과 자급적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QNFSP는 국내 식량안보정책 담당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에도 협력하며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자국의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

1) 농업

카타르에는 약 24천 헥타르의 농업부지와 약 1,300개 정도의 등록된 농장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약 51% 정도의 땅인 13천 헥타르만이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카타르의 평균 생산 농장 크기는 27헥타르이며,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8헥타르만이 곡물을 생산하고 있고, 비슷한 크기의 부지에서 과일, 야채가 생산된다.

보리가 곡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이다. 카타르는 농업분야에 있어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경용수가 부족하며, 관개시설 또한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휴한체계 또한 경작을 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QNFSP는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며 카타르의 농업개발을 위해 Open Field Agriculture, Greenhouse Production, Hydroponics와 같은 농업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힘쓰고 있다.

카타르 주요농산물

야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는 노지나 온실에서도 재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량이 높은 편이다. 카타르는 대략 23%의 수요를 자급자족으로 충당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노지 재배: 16 톤/ha - 온실 재배: 96 톤/ha - 181,265 톤(32240 만 QR) 수입
청예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업과 낙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예사료의 공급 또한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요량의 88.41% 정도가 카타르에서 생산된다. - 평균 생산량: 82 톤/ha - 39,643 톤(39,675QR) 수입
콩류, 씨앗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류는 작물의 순환에 있어 중요하다. 콩류의 경우 수요량의 5.52%는 자급자족적으로 공급하고, 오일시드의 경우는 100%수입에 의존한다. - 콩류: 14,640 톤(3190 만 QR) 수입 - 오일시드: 8,921 톤(4590 만 QR) 수입
곡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의 경우 수요량의 1%만이 국내에서 생산된다. - 곡물 평균 생산량: 5.6 톤/ha (밀 2.2 톤/ha) - 266,034 톤(41780 만 QR) 수입

자료: Qatar National Food Security Programme, 2007(2013. 12월 확인정보)

2) 수산업

수산업은 카타르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며, 지난 십년 간 어획량은 두 배로 증가했다. 수산업의 96%가 국내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며 연평균 소비량은 일인당 12kg정도로 세계평균과 비슷하다. 하지만 수산업의 전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획량과 소비량, 걸프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낙농업에 한계를 갖고 있는 카타르로서는 어류를 통한 단백질과 미네랄 보충이 중요하므로, QNFSP(Qatar National Food Security Programme)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산업의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 건설업

카타르의 건설 산업은 2008년 에너지 산업분야의 도약으로 인한 산업시설 시공을 시작으로 비-에너지 산업분야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2012년 건설 동향은 에너지산업 시설 구축에서 정부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전향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그 기초를 이어갔다.

카타르의 주요 비-에너지 산업 분야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등이 있는데, 2008년에는 GDP대비 주요 비-에너지 산업 비율에서 건설업이 1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해 천연가스가 석유를 제치고 국가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하면서 그에 따른 시설 건설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2008년 12.2%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부터 2011년 9.0%에 이르기까지 GDP대비 산업 비율이 매년 대략 1%씩 감소함으로 미루어 건설업이 저조해지는 듯 보이지만, 카타르의 다른 비-에너지 산업 분야의 GDP대비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건설업은 여전히 카타르의 비-에너지 산업 분야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카타르 정부는 2022년 월드컵 개최 준비를 위해 철도, 경기장, 항만 등 약 U\$600억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하였다. 카타르는 2011~2016년 기간 동안 국가재정의 40%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이 기간에 추진할 주요 인프라 시설은 국제공항(U\$110억), 심해항(U\$55억), 도하 고속도로(U\$10억), 카타르 철도망(U\$350억), 카타르-바레인 연륙교(U\$40억) 프로젝트 등이다. 또한 공공사업청은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도로 및 하수 처리장 건설 프로젝트에 총 U\$200억을 투자할 전망이다. 그리고 2013. 12월 기준, 하수 처리장 프로젝트 등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2010년 카타르 건설 실적

Project Classification	총 계		부 계약		주 계약	
	규모	수	규모	수	규모	수
주거용						
일반 건물(빌딩)	32,803,442	2,717	3,838,289	280	28,965,153	2,437
비-주거용						
도로, 교량	6,253,362	393	440,228	224	5,813,134	169
수로망, 공설하수도	2,312,676	195	325,154	106	1,987,522	89
전선, 전화 통신망	3,083,765	589	1,457,928	287	1,625,837	302
발전, 담수 기계 설비 공사	14,215,644	413	3,380,230	177	10,835,414	236
석유, 천연가스유정	31,704	8	23,844	2	7,860	6
가스관, 송유관	5,275,103	59	500,673	28	4,774,430	31
항구, 항만	981,005	26	421,507	11	559,498	15
기타	3,046,588	346	326,384	199	2,720,204	147
부분 건설						
일반 건물(빌딩)*	1,475,711	264	287,155	102	1,188,556	162
위생	23,699	19	10,066	12	13,633	7
전력	998,220	401	655,548	232	342,672	169
에어컨	1,323,966	152	1,160,222	114	163,744	38
기타	5,740,842	1,233	2,910,769	678	2,830,073	555
총 계	77,565,727	6,815	1,537,997	2,452	61,827,730	4,363

*마루 및 천장, 페인팅, 대리석, 세라믹 작업 등

**본 자료는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실적임.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12월 확인정보)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카타르의 지역 무역 협정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체결되어있으며, 대표적인 지역무역 협정으로는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걸프협력회의)와 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GAFTA, 범아랍자유무역협정)가 있다. GAFTA는 Pan-Arab Free Trade Area (PAFTA)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8년 싱가포르는 GCC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GCC 최초의 중동-아프리카 지역 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로서 의미가 있다. 이듬해 6월에는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유럽자유무역협정)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외 협정체결 진행 중에 있는 국가로는 중국, 호주, 한국이 있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무리한 조건 제시로 인해 2006년이래로 협상 중단 상태에 있다.

<p>Gulf Cooperation Council GCC(걸프협력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걸프만 주변에서 발생한 정치적 불안에 대한 대비를 위해 걸프 지역 6개국이 결성한 단체로, 1981년에 출범하여 2003년 관세동맹을 구축하였다. 이 6개국은 석유의 생산·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며 세습왕정체제를 유지하는 동일 민족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적대시하는 이란의 반발이 심해지자 동맹국간의 보조가 흐트러져, 1982년 11월의 제 3차 정상 회담에서는 경제통합협정만을 조인하고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였다. 1983년 3월부터는 역내의 관세장벽 철폐, 여행제한의 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에는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 <p>※ The GCC-Singapore FTA (GSFTA), 2008 ※ The GCC-EFTA FTA (GEFTA), 2009</p>
<p>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p>	
<p>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GAFTA) Pan-Arab Free Trade Area (PAF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FTA(The Greater Arab Free Trade Area)는 범아랍자유무역지대로 1997년 아랍연맹 14개국의 주도로 출범했다. 이후 예멘과 요르단이 추가로 가입하였고, 2009년 알제리가 17번째 국가로 가입하였다. ○ 아랍 회원국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나 비회원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p>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알제리, 튀니지, 요르단 (7개국)</p>	

주: 2013.12월 확인 정보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카타르는 천연자원으로 인한 수출이익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 성장률에 대략 50%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수출 성장률이 대폭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돌핀, 북부가스전알파, 알칼리지가스 프로젝트의 영향이 컸다. 2009년, 총 89.3bcm(billion Cubic Meter)의 천연가스를 생산, 그 중 68.2bcm을 수출하여 수출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출입 동향 및 성장률

(단위: US\$ 백만,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전망)
수출	48,306	72,040	114,299	133,717	125,504
수입	22,452	20,937	26,926	30,787	35,619
총 무역수지	25,854	51,104	87,373	102,930	89,885
수출 성장률	0.7	10.7	7.7	7.7	7.5
수입 성장률	2.1	21.0	18.8	3.5	1.3

자료: EIU(2013. 9월 확인정보)

하마드 전 국왕의 집권이래 진행된 원유, 가스, 석유화학 등의 여러 프로젝트가 급격한 수출 신장에 기여하였고 이에 따라 카타르는 매년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에는 2008년 시작된 글로벌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US\$ 48,306 백만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US\$133,417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추가적인 가스프로젝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과 인구증가로 인하여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수출입

명목 GDP대비 수출입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	29.4	24.2	29	23.3	25.3
수출	52.1	48.3	51.1	61.1	70.2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9월 확인정보)

카타르는 수출의존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외수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수입은 20%대에 머무르고 있어 증가하는 인구수와 수출 대비 현저히 낮은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계정

(단위: 십 억QR,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	328	578	243	165	189
GDP 대비 비율	11.3	13.8	6.8	76.6	3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9월 확인정보)

다. 수출

주요 수출 품목

구분	금액(백만QR)	비율
LNG	151,235	36.8
원유	96,112	23.4
축합물(Condensates)	73,742	15.0
프로판	18,936	4.6
기타	70,429	17.2
총 계	410,456	100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6월 기준 확인 정보)

2010년, 카타르의 수출 성장률은 49.2%로 전년도(-13.3%)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였다. 2009년 석유 수출량의 급감으로 인해 수출수익에 영향이 있었지만, 2010년 액화천연가스 수출량의 급증(약 50%)과 유가 상승 덕분에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1995년 하마드 전 국왕 즉위 이후 본격적인 북부가스전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부터 석유를 제치고 국가 주요 수입원으로 대두하였다. 2010년, 액화천연가스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 품목의 32%로서 23%를 차지하는 원유의 수출 비중을

훨씬 앞질렀다.

카타르는 수출 시 입찰 협정 과정에 있어(특히 아시아) 유가 기준점과 함께 LNG 수출 가격을 면밀히 책정해왔는데, 특히 천연가스 가격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비-에너지산업에서의 수출 이익은 에너지산업분야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다.

주요 수출국

순위	국가	십억QR	비중(%)
1	일본	78	29.4
2	한국(South)	43.8	16.5
3	인도	23.1	8.7
4	싱가포르	20.8	7.8
5	UAE	13.4	5.1
6	UK	12.6	4.8
7	스페인	11.7	4.4
8	중국	8	3
9	태국	7.9	3
10	타이완	6.9	2.6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6월 기준 확인 정보)

초기에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으나, LNG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관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스페인과 독일이 카타르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며, 그 중에서도 일본은 수년간 카타르의 1순위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라. 수입

카타르의 수입은 2008년 91,492 백만 QR에서 2009년 81,726 백만 QR(24,922 백만 US\$)으로 10.7% 하락했다. 2010년에는 76,210 백만(23,239 US\$)으로 전년도 대비 6.7% 감소하였다.

2010년 카타르 주요 수입국은 미국(국가기준, EU27제외)으로, 수입량은 9,981백만QR (2,742백만US\$)이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5,499백만QR (1,510 백만US\$), 6,130백만QR(2,684백만US\$)으로 카타르 총 수입의 6.5%와 7.2%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	백만QR	비중(%)
1	US	9,980.7	11.8
2	중국	7,658.2	9.0
3	일본	6,373.2	7.5
4	독일	6,129.8	7.2
5	이탈리아	5,498.7	6.5
6	UK	4,308.6	5.1
7	한국	2,642.2	3.1
8	호주	1,309.2	1.5
9	남아프리카	278.5	0.3

자료: Qatar Statistics Authority(2013. 6월 기준 확인 정보)

카타르 수입품목의 대부분은 전자기기와 산업 관련 품목이다. 2010년의 수입 지출은 846억 카타르 리얄(명목 GDP의 18.3%)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계설비와 건설 부자재 수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의존성 또한 높은 편이다.

2012년 1/4분기의 카타르 수입량은 약 30억 카타르 리얄 이었다. 주로 기계, 수송 장비 수입으로, 주요 수입 상대국은 미국, 중국, 일본, UAE, 독일이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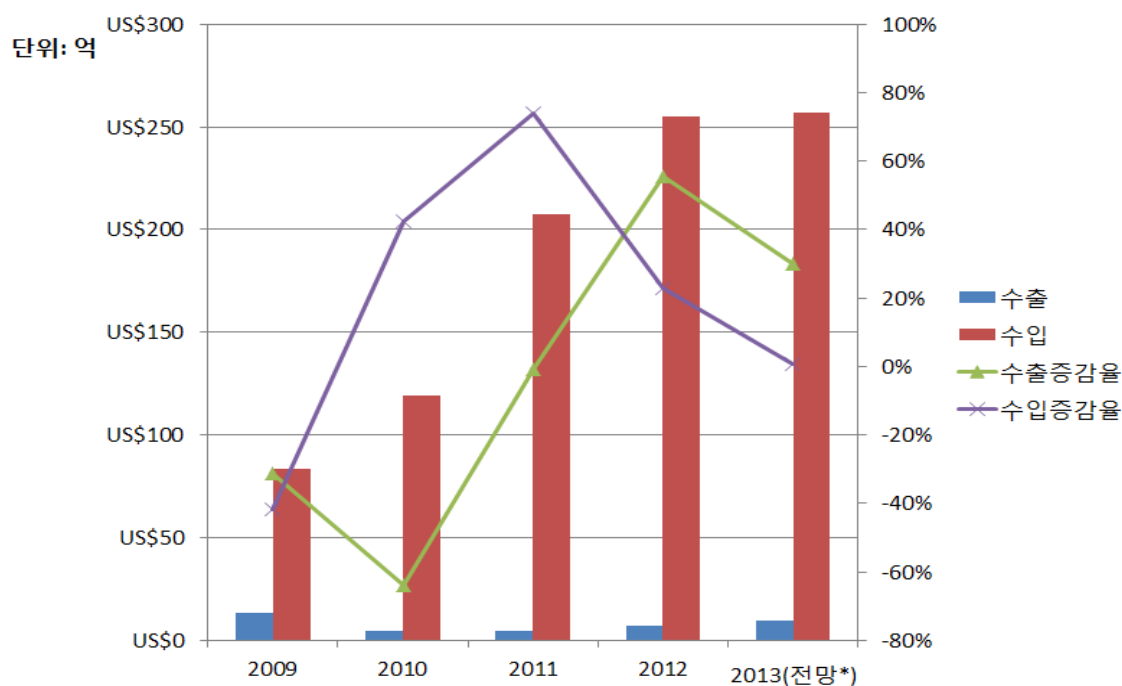
가. 개요

한-카타르 교역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1,310	473	469	730	950
수출증감율	-31.1	-63.9	-0.8	55.7	30.1
수입	8,368	11,915	20,749	25,505	25,723
수입증감율	-41.8	42.4	74.1	22.9	0.9
무역수지	-7,058	-11,442	-20,280	-24,775	-24,824

자료: 한국무역협회, * kotra 예상치 (2013.12 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kotra 예상치 (2013.12 월 기준)

한국과 카타르는 1984년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을 시작으로 1999년 4월 투자보장협정, 2005년 11월 항공협정, 2007년 3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교역 규모가 약 40% 감소하였고,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비중 증가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간재 성격인 에너지자원 수입으로 인한 양국간 무역수지 적자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나아가, 양국의 경제 구조가 한국은 제조기반, 카타르는 에너지자원 수출 기반 산업에 그 비중이 크므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주요 수출입 품목 ('12)

한국의 수출				한국의 수입			
순위	품 목	금액 (US\$백만)	증감율 (%)	순위	품 목	금액 (US\$백만)	증감율 (%)
1	승용차	187	23.2	1	원유	11,520	15.1
2	철강재용기	67	666.5	2	천연가스	9,691	43.1
3	전선	62	515.7	3	나프타	2,902	40.2
4	변압기	44	1404.4	4	LPG	970	-35.2
5	배전 및 제어기	43	1625.4	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92	126.5
6	화학기계	39	389.5	6	질소비료	105	-3.3
7	건설중장비	36	-26.3	7	기타석유화학제품	66	-5.2
8	주단강	25	22.7	8	암모니아수	19	-78.8
9	공기조절기	23	25.0	9	기타정밀 화학원료	13	75.0
10	화물자동차	14	126.8	10	고철	12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3.12 월 기준, MTI 4 단위 기준)

산업별 수출입 통계

(단위: US\$ 백만)

구분		2011	2012
한국의 수출	1차 산품	1	2
	경공업제품	25	29
	IT제품	23	12
	기타	420	686
	총 수출	469	730
한국의 수입	1차 산품	10,013	11,520
	경공업제품	1	0
	IT제품	0	0
	기타	10,735	13,984
	총 수입	20,749	25,505

**소수점 이하 수치에 의한 총계와 산업의 총합간 상이점 발생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12월 확인정보)

나.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한국의 최대 수입 품목

한국의 원유 도입 현황 ('12)

순위	국가	금액 (US\$백만)	전년 대비 증가율	도입비율 (%)
1	사우디아라비아	35,580	7.8	32.9
2	쿠웨이트	15,914	15.2	14.7
3	카타르	11,520	15.1	10.6
4	이라크	10,227	11.9	9.4
5	아랍에미리트 연합	9,869	0.7	9.1
전체		108,298	7.4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12월 확인정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에서 원유를 수입하는데, 카타르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0.6%를 차지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이는 전년 대비 15.1%의 큰 증가율을 보인 수치이다.

국의 천연가스 도입 현황 ('12)

순위	국가	금액 (US\$백만)	전년 대비 증가율	도입비율 (%)
1	카타르	9,691	43.1	35.4
2	인도네시아	5,342	0.8	19.5
3	오만	3,968	14.6	14.5
4	말레이시아	2,309	10.8	8.4
5	나이지리아	1,362	76.0	5.0
전체		27,364	14.7	100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12월 확인정보)

더불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카타르로부터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35.4%를 수입하며 큰 비중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2위인 인도네시아와 16%가량 차이 나는 비중으로 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공급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 카타르 라스 가스(Ras Gas) 지분 참여 사업



- 플랜트 위치
 - Ras Laffan (카타르 북부 해안도시)
- 사업 기간
 - 1999 년~2024 년
- 생산 규모
 - LNG 660 만톤/년
- KORAS 사무소
 - 미국휴스톤('99.12 월 설립)
- KORAS 지분구성
 - 가스공사 60%, 삼성 10%, 현대 8%, SK 8%, LG 5.6%, 대성 5.4%, 한화 3%

자료: 한국건설자원협회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6월 카타르 라스 가스(Ras Gas)와 1999년 7월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492만 톤을 도입하기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향후 5년 이내 LNG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210만 톤을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의정서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연간 702만 톤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삼성, 현대, SK 등과 공동으로 코라스(KORAS)를 설립하여 카타르 라스 가스의 지분 5%(약 U\$4900만)를 인수하고, 이사회 등 경영에도 참여 중이다.

다. 건설 및 플랜트

한국 기업은 1976년에 정유개발이 제철소 공사를 위해 카타르에 최초로 진출한 이래 현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SK건설, 쌍용건설, 삼우건축, 현대중공업, 울트라건설, (주)효성, 효성에바라, LS케이블, 삼성엔지니어링, 동아지질 등 20여개의 건설기업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고, 2013년까지 약 166억불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2008년에는 카타르에서 U\$44억을 수주하여 카타르는 한국 제3위의 해외 건설 시장으로 대두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카타르 정부의 보수적인 재정 운영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를 연기하여 수주 건수가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대카타르 프로젝트 수주액은 2010년 이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을 거양할 전망이다. 누계기준, 카타르는 사우디, UAE, 리비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이라크,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수주대상국 8위이다.

한국의 카타르 건설시장 수주 실적

(단위: US \$ 백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1~11월)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	1,177	4	1,494	6	1,842	7	2,524	95	16,642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망 (2013.11월 기준)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U\$백만)

구 분	2011	2012	2013(1~11월)
계	1,494	1,842	2,524
토 목	0	1,365	2,485
건축	434	92	0
플랜트	1,026	158	39
전기	0	208	0
통신	34	18	0
용역	0	0	0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망 (2013.11월 기준)

2011년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바르잔 가스개발 프로젝트(U\$880백만) 등 플랜트분야의 수주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이후 수주는 토목공정에서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3년 실적의 대부분은 도하 메트로 및 신항만 공사 수주분이 차지한다.

2012년 3월, 국토해양부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카타르 투자청이 운영하는 국부펀드와 함께 총 U\$11억 규모의 2개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공동 투자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사업은 삼성물산이 제안한 사업비 U\$6억 규모의 아프리카의 가나 서부도로 건설사업과 현대건설이 제안한 U\$5억 규모의 인도네시아 석탄터미널 개발 사업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과 무한나디 카타르 철도 사장을 차례로 만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및 비전 2030 계획에 따른 약 U\$1천500억 규모의 공공시설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은 카타르 도하 메트로 프로젝트(U\$30억)를 비롯해 도하베이크로싱 프로젝트(U\$60억 규모 해상교량), 하수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U\$25억), 뮤사이렘 (U\$60억)

및 루사일(U\$55억) 신도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이 메트로프로젝트와 루사일 신 도시 건설사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또한, US\$350억 규모의 카타르철도 건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US\$650억 규모 12개의 축구경기장 건설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건설 프로젝트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량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 동안 단순 수주나 시공 위주로 이뤄진 한국의 해외건설 사업이 중동의 풍부한 국부펀드 자금을 활용, 투자 개발 형 건설 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기업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단위: US\$ 백만)

업체	발주처	프로젝트	금액
현대건설	Heart of Doha -Ph. 1A	무사이랩	335
	Hamad Medical City 2단계	공공사업청(Ashghal)	534
	카타르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박물관청	434
	루세일고속도로 Ph.1	공공사업청	1,000
현대중공업	바르잔 가스 프로젝트(Offshore)	QP+엑슨모빌	880
삼성엔지니어링	라판정유공장DHT공사	카타르가스	100
효성에바라	메사이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카타르국영석유공사(QP)	78
LS전선	GTC/3720/2010	카타르종합수전력공사(Kahramaa)	100
	Vodafone	Vodafone	23
	할룰섬 해저케이블 연결 및 부대공사	QP	400
SK	GSUP	QP	40
	두칸 유전 통신시스템	QP	34
효성	전력네트워크 10단계(변전소)	카타르종합수전력공사	210
	전력네트워크 9단계(변전소)	카타르종합수전력공사	120
삼성물산	루세일신도시 CP3A교량공사	루세일부동산개발회사	90
	루세일신도시 CP5B도로공사	루세일부동산개발회사	300

자료: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2013. 9월 확인정보)

※ 2012년 ~ 2013년 주요 수주공사

(단위: U\$백만)

업체명	공사명	발주처	금액	계약일
삼성물산	루세일 개발 5B(도로 및 인프라)	루세일부동산	296	'12.3.13
현대건설	루세일 고속도로 패키지 1번	공공사업청	993	'12.4.12
효성	전력 변전시스템 확장공사 P.10 S.2	수전력청	208	'12.7.19
GS 건설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South	카. 철도공사	512	'13.6.6
SK 건설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North	카. 철도공사	958	'13.6.18
삼성물산	도하 메트로 역사	카. 철도공사	700	'13.6.20
현대건설	도하 신항만-운하굴착,안벽,준설	New Doha Port Steering Committee	267	'13.8.5

자료원: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금지 품목

총, 소형화기, 탄약 (장식용 포함), 주류, 돼지고기, 마약, 무선 송수신기, 음란물, 폭발 물, 상아로 만들어진 것은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1) 보호무역조치 사례

카타르 세관은 2011.4월부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로 원본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수출업체는 상공회의소의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 승인 받은 후 자체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카타르 세관 측은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1. 9월부터 차량부품 수입 시 원산지 국가 발행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증명서는 카타르 표준청(Qatar Standard)이 공고한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 타이어 수입 시에도 GCC 표준 준수 증명서 첨부가 요구된다.

2013. 4월, 카타르는 통관 규정을 강화하여 원산지표시가 제품에서 제거가 가능한 방법(스티커 부착 등)을 이용하여 표기할 경우 통관이 원칙적으로 거절된다.

나. 기타 수입 규제

특별한 무역 장벽은 없으며, 수입쿼터제 등 수량 제한, 수출 이행 의무 부과 등도 없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카타르에 수출할 경우 상업송장 금액별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업 송장 수수료

(단위: QR)

송장 금액	인증료
1-5,000	100
5,001-15,000	200
15,001-50,000	500
50,001-100,000	900
100,001-150,000	1,300
150,001-250,000	1,800
250,001-500,000	2,200
500,001-1000,000	3,000
1,000,001 이상	CIF 가격의 0.4%

자료: 한국무역협회(2013. 3월 기준 확인 정보)

□ 식품 및 농산품 수입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 및 농산품은 원산지 표기에 따라 반송되거나 2 주 내로 파기될 수 있다.

일반 비닐봉지(폴리에틸렌)는 규정에 어긋나며, 두께가 최소 40 마이크론 이상인 포장재(GS 654/1998, GS839/2001, GS 1024/2001)를 원칙으로 한다.

○ 필요 서류

- 상업 송장
- 물품 상세서
- 적재 화물 운송장
- 원산지로부터의 신서도 확인서
- 원산지 증명서
- 향신료: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
- 0% 방사성, 다이옥신, 시클라메이트 증명서
- 밀가루, 곡물, 씨앗: 식물 위생 증명서
-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보건 증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 증서

□ 식품 내용 표시 라벨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이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는 엄격히 적용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게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 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 생산일자/유통기한 (P/E)

2002년 10월, 카타르는 표준·분류 공통지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타르 표준은 걸프협력국(GCC)표준에서 조금씩 개정되었고, 국가 보건 협회(NHA)가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추가 제정을 하였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정부규제의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걸프 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생산일자/유통기한(이하 P/E)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 라벨 표기 내용

- 표기 언어: 아랍어/아랍어+영어
- 상품명, 상호명
- 원사진
- 성분표(함유량에 따라 배열)
- 첨가물(어떤 것이든)
- 동물성 지방 성분(ex, beef fat)
-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 제조자, 생산자, 배급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회사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월/년' 형태로 표기하며 숫자와 글자 표기 모두 가능하지만 숫자 표기를 권유한다. (August/2012보다는 8/2012로 표기) 세달 이내 정도로 품질 수명이 짧은 식품의 경우 '일/월/년'의 상세한 표기를 요구한다.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 소금, 설탕, 향신료, 차, 쌀, 건조식품과 같이 품질 수명이 긴 식품의 경우 제조일자만 기입한다. 계란은 지역 생산 계란과 분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보존기간이 정해진 식품의 경우 보존기간의 반 이상이 지나기 이전, 수입 된 이후부터 최소 보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도록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 표기 형태

- Expiration date: (date)
- Use by: (date)
- Use before: (date)
- Sell by: (date)
- Fit fir: (duration) from the date of production

카타르 식 약품 관리부서

부서명	사이트 주소 및 기타
National Health Authority (NHA, Ministry of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nha.org.qa/sch/Ar/ - 식품안전규제 총괄, 검역 담당
The Food Control Committee (F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지품목 규정, 농업개발부서
Pharmacy and Drug Control Depar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sch.gov.qa/sch/En/index.jsp - Supreme Council of Health 내에 있는 약물담당부서
Gulf Standards Organization (GS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www.gso.org.sa - 걸프협력국간의 모든 무역제도 관리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개요

2013년 기준 카타르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다. 다만, 원산지증명에 관련하여 원본 제출 원칙에 의거하여 대한상공회의소의 인터넷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카타르 관련당국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이 협의하여 인터넷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해 주기로 협의하였으나 담당자의 사전교육 미 실시로 인하여 원본 원산지 증명서 미비를 원인으로 통관이 거절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 인터넷교부 원산지 증명서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결제 통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나 카타르 리얄(QR) 이외의 통화로 결제할 때는 관세사에게 이를 공지하여 세관 신고 가격 결정 시 정확한 환율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타르는 외환과 자금의 국내외 이동, 신용장 이용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품목분류는 걸프협력회의(GCC) 관세율 표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HS 품목분류를 적용한 것이다. 카타르는 GCC 관세 협약에 따라 8단위의 품목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목분류는 97챕터, 21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타르는 GCC 6개국이 합의한 공동관세율을 2003년부터 채택하여 적용(법 No.41/2002)하고 있으며, 기준관세율은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IF) 가격의 5%이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예외적인 관세는 별도이다.

GCC국가의 경우는 육류, 채소류, 해산물, 곡류, 조미료, 종자, 분유 등을 포함한 400여 개의 상품, 외교관 물품, 국가 안보 관련 생산품, 민간항공, 승객 소지 물품, 자선물품, 선박, 산업프로젝트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카타르는 철근 등 철강제품 및 시멘트에 대해 20%, 요소(암모니아 류)에 대해 30%, 약기류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돼지고기 및 관련 생산품의 수입은 금지하고 있고, 담배 및 술에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포도, 호박은 계절에 따른 관세가 책정된다. 카타르 산업개발은행이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계류, 원료 등은 관세가 면제된다.

장비 등의 일시적인 반입은 관세청의 사전 허가 아래 6개월까지 허용되며,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관세에 해당하는 은행 보증 또는 수표를 관세청에 예치해야 한다.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카타르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회원국이며, 카타르 표준 규격 협회(QGOSM)은 2002년에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카타르 표준 규격은 걸프 표준 협회(GSMO)를 따르고 있으며, 2004년 기준 약 1,699개의 표준 규격이 제정되어 있고 이 중 20%가 음식물에 해당한다. 건축물, 기계, 식품의 경우 카타르 Official Gazette 에 공표된 기준을 따르며, 식품의 경우 엄격한 규정 기준이 적용되며 식품 공중 위생부(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n food products)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 걸프협력국 표준제도

카타르와 걸프 협력국 회원국들은 걸프 6개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충족되어야 하는 GCC Standards라는 표준을 준비 중에 있다. (<http://www.gso.org.sa/>)

□ 라벨링

라벨링은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카타르 세관은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제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표기하게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다.

□ 축산물에 대한 보건증명제도

모든 수입쇠고기와 가금류에 대해 원산지로부터 보건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산지 이슬람센터에서 승인하는 할랄 Halal(이슬람 율법에 따른 도살법) 도살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은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 또한 요구된다.

□ 의약품

모든 의약품은 MPH의 의약부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전자제품(전기 다리미, 헤어 드라이어, 선풍기), 자동차 부품(안전벨트, 브레이크 패드, 휠림), 모든 종류의 장난감은 수입 시 일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Qatar Customs 로부터의 인증이 요구된다.

□ 카타르 품질인증 마크

카타르 정부는 품질인증마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진행상황이 더딘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도입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카타르 인증제도관련 법률

- 1990년, 법령 제 4조에 근거하여 Standards and Metrology System은 국가표준기구를 설립
- 2002년, 개정법령 제 16에 의하여 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Metrology가 설립
- 2009년, 국왕령 제 39조에 의하여 카타르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 3개 부서 설립(Quality&Conformity, Standards&Metrology, Central Labs and Calib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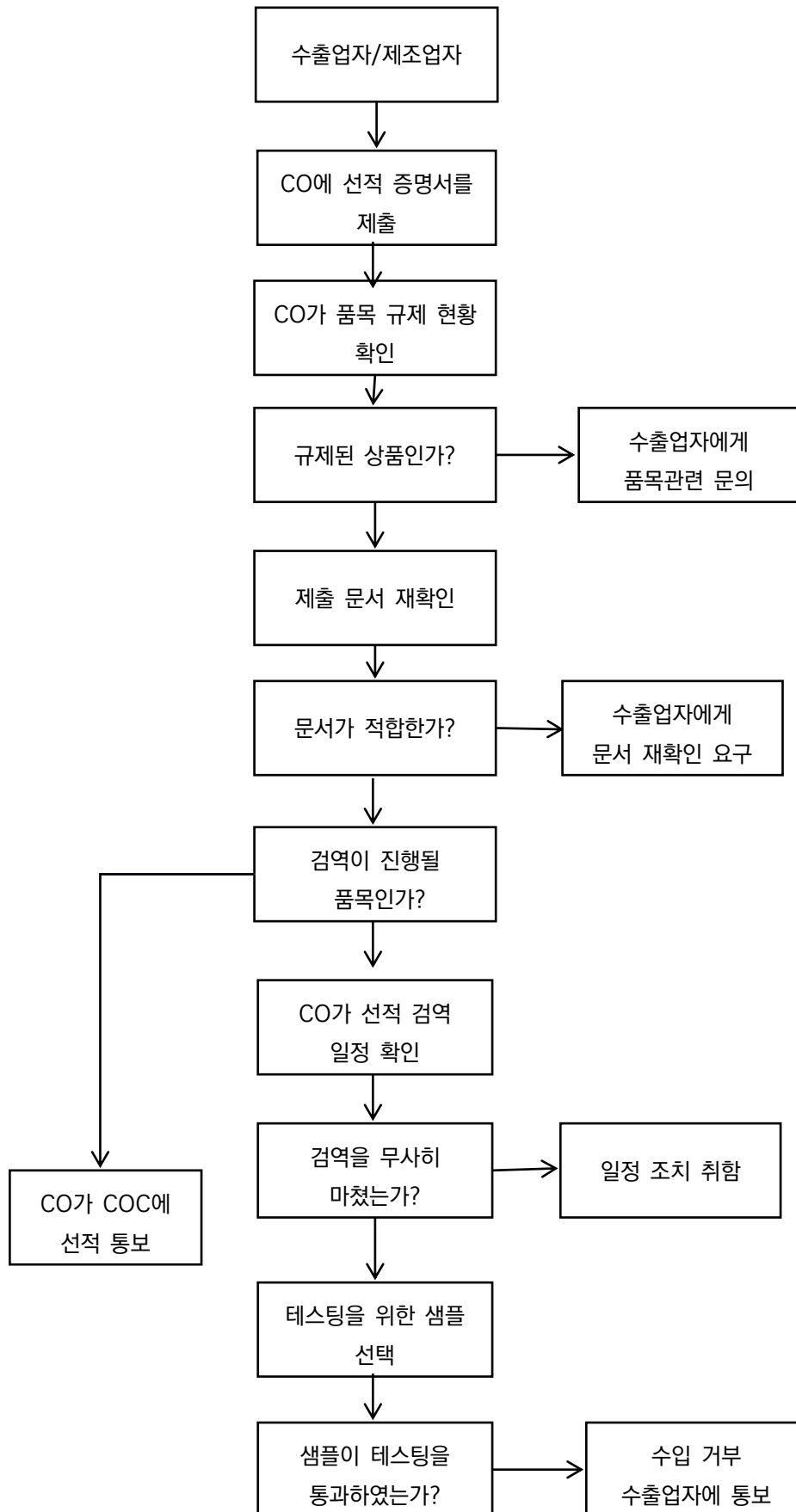
□ 업종별 인증기관

모든 품목에 대해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수출국내 공인 인증기관(KTL 등)의 인증을 인정한다. 다만, 해당인증이 카타르 표준청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건설자재의 경우 Qatar Construction Standards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 카타르 인증기관명

- Qatar Gener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and Metrology(QS)
 - Tel: +974 4447 9805
 - Fax: +974 4447 9052
 - Email: standard@qatar.net.qa

증명서 발급 과정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근래 카타르는 지적재산권(IP)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경제재무부(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가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허청(the Trademarks Office), 저작권접권보호청(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이 집행기관이다.

카타르는 2005년 4월 WIPO 저작권 조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을 채택하고, TRIPS 협정에 맞도록 GCC 특허법을 새로 개정, 적용하였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법 NO.7/2002에 의해 규제되며, 경제상무부(the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가 관여하고 있다.

상표·저작권 관련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특허법은 2006년 의결되었다. 카타르는 몇몇 세계지적재산권협회(TRIPS 외)의 일원이긴 하지만, 특허협력조약(the Patent Cooperation Treaty)이나 마드리드협정(the Madrid Convention)가맹국은 아니다.

□ 저작권, 판권

저작권은 법 NO.7/2002,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인접 권리(이하 저작권법)기준에 따라 보호된다.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 후 소멸된다.

저작권 소유주는 재정경제원(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 있는 저작권 및 인접권리 보호청(the Office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에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권은 보호에 영향을 받는다. 저작권 법 위반 시 벌금 또는 구금이 이루어진다.

□ 작품의 출판, 전시, 유통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생산되는 모든 복사본에 그의 이름을 적용할 수 있다. 작가는 또한 작품의 출판, 녹음, 전시와 적절한 논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상호

대리점·가맹점 규제는 상법 NO.8/2002에 의거한다. 카타르 시민권자나 카타르 회사만이 에이전트로 등록할 수 있다. 대리점 계약은 만기나 시간계약이 없다. 한 명의 대리인에 하나의 상호만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기업은 여러 명의 대리인들을 두고 일인당 하나의 상호를 두어 여러 개의 상호를 등록할 수 있다.

대리점 계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공식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 유치는 어떠한 상호든 세관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적발된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리인의 인가서, 운송장이 요구된다.

□ 특허

특허는 특허법 법령 NO.3/2006에 의거 20년간 보호된다. 걸프협력기구(GCC) 특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있는 특허청에서 부여 받을 수 있다.

○ 특허법에 관한 장관령(2006)

- 산업관련 발명품만이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
- 산업 품목 수단 생산과정은 혁신적이고 특허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 건강, 농업, 식물,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허를 가질 수 없다.
- 카타르 시민이나 WTO 국가의 외국인들만이 특허등록을 할 수 있다.
- 경제상무부(The Ministry of Economy and Commerce)가 특허법을 규제하고 특허 등록소를 설치한다.

□ 상표

카타르의 상표 규제 제도는 행정부령 NO.3/1978, NO.47/1986, 장관령(Ministerial Decree) NO.17/1987가 있다. 독특한 형태의 이름, 서명, 단어, 글자, 숫자, 디자인, 그림, 상징물, 스탬프, 쌀, 삽화, 표식 모두 상표로 등록 될 수 있다. 일반적, 부도덕적, 초상권을 침해하는 형태, 표현, 디자인은 상표로 등록 될 수 없다.

카타르는 모든 42등급(42 Classes)의 국제 분류 시스템을 채택하였으나, 주류 품목(Class 33)은 제외한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 공보(Trademark Gazette)에 공표되며, 이의 제기는 공표 후 4개월 이내로 반영되어 검열된다.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0년간 보호되며, 기간 내에 보장이 갱신될 수 있다. 그 권리는 상표권의 독점을 상징하며, 이에 따른 법률위배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 관련 법규

Laws	Issue
GCC 관세	관세
관세법 No.40/2002	관세 규제; 수입, 수출, 원산지제도
카타르 투자법 No.13/2000	외국인 투자
법 No.5/2002 (영리회사) 법 No.8/2002 (상업흥신소)	기업 설립
등록법 No.11/1962 (1987개정)	회사 등록
법 No.12/1999 (농산물검역)	SPS 협정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
법 No.16/2002	기술 표준, 도량
법 No.10/1980, 법 No.9/1981, 법 No.10/1990	정부조달
법 No.7/2002	저작권
법 No.9/2002	상표, 지리적 표시, 산업 디자인
GCC통합법(2002)	특허
법 No.10/1974	석유, 천연가스
법 No.10/2000	전기, 수도
법 No.13/1987	통신
우편법 No.14/1990 각령 No.18/2001	우편 서비스
자금세탁방지법 No.28/2002 (각령No.21/2003으로 개정)	은행업무
법 No.14/1995 법 No.25/2002	보안
각령 No.16/2002	수송
법 No.16/1998	관광

자료: Information provided by the Qatari authorities.

8.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가. 통관

카타르에서 수·출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원산지표기와 카타르 대사관,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공증을 마친 신용장이다.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 시 세관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은 유효한 수입면장을 발급한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카타르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업자로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카타르 상공회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서류

- 상세 세관신고서(Detailed Customs Declaration)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
-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개인 수입업은 카타르 국적자 만이 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카타르 국민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만이 할 수 있다.

- 법에 명시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카타르 국적자가 최소한 51%의 자본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타르 정부로부터 허가되었고 수입 라이선스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법에 명시된 영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으로서 주재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계약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카타르에 지사를 등록·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인 경우

외국인은 유한책임회사(LLC),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로서 카타르 경제통상부에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후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물품을 증명할 수 있고 외국인 공급업자와 체결한 구매, 임대, 대리인협정서 등 합당한 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일부 서류는 복사본 또는 팩스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나 세관의 원본 요구 시 기업 또는 관세사는 통관 후 90일 이내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타르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화물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COO,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5월 11일부터 카타르로 발송되는 모든 비 서류 물품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상에 한국 주재 카타르 대사관 도장(Stamp)이 찍혀 있지 않을 경우, 관부가세 이외에 아래의 금액이 수취인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 통관 서류 합법화 비용: 약 70,000원(QR 250.00)

- 도착지 통관 관리 비용: 약 14,000원(QR 50.00)
- 원산지 증명서(COO,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 Gulf Cooperation Council(GCC) 국가 (Saudi Arabia, Kuwait, Bahrain, Qatar, United Arab Emirates and Oman)에서 제조된 물품을 포함하는 화물은 반드시 원본 직인과 원본 서명(잉크)이 있는 COO 가 첨부 되어야 한다.
 - GCC 국가 외의 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이 포함 된 화물에 대해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칼라 인쇄된) COO 도 인정된다.

나. 운송

□ 국제공항

Doha International airport 는 카타르의 국제공항으로, 카타르항공을 포함하여 현재 22 개의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다. 또한 2004 년부터 공항의 동쪽에 New Doha International Airport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년 1 단계 완공, 개장 예정으로 총 면적은 2,200 헥타르에 달한다. 공항이 완공되면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최첨단의 공항으로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중동에서 항공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 국제항구

Doha port 는 카타르의 중심항으로 지속적인 포화상태로 인해 2007 년 이래로 Doha New Port 건설 중에 있다.

Umm Said(Mesaieed) port 는 석유 수출항으로 1970 년대에 개장한 카타르의 산업의 중심지로 도하(Doha)에서 남쪽으로 37km 떨어진 동쪽해안의 반도에 위치한다. 또한 이 항구는 나라의 기간산업에 필요한 건축, 건설과 관련된 중장비재와 소비재를 수입하는 상업중심항구로서 카타르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 카타르 운송 정보

운송기간(한국 - 도하)

구분	기간
포장 후 대기기간	7-10
배 운항기간	30
현지 통관기간	5-7
통관 후 배달기간	3-5
총계	45-52

주: *위 일정은 선적과 통관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음

**식품의 경우 검열과정에 따라 10일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음

9. 수출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HS코드)	2013년 대비 (예상 증가율)	품목별 전망근거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르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화학기계 수요 증대 기대 ○ 한국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인한 다소의 건설장비 도입이 예상되나, 대부분의 장비는 현지에서 임대형식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임.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준비를 위한 경기장 건설에 사용될 철강제품 및 다수의 건설프로젝트에 투입될 철강제품 위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동차 (741)	소폭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르 정부의 자동차 등록 수 제한 움직임 ○ 원화강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와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가전 (82)	소폭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형태가 발달함에 따라 인구 증가폭에 비해 가전제품 수요 증가율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주재원, 바이어 인터뷰

나. 수출 전망근거

근래 원화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카타르 주요 수입자들은 그 동안 품질이 제고된 중국산 제품과 비교하여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높아졌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소비재뿐만 아닌 파이프, 트랜스미터 등 산업재의 경우도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對카타르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도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 그 동안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우위를 지키고 있던 가격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하메트로 공사와 상수도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2013년 수주한 US\$245억 중 US\$240억을 상회하는 수주액이 도하메트로 공사에 집중됨에 따라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품목의 수출 증대가 전망된다. 다만, 건설기업들은 강교 등 특수기술이 필요한 품목이 아닌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따라, 우리 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도 한국산 제품의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LS 전선, 효성에바라 등이 수주한 다수의 전력관련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나, US\$450 백만 규모의 LS 전선 하물섬 해저케이블 연결 및 부대공사가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있어 관련품목에 대한 수요 증대가 전망된다. 다만, 관련품목의 가격경쟁력이 카타르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0.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중동의 '강소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고 있는 카타르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비슷한 면적(1만1437km²)을 지닌 자그마한 국가이다. 2011년 기준 총 인구 약 192만 명의 소규모 시장으로서 카타르 인구의 95.9%는 도시에 집중 되어있고, 이는 사람들에게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자원개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경제의 다각화를 시도하는 정책흐름과 함께 교육, 건강, 스포츠, 관광,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천연자원수출을 통한 국가 수익의 꾸준한 증대로, 국민들의 유효 수요 및 실질 구매력 또한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카타르는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로 구미 국가들이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관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0년 IMF자료에 의하면 카타르의 제1위 수출국은 일본, 제1위 수입국은 미국이다. 한국은 카타르의 제2위 수출국이다.

중동의 떠오르는 국가이고, 하마드 전 국왕의 경제 정책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카타르는 외국인 투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투자법은 상무부 (Ministry of Business and Trade)의 특별 허가에 따라 100%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농업, 산업, 여가, 관광, 건강, 교육, 천연자원 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장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파크(QSTP)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도 주고 있다. 이에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카타르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가로 성장했고, 2012년 기준 LNG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GTL 공법의 리더로 자리 잡았다. 2010년 기준 카타르 노스필드에는 900조 표준 입방미터 이상의 가스가 매장되어있고, 석유는 250억 배럴 이상이 매장되어 있으며,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급성장한 경제와 국가수익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단순 이익만을 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의 투자를 통한 경제의 다각화로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해마다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카타르의 저축비율 또한 경제 호황과 함께 상승하였다. 2011년 저축 비율은 가처분소득(국민소득 통계상의 용어로 개인소득 중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의 18.4%를 차지했고, 2012년 19%까지 올랐다. 2011년 소비지출은 12.2%상승했고, 가처분소득은 14.1%증가하였으며 역시 꾸준히 오를 전망에 있다.

카타르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소비자 물가상승률(%)	13.2	-10.2	0.4	2.1	2.6	3.7	4.4

주: *EIU전망치

자료: EIU(2013. 12월 확인정보)

□ 소비동향

경제발전의 다각화와 더불어 1인당 가처분 소득은 평균 3.6%를 유지하고, 1인당 소비지출 또한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까지 U\$18,12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2007년 까지 가계수익과 지출이 82.2%가량 증가했고,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소비지출의 62%는 자유재량품목(식·음료, 거주비용을 제외한 품목) 이었으며, 이는 2005년 61.6%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이다. 주거비용은 25.7%로 2011년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카타르는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젊은 인구가 많다. 2011년에 X세대(27세~39세)는 가장 큰 소비 집단으로 전체 인구구성비 중에 37.2%(705,300명)를 차지했다. X세대는 2020년까지 수입품의 수요를 창출하면서 가장 큰 소비 집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붐 세대(40세~60세)는 2011년 23.2%에서 2020년 29.0%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레저, 건강, 보건산업의 수요를 이끌어갈 것이다.

카타르 소비자들은 기술에 상당히 민감하고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이 많다. 고품질의 지명도 높은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기술을 파는데 있어서 품질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2012년 기준 삼성전자가 뛰어난 기술력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34.3%로 점유율 선두를 달리게 됨으로써, 통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돋보이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갤럭시S2, 갤럭시노트 출시가 성공적 인기를 거두었고, 카타르 시장에서 올 1/4분기에 전년도 대비 64.7%의 판매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oston Consulting Group(BCG)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 내 U\$100만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싱가포르, 스위스 다음으로 높은 8.9%로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중동 시위사태의 영향이 적었던 카타르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수준 상승과 함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시장이 확대되었고, 더불어 고가제품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유가에 민감한 카타르 경제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카타르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라면 유가 및 부동산 가격이 해당 지역 부유층의 구매력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나. 주요사항

아랍 상표 부착이 필수사항이며 또한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일대일 접촉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카타르에 수입되는 식료품에 대해 수입가격의 10-15%, 소매가격으로는 도매가격의 20-30%의 인상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소수 대규모의 카타르 기업이 판매망을 지배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매상은 전체 식료품 유통망의 25%만을 점유하고 있다. 식료품 가공업과 포장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타르 법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 카타르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통해야 하지만, 카타르 군대나 경찰에 자본재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기업은 예외이다. 국내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반드시 '51%의 지분을 소유한 카타르인'임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수입품은 재정경제부에서 카타르 인에게만 발급되는 수입 승인권을 소유한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찰 등에서 유리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대리인, 정부주요인사에게 신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의 선정이 카타르에서의 사업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다.

외국기업과 카타르 인이 독점대리계약을 맺을 경우 대리협정은 반드시 재정경제부의 상업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중재 및 해결을 담당한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결손적자에 대해서 국내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카타르 상업 대리법에 따라 한 번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교체 변경은 불가능하다.

□ 시장 진출

대부분의 소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카타르 수출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선 카타르의 소비 성향은 주로 고소득의 카타르 인들은 유럽제품을 선호하고, 저소득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도, 중국 등의 저가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소비시장에서의 공략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 확보가 필요한데, 근래 카타르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 이미지로 한류가 태동하고 있다. 2012년 3월 보건복지부와 주한 카타르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KOTRA가 지원한 한류 행사에는 영화배우 송중기가 참여하여 카타르 현지 한류열풍을 실감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는 특히, 전자제품, IT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우세하며 차량이나 일부 기계류에 대한 선호도도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건설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한국 기업의 우수한 건설 시공능력과 적은 경비 소모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건설 및 플랜트 수주분야에 더 많은 진출을 모색하여야 한다.

11. 바이어 발굴

가. 개요

바이어 발굴은 조사대행,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시장개척단 사업, 전시회 참가 등 KOTRA 주요사업 참가 및 무역관 홈페이지 인콰이어리 검색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보 및 통신 인프라가 극히 취약해 현지에서 발간되는 업체 디렉토리, 옐로 페이지 등에 수록되는 정보는 이미 2~3년이 경과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보로서의 가치는 기대할 수 없으며 웹 사이트 등 인터넷상의 바이어 정보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카타르는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 기관의 웹사이트 운영이 부실 하며, 정보 축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으로 카타르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KOTRA의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doha) 또는 바이코리아 (www.buykorea.org)를 통해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더불어, 바이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1) 카타르 상공회의소

- 홈페이지: <http://www.qatarchamber.com>
- Tel.: +974 4455 9111
- Fax.: +974 4466 1693
- e-mail: qcci@qatar.net.qa

2) 전화번호 검색사이트

- QATCOM: <http://www.qatcom.com>
- Yellow Page: <http://yellowpages.qa>
- 온라인 디렉토리: <http://www.qataronlinedirectory.com>
- 카타르 상공회의소: <http://www.qatarchamber.com/>

나. 코트라 의 바이어 찾기 서비스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고객요청에 따라 전세계 해외 무역관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징

- KOTRA 의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고객 의뢰 시점에 해외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접촉, 발굴하여 KOTRA 수출전문위원과 고객이 공동으로 확인 후 고객이 거래알선을 추진하는 서비스임.
- 정보내용은 고객의뢰 품목 현지시장 핵심 포인트, 시장동향요약, 관심바이어 (1 개사 이상) 및 잠재바이어(3 개사 이상)로 구성됨.

유의사항

-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국내생산제품의 바이어 발굴인 경우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영문카탈로그 혹은 영문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에 이용 가능함.
- 모든 조사는 현지 무역관의 사전검토 후 진행되며 사전검토 및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가 거절될 수 있음.
 - 해당 국가의 직, 간접적인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거래의사를 가진 바이어가 거의 없는 경우
 - 해당 무역관의 지사화 품목인 경우
 - 3개월내 동일품목으로 조사가 기 진행된 경우
- 이 서비스는 정확한 바이어 정보전달을 위한 것으로 바이어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아님.

문의처

- KOTRA 사업안내: 1600-7119
- 카타르의 경우 현지 도하 무역관의 Q&A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바이어와의 소통

중동 특성상 바이어와의 절차 진행에 있어 시일이 다소 더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연락두절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락을 취할 시 이메일로만 발송 후 꼭 전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메일을 읽지 않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3. 주요전시회 개최일정

구분	일정	분야	주최기관
카타르 도하 국제석유기술 컨퍼런스 & 박람회	2014.1.20~22	오일&가스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카타르 도하 해양방위전시회	2014.3.25~27	방위	Clarion Events
카타르 도하 건강, 안전,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컨퍼런스 & 박람회	2014.9.22~24	건강, 환경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14. 수출 성공실패사례

가. 첨단농업기술¹

경기도 첨단농업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 공장'의 카타르 수출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대표단은 식물공장 수출을 추진하는 카타르에 공장 규모와 연구 범위, 수출 금액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고, 양측 대표 5명으로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초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카타르 정부는 도 제안서를 검토한 후 이번 주 내로 환경부, 과학기술청, 에너지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도와 식물공장 수출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에서 농업기술이 수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향후 10조원 규모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중순쯤 공동연구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5월 중으로 경기도가 제안한 수출 규모와 금액 등을 놓고 세부협상을 벌일 것"이라며 "카타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도와 카타르 정부간 협상과는 별도로 식물공장 상용화기업인 베지텍스가 지난달 27일 카타르왕족이경영하는 알 아메이다 그룹과 식물공장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수출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이유다.

도는 알 아메이다와 베지텍스간 협약이 일본 등 식물공장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중동 진출에 성공한 사례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밖에 도 대표단은 UAE와 쿠웨이트의 상공회의소, 농업 주무관청, 투자기관을 방문해 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도 대표단은 중동지역 51개 회원국이 속한 이슬라믹개발은행의 연차 총회와 GDLA(사막연합체기구, 17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첨단농업기술세미나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 받기도 했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식량의 90%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중동국가에서 경기도의 첨단농업기술은 생산량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첨단 농업기술을 보유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수출을 눈앞에 둔 스마트 식물공장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2010년 첨단 정보기술(I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첨단 작물재배 유리온실이다. 115㎡의 온실에서 로봇이 파종하고 햇빛 대신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비추며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최적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한다.

¹ 자료: 경인일보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원산지 표기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카타르가 요구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한상공회의소 직인이 직접 날인된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교부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통관과정에서 계류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 것과 관련해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에서 카타르 관련당국과 협의하여 인터넷 발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통관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아직도 해당 문제로 우리기업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한국 S社가 이전과 동일한 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을 진행하였는데도 통관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담당자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 발생시 지체 없이 KOTRA 도하무역관이나 주카타르 대사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S社의 경우에도 계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도하무역관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카타르 정부는 무역과 해외직접투자(FDI)를 장려하고 있다. 2008년~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9년~2010년 FDI유입이 30.2%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는 2010년도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FDI유입규모가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2010년 투자 하락세는 2009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심리위축의 결과로, 같은 기간 FDI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던 대규모 프로젝트도 다수 취소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49%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농업, 의료, 천연자원, 관광산업과 같은 특정분야에서는 외국인도 10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과 금융 분야는 아직도 외국인에게 투자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외국기업이 거래를 하려면 현지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국내투자자들을 위해 투자프로젝트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정부의 개입과 사업규정의 투명성부족은 외국기업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GCC지역 이외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펄-카타르, 웨스트 베이 라군, 알쿠어(Al Khor)지역의 땅에 한하여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다.

카타르는 농업, 산업, 관광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면세수입을 허용하고,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을 걸었지만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 카타르 경제 자유도

카타르의 경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카타르 정부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석유와 가스 산업 이외에도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카타르의 경제 자유도는 전 세계 179개국 중 25위이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7개국 중 바레인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카타르는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은 부정 부패율을 보여준다. 또한 민간사업체를 위한 규제는 유연한 편이다. 카타르의 개방된 무역체제, '중동의 금융허브'라는 이점은 석유·가스 산업 분야 이외에 민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관세장벽 없이 무역가중 평균 관세율은 보통 3.8%수준이다. 정부의 승인이 있을 시에는 자본의 100%를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9%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권은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면서 현대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카타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제도적인 토대를 세우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불안정한 물가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지역 경제자유도

순위 (중동)	국가	점수	전체순위
1	바레인	75.5	12
2	카타르	71.3	27
3	UAE	71.1	28
4	요르단	70.4	33
5	사이프러스	69.0	41
6	오만	68.1	45
7	이스라엘	66.9	51
8	쿠웨이트	63.1	66
9	터키	62.9	69
10	사우디아라비아	60.6	82

자료: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 국가경쟁력

월드이코노믹 포럼이 발표한 2012년 국가경쟁력에서 카타르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1위(18개국 중)를 차지했고 전체 순위는 14위(142개국 중)이다.

국가 경쟁력 순위 ('12-'13)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5.72
2	싱가포르	5.67
3	핀란드	5.55
4	스웨덴	5.53
5	네덜란드	5.50
6	독일	5.48
7	미국	5.47

순위	국가	점수
8	영국	5.45
9	홍콩	5.41
10	일본	5.40
11	카타르	5.38
12	덴마크	5.29
13	대만	5.28
14	캐나다	5.27
15	노르웨이	5.27
16	오스트리아	5.22
17	벨기에	5.21
18	사우디아라비아	5.19
19	한국	5.12
20	호주	5.12

자료: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2013. 12월 기준 확인정보)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개요

구분	주요 정책내용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장비, 도구, 부품에 대한 면세 - 0% 수출관세 - 카타르 정부 사전승인하에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 외국인 임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금전상 인센티브는 없음
제도개선·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안정성(고정환율)과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움. -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력 수급 - 카타르 개발은행(1997년 설립)의 산업투자 부분에 대한 저렴한 대출제공 - 중점 투자유치산업에 대한 외국인 100% 소유권 인정 * 단, 정부승인(장관승인)하에 100%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해당 사례는 거의 없음.
시장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보험, 무역대리점, 부동산 분야를 제외한 기타 업종의 경우 외국인에게 시장이 개방되어 있음.
중점 유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법률, 농업, 의료, 바이오, 교육, 관광, 신재생 에너지, 하이테크 산업 등
유치체계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타르 경제무역부 산하 투자전담 부서

3. 외국인 투자동향

카타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거대 시장이다. 2009년 약 U\$81억의 FDI 유입으로 그 해 세계에서 대략 0.7%를 차지했다. 카타르통계청(Qatar Statistics Authority, QSA)에 의하면, 카타르 외국인투자의 절반 정도는 석유, 가스 분야이고, 약 25%가 제조업이다. 2009년 카타르의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stocks 80%이상을 차지한 상위 5개국은 미국(26.4%), 네덜란드(26.1%), UK(11.3%), UAE(7.8%), 일본(7.0%) 그리고 한국(3.6%)이었다.

중동 국가별 FDI 유치 현황

(단위: US\$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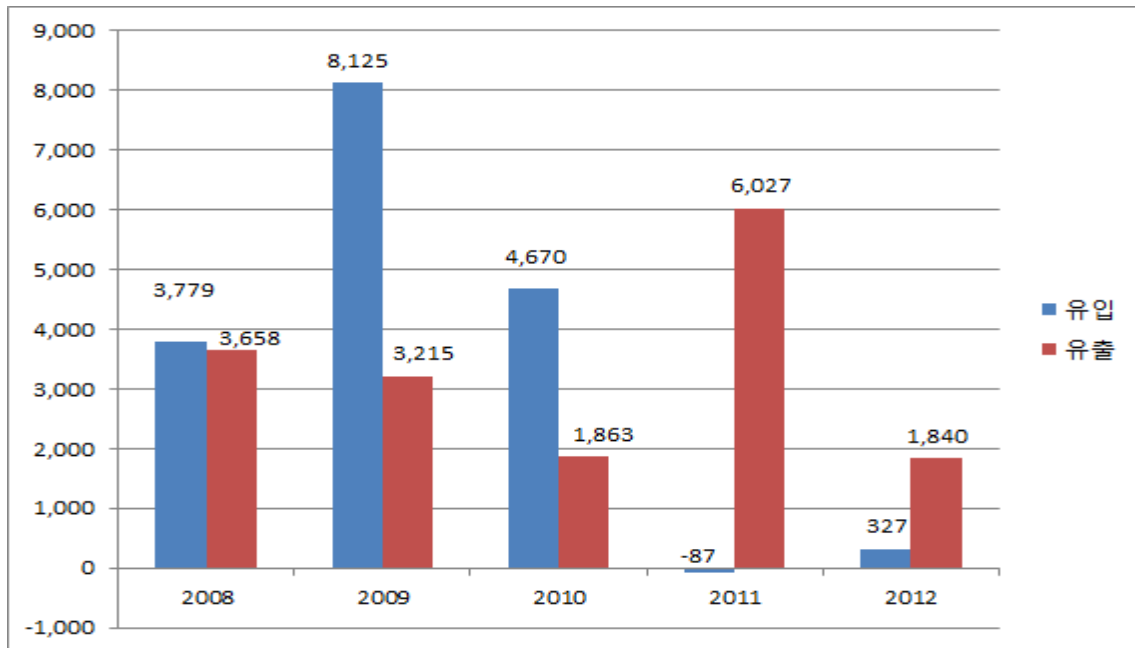
국가명	2010	2011	2012	전년대비 증감율
사우디	29,233	16,308	12,182	-25.3
UAE	5,500	7,679	9,602	25.0
레바논	4,280	3,485	3,787	8.7
이라크	1,396	2,082	2,549	22.4
쿠웨이트	456	855	1,851	116.5
오만	1,243	739	1,514	104.9
요르단	1,651	1,474	1,403	-4.8
바레인	156	781	891	14.1
예멘	189	-518	349	-167.4
카타르	4,670	-87	327	-
팔레스타인	180	214	244	14.0
시리아	1,469	-	-	-

자료원 : UNTAC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2013. 12 월 기준 확인 정보)

정치적 불확실성 및 글로벌 경제전망 불투명에 따라 중동지역 전체적으로 FDI가 감소하였다. 기존 LNG 시설투자 종료 및 다국적 에너지기업의 투자기피 등으로 2012년 카타르의 FDI 유입액은 중동국가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카타르 FDI 유출, 입 현황(2008-12년)

(단위: US\$백만)



자료원 : UNTACD, World Investment Report 2013

카타르의 해외투자 유치금액은 2009년 81억불 유입을 정점으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간 카타르의 정유,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다국적에너지 기업과의 JV체결로 FDI가 유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카타르는 국부펀드인 QIA 및 QH 등 자회사들을 통해 주로 유럽지역 부동산, 스포츠 클럽 등에 투자하고 있고, 이외 Ooredoo의 쿠웨이트 이동통신사 지분 92% 매입(약 US\$20억) 등 활발한 투자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업종별 FDI 유치

업종	비율(%)	수
채굴, 채광, 광업(석유 및 가스)	15.4	61
제조	6.3	25
전기, 수도	0.5	2
건설	23.7	94
도소매업	15.2	60
식당&호텔	3.0	12
운수업	2.0	8
금융중개(은행)	9.6	38
보험업	2.5	10
부동산&사업서비스	18.2	72

업종	비율(%)	수
사회적, 개인적 서비스	3.5	14
계	100.0	396

자료: QSA(2013. 6월 기준 확인 정보)

2010년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업종별 FDI유치 순위(건수기준)는 건설, 부동산, 오일&가스, 도소매업 순으로 나타났다.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은 2012년 기준 U\$ 100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투자전문 기관이다. QIA는 2005년도 설립 이래 꾸준히 국가 수입원의 다각화를 목표로 투자를 진행해왔는데, 특히 에너지 흐름에 민감한 카타르 경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국제 시장(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비-에너지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QIA는 금융서비스, 자동차, 항공우주,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다수의 국제적인 직접 투자를 진행하여 왔다.

QIA는 지난 2009년부터 폭스바겐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포르쉐의 지분을 상당부분 인수해왔다. 폭스바겐은 2009년 포르쉐의 지분 49.9%를 인수했고 지난 2월 포르쉐의 잔여 지분 매입을 통해 합병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에는 스페인의 건설사인 ACS가 합병하려 눈독들이고 있는 독일의 세계적인 건설회사, 호티에프 (Hochtief)의 지분 9%를 매입했다. 또한 해롯백화점을 U\$23억5천만에 인수하였고, 2011년에는 미국 보석류 업체인 티파니의 지분 5%를 인수하였다. 프랑스 스포츠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 FC는 70%까지 인수하였다.

2012년, 카타르는 엑스트라타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해 왔다. 제퍼리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11년 2월 22일 이후 QIA는 광산업체 지분 전체 거래량의 37%를 차지할 정도였고, 2012년 6월에는 엑스트라타의 지분을 10%까지 매입하였다.

또한 2012년 3월 기준 U\$8억6천만의 가치인 프랑스의 세계 1위 명품업체 LVMH의 지분을 1% 매입하였다. 7월에는 발렌티노, 미소니까지 매입 하는 등 과거 대비 유명 명품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해외 기업 인수 및 합병

(단위: U\$백만, 거래 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1-5)
매출(Net sales)	건 수	2	2	-	-
	금액	124	298	13	-
매입(Net purchases)	건 수	19	9	6	-1
	금액	6,029	10,266	865	-1,200

자료: UNCTAD (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주요 투자와 매입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카타르는 부동산, 스포츠, 금융, 문화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12년, QIA는 U\$ 300억을 투자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다.

카타르투자청은 설립 이래 국내 에너지 중심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비-에너지 산업 중심의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비-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보다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던 과거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유럽 명품 브랜드(발렌티노, LVMH)와 자동차, 스포츠 구단(파리 생제르망FC), 유통업체(프랑스 Printemps 백화점)뿐만 아니라 고가의 예술작품 등 문화산업 영역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부펀드 포트폴리오 현황(2009~2013 신규투자기준)

연도	투자 대상	비고
2009	포르쉐(Porsche)	- 10% 지분 매입, 2013년 매각
	폭스바겐(Volkswagen)	- 17% 지분 매입
2010	호흐티프(Hochtief)	- 9% 지분 매입
	해롯(Harrods Group) 백화점	- U\$ 23억 5천만에 인수 - 지분 9.1% 보유 - 카타르 국부펀드는 향후 뉴욕, 파리, 쿠알라룸푸르에 해롯호텔 (Harrods Hotel)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18년 쿠알라룸푸르에 해롯호텔 완공 예정임.
	브라질산탄데르은행 (Banco Santander Brasil)	- US\$ 270억에 지분 5% 인수
	모로코 관광 기금	- 카타르 포함 중동 4개국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150억 디르함 공동투자
	중국 농업은행	- U\$ 28억 투자
	인도네시아 펀드	- U\$ 10억 투자
2011	셸(Shell)	- Shell Centre U\$ 4.7억에 매입 - 주식 3% 매입
	Urusharta Cemerlang Sdn Bhd	- 49% 지분 인수 - Pavilion 쇼핑몰 보유업체
	토탈(Total)	- 주식 3% 매입

연도	투자 대상	비고
	파리 생제르맹(Paris Saint -Germain) FC	- US\$ 1 억 3 천만에 지분 70% 매입
2012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 U\$ 5 억 4300 만 추가 투자 - 지분 6.2% 보유
	그루파마(Groupama)	- 상젤리제거리의 복합쇼핑몰 U\$6 억 4500 만에 매입
	런던 더 샤드(Shard) 타워	- 총 공사비 U\$7 억 3 천만 중 95% 투자
	시멘스(Siemens)	- 지분 3.04% 보유
	LVMH(Louis Vuitton Moet Hennessy) 그룹	- U\$8 억 6 천만에 주식 1% 매입
	엑스트라타(Xstrata)	- 지분 3% → 10%로 확대
	발렌티노, 미소니	- U\$ 9 억에 매입
	Qatar Insurance Co	- 지분 12% → 투자 확대예정
2013	티파니(Tiffany & Co.)	- 지분 8.7% → 11.3%로 확대
	쁘렝땅(Printemps) 백화점	- Qatar Holding 이 €20 억 인수 예정

자료: 각종 언론보도 및 SWFI(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4. 한국기업 투자동향

가. 개요

2012년 기준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전체국가 189개국 중 카타르 투자규모는 92위(누계 액 기준)이다. 2009년 까지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다가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2010년 카타르에서 추진 중이던 크고 작은 경제개혁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카타르 투자열기가 주춤해 지는 듯 했으나 2011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2년까지 대부분의 투자는 건설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2월 한국-카타르 비즈니스 포럼개최를 계기로 양국 경제현황에 대한 정보 교환, IT분야 협력방안, 상호투자 확대 기회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타르가 월드컵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동 건설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우리기업이 매우 적합한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對 카타르 투자현황

(단위: U\$천)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156	70	75,444	193	57,074
2008	21	6	12,480	22	6,817
2009	29	8	21,804	35	22,993
2010	11	3	15,772	20	16,848
2011	22	7	7,471	25	1,861
2012	15	9	5,329	22	2,101
2013.1~9	18	10	3,305	26	2,92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개요

2012년 5월 기준으로 대우건설, 삼우건축, 쌍용건설, 동아지질, 명전사, LS Cable, 효성에바라, (주)효성, SK건설, 울트라건설, 현대중공업, GSE&C,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0여개사가 카타르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업종별 對 카타르 투자현황

(단위: U\$천)

연도	업종대분류	신고 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8	제조업	2	1	1,150	2	250
	건설업	15	3	10,638	17	5,832
	도매 및 소매업	3	2	692	3	7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0	0	0	0
	합계	21	6	12,480	22	6,818
2009	제조업	1	1	273	3	406
	건설업	11	3	15,400	16	16,600
	도매 및 소매업	3	2	378	3	37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4	2	5,753	13	5,609
	합계	29	8	21,804	35	22,993
2010	제조업	1	1	350	3	296
	건설업	10	2	15,422	17	16,552
	합계	11	3	15,772	20	16,848
2011	건설업	20	6	7,435	24	1,8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27	1	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0	9	0	0
	합계	22	7	7,471	25	1,861
2012	제조업	1	1	60	1	60
	건설업	2	1	125	4	215
	도매 및 소매업	1	1	371	1	3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155	3	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250	1	100
	합계	7	5	961	10	818
총계		90	29	58,488	116	49,33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3. 5월 기준 확인 정보)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LS전선, 카타르에서 광케이블 구축사업 (2011)²

LS전선이 카타르 도하 시내 광케이블 구축사업을 1800만 달러(약 210억원)에 수주했다. 또 250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카타르 광케이블 사업 유지보수도 맡았다. LS전선은 20일 "카타르에서 제 2유선통신사업자 면허를 획득한 보다폰카타르의 사업파트너로 공식 선정돼 첫 협력 프로젝트로 총 2050만달러 규모 광케이블 구축사업을 따냈다"고 밝혔다.

보다폰카타르는 영국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보다폰과 카타르가 함께 지분투자한 회사이다. 최근 보다폰카타르는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하시내와 알코르지역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무선통신망 타워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LS전선 측은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광통신망 구축과 SI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에 보다폰카타르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LS전선은 웨스트 베이와 인공섬인 펄 지역을 연결하는 메트로 링(Metro Ring) 구축 사업과 가입자 간 네트워크 제공 사업 등으로 2200만 달러어치 추가 수주도 보장받게 됐다.

김연수 LS전선 통신사업부장(전무)은 "이번 파트너사 선정과 사업 수주를 기반으로 중남미와 북미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 5월 방글라데시의 개방형 광네트워크 사업을 수주하는 등 아시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SI(시스템 통합) 사업에서도 힘을 쏟고 있다.

나. GS건설, 카타르 정제설비 준공 (2010)³

GS건설은 6일 카타르에서 카타르 국영석유공사(QP)가 7억달러(약 7900억원)에 발주한 '라판 콘덴세이트 정제설비' 준공식을 가졌다. 콘덴세이트는 가스 덩어리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할 때 지표에서 응축분리된 천연의 경질액상탄화수소를 말한다. 이 정제설비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80km 떨어진 라스 라판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14만6000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정제할 수 있다. GS건설은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53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GS건설은 이번 정제설비를 포함해 카타르에서 3건의 프로젝트를 완수해 지난 10여년간 카타르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칼리파 알 타니 카타르 국왕과 허명수

² 자료: 매일 경제신문(2011.1.20)

³ 자료: 전자신문 신문(2010.4.7)

GS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허명수 사장은 “이번 라판 콘텐세이트 정제설비 공사의 성공으로 카타르에서 GS건설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었다”며 “향후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 현대건설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 (2009)⁴

도하 북동쪽 80여km 지점에 자리잡은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에 들어서 10여분을 이동하면 ‘라스라판 C 발전·담수 복합발전소’ 공사 현장에서는 낯익은 한국 건설업체의 로고가 눈에 띈다.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현대건설이다.

라스라판 발전·담수 복합발전소 공사는 현대건설은 물론 국내 건설업계 전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총 사업규모가 38억달러인 이 공사의 현대건설 지분은 20억 6,791만달러(한화 약 2조673억원)로, 지금까지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따낸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카타르 내에서도 지금까지 완공됐거나 공사중인 발전담수 시설 중 가장 큰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곳에서는 2,728MW 규모의 전력과 하루 25만2,000톤의 담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발전규모는 카타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라스라판 발전·담수 복합발전소는 특히 현대건설이 설계는 물론 시공·시운전(EPC) 등을 독자 기술로 수행하고 있다. 이 현장 손준 공사부장은 “발전·전기 분야는 플랜트 시장에서도 소수의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펄 GTL-5’ 현장도 시공 중이다. GTL(Gas-To-Liquid)은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청정경유를 생산하는 플랜트 공사로, 현대건설은 지난 2006년 8월 일본의 토요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에 성공했다. 총 사업비 13억달러 중 현대건설의 공사금액은 8억4,552만달러로, 현재 85%에 가까운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GTL-5의 이원우 소장은 “이 현장은 최근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발주처의 현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GTL은 과거 버려지던 가스를 활용하는 첨단 기술이어서 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다른 공사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1979년 도하 쉐라톤 호텔을 시작으로 카타르 건설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포함해 도하 남쪽 메사이산업단지 내 QAFCO-5 비료공장 등 총 11건 26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⁴ 자료: 서울경제(2009.6.28), 무역관 자체조사

2012년 12월 11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카타르 비료회사 6단계 요소비료생산시설 (연산 1.3백만톤 규모)의 준공식이 열렸으며, 현대건설은 이 밖에도 카타르 내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라. W기업 실패사례

국내 중소건설사 W사는 2013.7월 현지에 기진출한 우리기업(N사)의 카타르 석산개발사업에 수십만 불을 투자하였다. 석산개발이 유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기업은 많은 빚으로 부도직전에 있었던 기업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N사에 채권을 갖고 있던 현지기업이 KOTRA를 접촉하여 해결을 요청한 바도 있고 N사 대표도 수감되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W사는 투자전에 현지 시장조사도 하였으나, KOTRA를 미접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결국 파악하지 못해 투자금을 날리게 되었다.

마. M건설기업 실패사례

한국 건설기업인 M사는 한국 대형 건설기업 하청으로 카타르에 진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카타르인을 스폰서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본사가 부도남에 따라 카타르 지사를 철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인 철수절차 진행 중 카타르인 스폰서가 추가 수수료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출국을 위해 필요한 exit permit(스폰서의 동의 필요)을 미발급하였다. M사 현지 대표는 노동법에 근거하여 맞고소를 하였고 약 6개월간의 공방 끝에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카타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카타르인의 지분율이 51%로 외국인의 최대 보유 가능 지분율 49%보다 높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존재한다.

스폰서의 이윤배분에 대한 명확한 계약부재와 불리한 계약조건도 잦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스폰서를 지정한 카타르 진출 기업은 스폰서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으나, M사는 계약 시 정액제가 아닌 이윤배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실제로 카타르 스폰서는 매출에 대한 이윤배분이 적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음에 따라 카타르 스폰서 지정 계약 시 이윤배분이 아닌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요

□ 제 1 조

문서에서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다음의 법률조항을 이행한다.

정부부처	상무무역부 (Ministry of business and trade)
장관	상무무역부 장관
외국인 투자자	카타르 국민이 아닌 자 중에 카타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직접투자 하는 자
투자된 외국자본	아래 사항을 포함한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투자된 외국인 자본 1. 은행 및 허가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현금 2. 법 규정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수입된 현물자산 3. 외국자본으로 투자된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이익 또는 수익 4. 무형의 권리- 등록된 사업 허가증, 상표, 특허
외국인 투자	이 법률 조항에 의해 허가된 경제 활동에 투자된 외국 자본

□ 제 2 조

1. 외국인 투자자는 한 명 이상의 카타르 현지인(회사자본의 51%이상 소유해야 함)과 합작회사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
2. 장관의 특별허가가 있을 시에는 현지인과의 합작 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100%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허가분야: 농업, 제조업, 의료, 교육, 관광, 에너지, 자연자원, 채광산업) 하지만 현재(2012년 기준)까지 합작면제를 받은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3.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업, 보험업, 무역대리점(commercial agent), 부동산업에 투자 할 수 없다.

□ 제 3 조

외국회사가 카타르 공공시설 또는 서비스 제고에 기여한다면 장관은 해당기관에 문의 후, 외국기업을 승인 할 수 있다.

□ 제 4 조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증명서를 발행 받는데 있어서, 이 법률조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인 법률을 따른다.

□ 제 5 조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 제 6 조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된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할 수 있다.

□ 제 7 조

1. 상무무역부는 제 2조에서 언급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상무무역부는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수입해 오는 기계·장비의 관세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3. 상무무역부는 지역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사업에 필요한 반가공품과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8 조

1. 법적 절차 및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산을 징수할 수 없다.
2. 만약 국가에 의해 투자자산이 징수됐을 경우에는, 징수된 시기의 실질 경제 가치를 기준으로 자산 가치와 상응하는 정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 제 9 조

외국인 투자자는 아래 사항에 관해 해외송금의 자유를 갖는다.

1. 투자수익금
2. 투자에 따른 판매 또는 사업청산 수익금
3. 투자분쟁 해결에 따른 수익금
4. 제 8조에 언급된 보상

송금된 자금은 교환 가능한 화폐로 전환되며 송금날짜에 맞는 환율을 적용한다.

□ 제 10 조

외국인 투자자는 다른 외국인, 카타르 시민, 양도를 위한 카타르인 파트너에게 송금의 자유를 갖는다. 투자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는 이전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책임과 의무를 인수 받는다.

□ 제 11 조

외국인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와 의 분쟁은 국제 또는 지역의 중재 패널을 통해서 해결한다.

□ 제 12 조

1. 특별계약으로 정부에서 천연자원 관련 사업을 위임한 개인이나 기업은, 특별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정부 또는 국영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외국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제 9조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3 조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타르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치안 및 안전에 관한 규정과 지침을 따르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 14 조

이법의 조항들은 기업이 받고 있는 면세나 특혜를 침해 할 수 없다.

□ 제 15 조

외국인 투자자가 이 법규에 명시된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시, 재무상무부에서 공지를 해야 하며 공지 후 3개월 이내로 바로잡아야 한다.

□ 제 16 조

외국인 투자자가 이 법규에 명시된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시, 50,000QR 이상 100,000QR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카타르인도 같은 액수의 벌금을 적용 받는다.

8. 투자방식

가. 개요

외국인 투자자는 상무무역부장관의 동의를 취득한 후 아래 명시한 분야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농업
- 산업
- 보건
- 교육
- 관광
- 천연자원 및 에너지개발
- 자문서비스
- 기술서비스
- IT서비스
- 문화서비스
- 스포츠서비스
- 오락서비스

상기 명시한 분야에서 투자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투자하고자 하는 상업활동에서 외국인투자자가 49%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제출

회사자본의 49% 이상 점유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홍보처 (IPD)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제출 후에는 외국인활동이 허가된 비즈니스부문에서 신청서제출자가 이행하고자 하는 활동에 관하여 논의 및 검토하고 제출자에게 신청서제출절차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이후에는 투자 홍보처에서 작성한 계획서 검토양식에 따라 기재한 계획서를 신청서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양식과 계획서 검토양식, 그 밖의 필요한 증서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작성과 함께 신청서 제출자는 활동별로 관할하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의 동의를 취득한 후 계획서는 투자홍보처로 발송하며, 투자홍보처는 필요 시 외국인투자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평가와 승인

비즈니스무역부와 승인기관의 평가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자격과 조건을 평가한다. 승인을 얻은 투자자는 회사등록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9. 투자 진출형태

카타르에 투자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하기와 같다.

- 합작법인
- 지사
- 대표사무소
- 산업회사 (제조업)
- 관광회사
- 보건 의료기관
- 교육기관
- 엔지니어링 용역회사
- 법률사무소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현지합작

유한책임회사는 대부분 카타르 기업(인)과 자본금을 공동 투자하여 설립하며, 외국기업의 자본금 투자는 49%까지만 허용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 만 QR 이다.

회사설립 절차 및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종 면허 취득 시 소요경비는 약 U\$5 천정도 소요된다. 한국 기업의 정관 및 제반 서류는 주한 카타르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① 상무무역부로부터 기업명 및 투자자 인가: 신청기업이 정관과 함께 3 개의 선택 가능한 기업명을 신청하면, 상무무역부는 인가 후 신청기업이 선정한 카타르 소재 은행에 인가 공한 발송
- ② 지정 은행에 20 만 QR 입금: 신청기업이 은행에 동 금액의 자본금을 입금하면 은행은 다시 상무무역부에 입금확인 서한 발송
- ③ 법무부에서 정관 서명: 양 투자자들(적법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들)은 법무부에서 정관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때 카타르인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시
- ④ 상무무역부로부터 사업자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취득
- ⑤ 카타르 상공회의소 회원 등록
- ⑥ 도하市 면허 취득: 상기 법인 설립 후, 신규 회사는 사무실을 임차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함. 이때 사무실 임차계약서, 전기, 수도 영수증, 사무실 및 간판 사진 등을 준비, 시 당국에 제출
- ⑦ 노동부 및 내무부 등록: 노동자 입국을 위한 컴퓨터 카드 취득
- ⑧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면허 취득(선택사항)

나. 지사

법 No. 13(2000 년 수정)에 의거, 외국 기업은 공공이익(Public benefit)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상무무역부 장관령에 따라 카타르에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 프로젝트에는 정부 및 준 정부 발주 공사 대부분이 포함된다(해당여부는 상무무역부에서 파악 가능). 또한, 공공이익을 수행하는 하청기업도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카타르 국적의 대리인(스폰서)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의 임무는 비자 및 인허가 취득 지원과 노동력 및 숙박시설 제공 등에 한정된다. 사무소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각종 면허 취득 시 소요경비는 약 U\$2 만 5 천정도 소요된다.

- ① 상무무역부의 투자 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지합작 제외요청서 제출
 - 정부기관과 (외국)회사의 계약서
 - 외국회사 증명서류
 - 카타르 내 지정대리인 위임장
- ② 상무무역부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 ③ 도시계획부로 상업허가 취득
- ④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등록번호 취득

다.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현지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단지, 사업개발, 마케팅, 본사와의 연락사무소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 대리인(스폰서)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세금도 없다. 추후 법인 설립 절차를 통해 합작 또는 단독투자 법인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 ① 상무무역부(투자진흥국)에 본사의 회사증명, 대표사무소에 대한 지정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설립 신청서 제출
- ② 상무무역부에 사업자등록(CR) 신청
- ③ 도시계획부로부터 영업허가 취득
- ④ 내무부(이민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번호 취득
- ⑤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면허 취득(선택사항)

라. 산업회사(Industrial Company) 제조업

- ① 에너지 산업부 산업개발국(Department of Industrial Development)에 타당성 조사와 함께 산업면허 신청서 제출
- ② 환경/자연보존최고위원회의 허가 취득(obtain a clearance)
- ③ 상무무역부의 투자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에 현지합작 제외요청서 제출
- ④ 상무무역부에 설립계약서(establishment contract) 작성 제출
- ⑤ 상무무역부에 사업자등록 신청
- ⑥ 도시계획부로부터 상업허가 취득
- ⑦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등록번호 취득

마. 관광회사

- ① 상무무역부의 투자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현지합작 제외요청서 제출
- ② 카타르관광전시청의 면허국(licensing department)으로부터 허가취득
- ③ 상무무역부에 상업등록 신청
- ④ 도시계획부로부터 상업허가 취득
- ⑤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등록번호 취득

바. 보건 의료기관

- ① 국가보건청의 의료 허가국(Department of Medical Licensing)에 면허신청
- ② 상무무역부의 투자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에 현지합작 제외요청서 제출
- ③ 상무무역부에 설립계약서(establishment contract) 작성 제출
- ④ 상무무역부에 상업등록 신청
- ⑤ 도시계획부로부터 상업허가 취득
- ⑥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등록번호 취득

사. 교육기관

- ①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민간교육국(Department of Private Education)의 승인을 취득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교육위원회의 상급교육 기관국(Higher Education Institute Department)에서 승인을 취득
- ② 상무무역부의 투자 진흥국(Investment Promotion Department)에 현지합작 제외요청서 제출
- ③ 상무무역부에 설립계약서(establishment contract) 작성 제출
- ④ 상무무역부에 상업등록 신청
- ⑤ 도시계획부로부터 상업허가 취득
- ⑥ 내무부 이민국으로부터 사업등록번호 취득

아. 엔지니어링 용역회사

엔지니어링승인위원회에 엔지니어링회사 승인 신청

자. 법률사무소

법무부 변호사승인위원회(Lawyer Acceptance Committee)에 법률사무소 승인 신청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가. 개요

카타르에 진출한 지사(branch, project office)의 경우 수주한 프로젝트의 공사기간이 완료되면 카타르에서 철수해야 한다. 철수 시 무관세로 반입한 장비 및 자재를 반출해야 하며, 반출이 완료되지 않을 시 사전에 지불한 관세 보증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프로젝트의 수주 시 지사의 현지 법적 위치 유지 및 장비 및 자재의 반출을 연기할 수 있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개요

월드뱅크가 조사한 2013년 기업경영 여건에서 카타르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2위(18개국 중), 전체 순위 27위(183개국 중)를 차지했다. 특히 조세제도, 전력공급, 청산처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카타르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업여건 부문에서는 116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의 '신용도' 부문이 크게 올라 이 부문에선 98위를 차지했다.

최근 주변 아랍국가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과는 무관하게 카타르는 안정적인 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동지역에선 최고의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하였다.

2011년 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16%에 이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로 자리잡았다. 경제 전반의 다각화를 꾀했지만, GDP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석유와 가스부문으로 2011년 GDP의 58.1%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2년 에는 실질 GDP의 성장률이 6.0%에 그치면서 세계시장의 에너지 수요 변동과 가격 변동에 취약한 면을 보여줬다. 2006년~2008년은 10%가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2009년~2010년에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의 여파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2012년 현재,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하면서 4.0%대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

기업 경영여건 세부사항

목차	2013년 순위	2012년 순위	순위변동
창업여건	109	116	▲7
건설허가	18	24	▲6
전력공급	25	18	▽7
재산등록	40	37	▽3
신용획득	104	98	▽6
투자자 보호정책	100	97	▽3
조세제도	2	2	-
해외무역	58	57	▽1
계약이행	95	95	-
청산처리	36	37	▲1

자료: Doing Business 2013(2013. 6월 기준 확인 정보)

카타르는 금융, 건설, 천연자원, 관광, 정보통신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투자환경 여건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무역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개요

카타르 대부분의 산업은 외국인의 단독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기에 카타르 현지 파트너와 함께 합작투자를 시행하거나 스폰서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스폰서 및 현지파트너와 외국인 회사간의 분쟁은 수시로 발생한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영국 법률법인에 따르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변호의 50%이상이 이러한 문제라고 한다. 이에 따라 스폰서 및 현지파트너 물색 시 신중한 선택과 충분한 정보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면계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M사는 현지법인 철수 시 스폰서와의 분쟁으로 인해 M사 현지 대표가 1년 이상을 출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남아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계약 시 스폰서에게 제공하는 스폰서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익에 대한 배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스폰서는 이익배분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M사는 이에 대해 노동법에 근거하여 스폰서를 제소하였고 결국 스폰서와의 합의하에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개요

카타르는 작은 나라지만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투자 중이다. 2011년 카타르는 1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기회는 더욱 확대되었다.

월급에서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제도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도하로 들어오고 있다. 도하는 중동에서 두바이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 되었으며, 2011년 민간기업의 51%가 고용을 확장했다.

경제 활동 인구 수(2011)

국적	성별	취업자	구직 중 (비-경력자)	구직 중 (경력자)	총 계
Qatari	남	49,228	659	206	50,093
	여	25,145	2,071	101	27,317
	총	74,373	2,730	307	77,410
Non-Qatari	남	1,068,083	835	246	1,069,164
	여	127,789	2,806	276	130,871
	총	1,195,872	3,641	522	1,200,035
총 계	남	1,117,311	1,494	452	1,119,257
	여	152,934	4,877	377	158,188
	총	1,270,245	6,371	829	1,277,445

자료: QSA(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카타르 전체인구 180만 명중에 카타르인은 30만 명 내외에 불과하며, 민간 기업 전체 노동력의 1%정도만이 카타르 인이다. 노동법에 따르면, 카타르 자국민들은 고용기회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비-경제 활동 인구 수(2011)

국적	성별	주부	학생	장애	은퇴	기타	총 계
Qatari	남	0	16,937	3,046	6,163	2,529	28,675
	여	27,085	19,923	1,319	2,698	1,832	52,857
	총	27,085	36,860	4,365	8,861	4,361	81,532
Non-Qatari	남	0	18,551	1,101	0	1,680	21,332
	여	68,488	20,257	1,370	0	2,331	92,446
	총	68,488	38,808	2,471	0	4,011	113,778

국적	성별	주부	학생	장애	은퇴	기타	총 계
총 계	남	0	35,488	4,147	6,163	4,209	50,007
	여	95,573	40,180	2,689	2,698	4,163	145,303
	총	95,573	75,668	6,836	8,861	8,372	195,310

자료: QSA(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나. 노동법

카타르 노동법(Law No.14)은 2004년 개정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관련 분야 노동법은 금융권 자체규정을 따르며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 표준 고용계약서

근로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한 부씩 가지고 마지막 한 부는 노동부에 제출한다(수수료 100리얄).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노동부 취업국 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취업국에서 발행한 고용계약서와 다른 양식의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취업비자(Work visa)

모든 잠재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그들의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들이 취업비자(유효기간: 1년~5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근로자는 신체검사와 지문인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비자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카타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단, 취업을 목적으로 받은 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 권한이 없다.

□ 자국민 우선권

카타르인은 외국인에 앞서 취업우선권을 가지며, 외국인은 필요할 시에만 채용할 수 있다.

□ 최저임금

카타르노동법에는 최소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근무시간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일주일 최대 48시간이다. 라마단(금식월) 기간에는 하루 최대 6시간이며 일주일 근무 시간은 36시간으로 단축된다. 통근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에는 기도, 식사, 휴식 시간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하루에 1시간~3시간 사이여야 한다. 근로자는 휴식 없이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일주일에 24시간이상의 휴일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금요일이 휴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시프트(교대)근무는 예외이다. 정부기관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라마단 기간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조정된다.

□ 휴가/병가

근로자는 1년에 한번씩 연차휴가를 갈수 있다. 5년 이하의 근로자는 1년에 3주이상의 연차휴가를 갈 수 없으며, 5년 이상의 근로자는 4주까지 연차휴가가 허용된다. 무슬림 근로자는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20일의 특별휴가가 있다. (20일은 급여에서 공제됨)

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번째 이드 [Eid al-Fitr (3 일 연휴 - 음력 라마단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 - 두번째 이드 [Eid al-Adha(3 일 연휴 - 첫 번째 이드 35 일 뒤)] - 카타르 독립기념일(12 월 18 일) - - 고용주의 재량에 따른 3 일 휴가
------------	---

병가는 3달 이후 사용 할 수 있으며, 병가를 떠나기 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2주 이하의 병가는 급여에서 공제 되지 않지만, 2주~4주의 병가는 봉급에서 반액이 공제된다. 4주 이상의 병가는 급여가 없다. 근로자가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병가로 3달 동안 근무를 못할 시, 고용계약은 파기된다.

□ 노동조합

카타르 근로자가 100인 이상 가입해야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카타르 근로자는 노조 위원으로만 활동이 가능하다. 카타르 법에서 집단해고나 파업에 대해 특정조항은 없다.

□ 건강&안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위험을 업무시작 시 공지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헬스카드(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음)”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고용주는 근무지에서 화재, 기계 오작동, 우발적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공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고용주는 적절한 조명, 깨끗한 식수와 배수 시스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며 근무환경의 위생과 환기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 5명~25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급상자, 약, 의료장비를 갖춰야 하며 100명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전일 근무 남자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직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진료소(clinic)를 설치하고 최소 각각 한 명의 의사와 남자 간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 보상금

보상금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노동법에서는 장애-사망 보상금만을 제공한다.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당했다면, 치료비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치료 기간 중 급여 또는 6달치의 급여 중 더 나은 쪽을 선택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료 기간이 6달 이상(완치까지 급여의 절반 수령) 또는 장애-사망 판정을 받았다면 기간이 더 짧은 쪽의 보상을 받는다.

□ 연금

연금법(Law No.24)은 2002년에 개정되었으나, 카타르 자국민에게만 해당된다.

□ 퇴직금

노동법에 의거, 해고되지 않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고용주는 직원과 관련된 계약상의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줘야한다. 퇴직금액은 매년 3주치 이상의 봉급으로 책정되어야만 한다. 마지막 봉급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 고용 해지

고용주는 직원이 아래 사항을 따르지 않을 시 아무런 통보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위조 신분증, 국적, 자격증, 서류를 제출했을 때
- 회사 기밀을 누설했을 때
-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약에 취했을 때
-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사표(고용계약 파기)를 작성 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노동법의 조항들을 어겼을 때
- 고용주가 부도덕한 행동 또는 폭력을 근로자나 근로자 가족에게 행했을 때
- 고용주가 고용 계약 시 법 조항을 따르지 않고 조항을 위조 했을 때
- 업무환경에 위험요소가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알고도 간과하고 있을 때

또한 고용계약서에 기간을 명시 한다면, 고용 해지의 이유 없이도 고용계약이 해지 된다.

고용 해지 공지기간은 근로 기간에 따라 상이한데, 1년 이하는 1주 전에 공지해야 하고, 1년~5년 근로자는 2주 전, 5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한 달 전에 공지해야 한다.

□ 스폰서십

카타르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스폰서십을 필요로 하며 스폰서의 서명 동의 하에 직장을 옮길 수 있다. Law No.4(2009년 개정)에 따르면 기존 스폰서와 향후 스폰서가 동의하고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당국이 스폰서십을 변경할 수 있다. 기존 고용주의 허가서가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 카타르를 떠나있어야 한다.

노동법에 따르면 스폰서가 근로자의 비자기한 만료 이후에 계속해서 여권 및 여행관련 서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5천 리얄의 벌금이 부과된다.

□ 거주 노동허가(Residence Work Permit)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은 거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아야 하며, 카타르 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스폰서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 노동허가는 카타르 내에서 노동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부여되며 최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1천 리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6주가 소요되며, 스폰서가 제반 서류작업 및 수수료 납부를 부담한다. 거주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스폰서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거주노동허가 및 가족거주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검진을 마쳐야 한다. 의료검진은 혈액형 증서→ 혈액검사 및 가슴 X-ray 촬영→ 전자지문 날인의 순서로 진행된다.

카타르에서 거주노동허가 또는 가족거주허가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의 거주자는 이민국에서 ID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ID 카드에는 이름, 국적, 생년월일, 혈액형, 서명, ID 번호, 스폰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여성 노동등록

남편의 스폰서십으로 카타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후 일할 수 있으며, 매년 500리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여성을 고용하기 전에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가족 거주허가

카타르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은 개별 가족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 500리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허가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월 4,500리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스폰서가 될 수 있으며, 아들은 25세 이하, 딸은 미혼인 경우에 스폰서 할 수 있다. 개정된 스폰서십 법에 따라 직업이 있는 여성이 남편과 자녀를 스폰서 할 수 있다.

□ 가사도우미 거주허가

가사도우미를 데려오려는 외국인인 우선 스폰서의 서명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정액 이상의 봉급을 받고 카타르 내에 거주하며 직업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민국에 요청서와 초기 승인비용 1,500리얄을 제출하고, 매년 300리얄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가사도우미를 구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사도우미의 비자를 얻어 노동부에 등록하고, 대사관에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공식인력공급기관을 통해 입국과정을 거쳐야 한다. 계약은 2개월의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2년(갱신가능)이며, 계약 종료 후 가사도우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책임진다.

□ 거주허가 갱신

근로자의 노동허가는 고용주 또는 스폰서가 갱신해야 하며 가족의 거주허가는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가족거주허가는 여권, ID, 사진1장과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갱신 발급된다. 수수료는 배우자와 18세 이상 자녀는 500리얄, 18세 이하 자녀는 300리얄이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동의서한 및 월급 증명서, 은행의 월급명세서, 결혼 및 출생증명, 학위증명, 노동계약서,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이다.

□ 출국허가

스폰서십 아래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출국을 위해서는 스폰서에게 출국비자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은 출국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비자만료 이후 체류

비자기간이 만료된 이후 체류하는 경우 여행자는 하루에 200리얄, 사업가는 500리얄, 가족거주비자 소유자는 10리얄의 벌금이 부과된다.

15. 조세제도

가. 카타르 세금제도

카타르는 2009년 포브스가 발표한 국가별 세금개혁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조세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석유와 가스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을 10%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원천징수세와 이전가격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 개인소득세

카타르에는 개인소득세가 없다.

□ 법인세

민간 기업을 설립했을 경우 과세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적용 받는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카타르내의 자원을 이용해 얻은 소득으로 카타르 인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업이나 어업은 세금이 면제되며 석유, 가스 사업과 관련된 분야는 최소35%의 세금이 적용된다. 상장기업은 카타르 사회공헌기금(문화, 체육, 자선분야)으로 특별펀드에 수익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납세자는 공공수익 세금부(public revenue&taxes department)에 기업 활동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회계기간이 끝나고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기간이 더 필요한 기업은 조세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조세당국의 판단 하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는 해외지사와 법인에도 적용된다.

□ 카타르 주주와 세금계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카타르 민간기업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다. 걸프협력(GCC)국적 외국인 사업자가 100% 회사지분을 가지고 있을 시 법인세는 면제된다. 카타르인과 비-걸프협력(GCC)국적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카타르주주 또는 걸프협력(GCC)국적 주주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 관한 법인 소득세는 없다. '배당액'은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이는 회계연도 말에 세전 수익을 포함해서 모두 계산된다.

카타르인 주주와 비-걸프협력(GCC) 국적 주주의 회사에서 카타르 주주가 40%의 수익배분을 가진다면, 세전 수익의60%는 법인세의 10%에 대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 배분되거나 유보되는 수익에 대해 외국인 주주가 세금을 내는 개념으로 자국민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다. 만약 외국인 주주가 회계연도 기간 중 지분율을 바꾼다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카타르인 주주와 비-걸프협력(GCC)국적 주주의 합작회사에서 세금배분을 하는 건 간단치 않다. 특히 전년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다루는 부분은, 사업시작 시 파트너 간에 명확하게 규칙을 정해야 한다.

□ 카타르 거주비자가 없이 사업할 경우

카타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하며 일반적인 형태는 합작법인이나 지사의 형태이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 카타르 거주비자가 없이 외국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이 허가된다. 이때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금액은 원천 징수세를 적용한다(사업자 등록증, 세금카드 만들 필요 없음). 사용료 (지적재산권, 장비, 정보 사용료포함) 개념으로 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관리, 기술, 컨설팅 과 같은 모든 서비스 비용으로 7%가 부과된다.

□ 자본수익 세금

카타르 기업과 관련된 자본수익금은 다른 수익과 합산해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민간 기업에서 카타르 비거주자 주식의 판매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카타르 거래소에 상장 되어있는 회사 주식의 판매는 세금적용을 받지 않는다.

□ 이전가격세

자회사간 거래는 이전 가격세를 적용 받는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여겨질 시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통해서 과세를 부과한다.

경제적 자료나 지표가 없는 경우, 관세청의 승인에 의해서 OECD가 적용하는 다른 방법의 이전 가격세를 적용 할 수도 있다.

□ 간접세

걸프협력(GCC)이외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는 관세가 적용된다. 기준세율은 총수입품 가격의 5%(배송비, 보험비 포함)이며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가 카타르 대사관에서 인증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철, 시멘트, 약기, 담배와 같은 특정품목은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GCC국가들은 싱가포르, 유럽 자유무역협정국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줄어든 조세수입을 대체할 방법으로 부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까지 부가세를 적용하는 GCC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이후부터 3%~5%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GCC국가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6. 금융제도

가. 개요

카타르는 달러당 3.64리얄의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충분한 대외유동성 확보로 미루어 볼 때, 외환시장의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중앙은행(QCB)의 지속적인 고정 환율 정책 시행과 함께 일반은행들 또한 보통 QCB에 의해 결정된 환율을 기준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몇몇 일반은행들은 공공 거래 시 QCB고정 금액의 0.24%를 추가로 부가하기도 한다.

파산이나 담보를 규율 하는 특수법규가 없으므로 파산이나 담보에 관해서 민사법이 준거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러한 법규의 미비가 내외국인의 투자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카타르 현지 주요 금융기관

구분	Tel (+974)	홈페이지
Qatar Central Bank (QCB): 금융 감독	4445-6456	http://www.qcb.gov.qa/
Qatar National Bank (QNB)	4462-1929	http://www.qatarbank.com
Qatar Islamic Bank (QIB)	4444-8444	http://www.qib.com.qa/
Qatar International Islamic Bank (QIIB)	4488-0000	http://www.qiib.com.qa/
Commercial Bank of Qatar (CBQ)	4449-0000	http://www.cbq.com.qa/
International Bank of Qatar (IBQ)	4447-8000	http://www.ibq.com.qa/
Al Ahli Bank of Qatar	4420-5222	http://www.ahlibank.com.qa
Doha Bank Limited	4445-6000	http://www.dohabank.com.qa/
Mashreq Bank	4408-3333	http://www.mashreqbank.com/
Arab Bank	4438-7878	http://www.arabbank.com.qa/
HSBC (ex-British Bank)	4438-3456	http://www.hsbc.com.qa/
BNP Paribas	4453-7115	http://me.bnpparibas.com/
Standard Chartered Bank	4424-8601	http://www.standardchartered.com/qa/en/
Bank Saderat Iran	4441-4646	http://www.bsi.com.qa/

주: 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17.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개요

외환규제가 없으며 카타르에서 발생한 수익 및 모든 소득의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매년 발생된 이익금의 10%씩을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자금으로 영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금 부족 시 카타르 또는 GCC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이익금의 송금이나 투자와 관련된 자금의 이동상의 지체나 제한이 없다. 또한 이익금, 부채 지불, 자본, 자본 이익금 등의 송금에 제한도 없다. 그러나 중계 및 대리은행을 통한 거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 내 지점 미비의 영향이다.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비용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한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가. 개요

카타르 통계청(QSA)은 2012년 8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를 발표했다. 2012년 8월의 물가지수는 111.4(2007년 100기준)로,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2012년 8월 주요 품목별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식음료, 담배”분야(0.1%하락)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0.1%-0.8%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가활동, 문화생활”분야가 0.8% 증가폭으로 주요 품목 증가율 중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잡화, 의류, 신발, 수송, 운송”분야 모두 각각 0.3% 증가하였다. “부동산, 가구, 인테리어”분야는 각각 0.1% 증가하였다. “식음료, 담배” 분야의 하락세는 라마단 기간(7월 중순-8월 중순)의 가격조정의 영향이 컸다.

전년도 대비 2012년 8월의 CPI는 2.3%증가했고, 분야별로는 “부동산, 에너지”분야가 3.3%하락한 것을 제외,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가구, 인테리어, 여가활동, 문화 생활”분야가 7%정도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카타르 품목별 물가지수

구분	비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종합지수	100.0	87.9	100	115.2	109.5	106.9	108.8
식음료&담배	13.2	93.1	100	119.9	121.4	123.9	129.4
의류&신발	5.8	88.8	100	111.8	106.8	105.2	113.3
부동산	32.2	77.1	100	119.7	105.3	91.9	87.4
가구, 인테리어	8.2	94.9	100	107.7	105.6	109.9	113.1
의료, 건강	2.0	98.8	100	104.2	106.0	109.7	112.6
수송, 운송	20.5	98.1	100	109.3	104.6	107.3	114.1
여가활동, 문화생활	10.9	95.3	100	109.9	108.6	111.6	113.9
잡화	7.2	95.8	100	112.4	120.6	126.1	133.4

자료: QSA(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2011년 평균1.9%인플레이(물가상승)가 발생했는데, 이는 2년 연속 디플레이(물가하락) 이후 첫 상승이었다. 수입 가격 폭등과 국내 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으로, 2011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2.0%에 그쳤지만, 코어(core)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거하고 난 뒤 산출하는 물가지수)은 4.0%를 기록했다.

끊임없는 전세 가격의 하락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주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급여수준의 상승으로 평균 5%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계속되는 집값의 하락은 인플레이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급여수준의 상승과 민간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 하락을 막는 상쇄효과를 낼 것이다. 2012년 5월 기준 인플레이는 전년도 보다 낮은 1.1%를 유지하였지만, 전세비용을 뺀 소비자 물가지수는 3.9% 상승했다.

생산자 물가(PPI) 증감률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종합지수	33.9	-32.9	19.2	33.9
채광	40.6	-35.0	18.8	38.4
전기, 수도	5.9	0.2	3.8	-0.6
제조	13.2	-26.6	22.0	20.2

자료: QSA(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유가와 가스가격의 하락으로 2009년의 PPI지수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1년, 유가회복에 따라 PPI는 33.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PPI의 77%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광산업 또한 2010년 18.8%에서 이듬해 38.4%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나. 카타르 생활물가 수준

구분	항목	가격(QR)
식품류	쌀(10kg, sunwhite)	68
	계란(12개)	10
	소갈비(1kg)	40
	우유(1L)	6
	식용유(1L)	10
	생수(1.5L)	1.2
	담배(말보로)	9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11
의료비	의료보험(HEALTH CARD, 1년)	100
	사설병원(의료보험X, ID카드 미소지, 내과초진)	100-150
	국립병원(의료보험X, ID카드 소지, 내과초진)	무료
차량관련	중형 승용차(현대 소나타 2013년형)	78,000
	휘발유(1L)	0.85/1(두가지 종류)
	자동차 등록비	300
	자동차보험료	차 값의 4%/year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City Center)	2
	시내버스 기본요금	2
	택시 기본요금	4
통신비	휴대전화 월 사용료	카드 충전식 (50단위로 충전가능)
	인터넷 월 사용료(1개월, 1년 계약)	1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1BED+1LIVING ROOM)	5,000-8,000
교육	공립 초/중/고 수업료	무료
	공립 대학(Qatar Uni.)	QR 1,000/credit hour
	사립 대학(노스웨스턴大 분교)	QR 157,903/year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리츠칼튼)	1,125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 (라 빌라)	300
임금/노무	대졸 초임(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월급여)	9,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8H(라마단; 40H)
	연간 국경일수	7
	주5일 근무 여부	정부부처: 주5일 민간기업: 주6일
기타	드라이크리닝(코트1벌 기준)	50

자료: 무역관 자체조사(2013. 12월 기준 확인 정보)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취업유망분야

□ 항공기 승무원

카타르 국영항공사인 카타르항공에는 이미 700여명의 한국인 승무원이 근무 중이며, 향후 카타르항공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

□ 항공기 정비사

카타르항공은 증대형기 위주로 약 230대의 항공기를 주문, 인계를 기다리는 바, 향후 항공기 정비사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항공은 이와 같은 전망에 발맞춰 기존에 채용이 이루어진 바 없는 한국인 항공기 정비사 채용 가능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금번 개최된 '2013 글로벌취업창업대전'에 참가하였다.

□ 호텔 종사업

카타르 호텔 종업원은 다수가 필리핀인과 인도인, 스리랑카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해당 국가 출신 노동자의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손님과 자주 접하는 직책은 대부분 필리핀 등 아시아계 직원이 담당하는데, 서비스업에서의 아시아계 선호도가 반영된 것이다. 간헐적으로 호텔에서 한국 요리사 구인광고도 보인다.

□ 선박 기술자

카타르는 대다수의 LNG선, 유조선 등을 한국으로부터 구입한다. 때문에 카타르에 유일한 수리조선소인 N-KOM도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기술자들을 간접고용 중 이다. 또한, 우리무역관이 N-KOM 방문 시 한국인 해외 취업서비스에 대해 설명, 이에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건설관련 영업직

한국 건설업체들의 카타르 활약상에 힘입어 카타르 건설자재 공급업체가 한국인 고용을 문의해온 바 있다. 한국 건설기업들이 카타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건설자재 판매뿐 아니라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 고용가능 여부를 문의해 오고 있다.

□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

주재국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이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어 동 분야의 인력채용 규모가 크고 급여수준도 최상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카타르 자체 인력 부족에 따라 이 분야도 외국인 엔지니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가스 개발 또는 석유화학 관련 분야의 우리나라 엔지니어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비즈니스 에티켓

- 카타르 남성 바이어가 자신의 부인에 대해 먼저 언급을 하더라도 부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한다. 부인의 이름을 묻지 말아야 하며, 남편과 부인의 사이는 어떠한지 묻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 다만,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혹은 자녀들이 잘 지내는지 물어보는 것’은 무방하다.
- 당신과 반대되는 성(SEX)을 가진 사람을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말아야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문을 열어두어야 하며, 당신은 열어둔 문을 통해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남성은 개인적인 미팅 장소에서 여성이 그들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 친척 등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바이어를 도서관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만나도록 하여라.
- 남성은 여성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슬람 여성이 먼저 청한 악수에 응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가능하면 여성과의 모든 신체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여성은 이슬람 남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은 금기된다. 만약, 여성인 당신이 이슬람 남성에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대한 성적 관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자동차 구입

카타르에는 국산차 브랜드를 포함해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도하 곳곳에 자동차 쇼룸이 있으며 같은 브랜드의 자동차도 딜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일본차(도요타, 닛산)의 인기가 높아 구매 후 재판매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운전을 험하게 하는 지역특성상 큰 차종(suv)의 인기가 높다.

자동차 대출은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며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지 이자율은 2%~3%(한국이자율 기준 약 5%)사이이며, 차량구입시 가격의 20% 지불 후 나머지 80%에 대해 대출을 받는 형태이다.

자동차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사고 후 48시간 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거의 사고처리가 잘 된다. 자동차 사고 시 반드시 경찰 조서가 필요하며, 사고차량은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차량가격의 4% 수준이다.

차량등록은 교통국에서 가능하며, 약 100QR의 수수료(카드결제만 가능)가 필요하다. 차량 연식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검사증 없이 보험증과 기존 차량등록증(갱신의 경우)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차량검사증이 필요하다.

주유비는 프리미엄 0.85QR/1L, 슈퍼 1QR/1L 이다.

□ 유의사항

한국과 동일하게 차량 핸들은 왼쪽이고, 차량은 우측 통행이다. 대중교통이 없어 가족용의 별도 차량이 있을 시 자녀 학교 통학 및 부인들의 활동에 편리하다.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벌금이 상당히 높고, 평소 신호위반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하시 내 수개 처에 카메라 설치)

Roundabout(로타리) 이용 시 먼저 진입하여 회전중인 차량이 우선(왼쪽 차량 우선)이며, 사고 시 진입차량 과실로 간주한다. 거리 별 제한 속도가 다르나, 시내는 80km 또는 100km이며, 고속도로는 120km이다. 신호위반 시 QR6,000, 과속은 QR500이다. 또한 안전벨트는 주행 시 반드시 착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주차 위반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지 않으나, 점차 인구 및 차량 증가로 도심 내 공공장소에는 규제를 엄격히 하는 곳도 있다(특히 병원 등 공공건물).

나.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시력검사 및 색약검사 후 카타르 운전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 발급절차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받아야 한다. (수수료 QR16) 카타르 교통국(Khalifa Traffic and Patrols Department) 에서 당일 면허를 발급해주며, 5년간 유효하다. 입구 앞 카운터에서 접수 후 시력검사를 받고, 운전면허를 신청한다. 번호표를 수령 후 진행 및 수수료를 지급(QR250, 카드결제만 가능)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번역본 (별첨1 서식 참고)
- 한국 운전면허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본
- 여권에 부착된 RP(장기체류비자) 사본
- 여권 사진 두 장
- 카타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스폰서 레터(필수는 아니지만 첨부 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

카타르 교통국 방문 시 아랍어가 가능한 직원 동행을 추천(절차 진행의 신속성)하며, 교통국에서 도움을 준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차후 약 QR50 정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용 시 신속하게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주재국 도착 후 6개월간 주재국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국제면허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시)하나, 일선 경찰 및 보험회사, 렌트카 회사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주재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보다 좋다.

단, 카타르 RP(장기체류비자)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카타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다. 쇼핑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제도가 없어 거의 모든 상점이 면세점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지에 가장 많은 까르프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서로 각각 상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가격 차이는 꽤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비교 구매가 필요하다.

별첨 1. 운전면허 번역 서식

Driver's License	
Name	KILDONG HONG
License No.	CHUNGNAM 00-000000-00
Date of Issued	28. JULY. 2011
Date of Expiry	21. MAR. 2018
Personal No.	000000 - 0000000
Issued by	Commissioner of DAEJEON Police Agency
Type of car driving	Light Vehicle

<p>운전면허증 사본 앞 면</p>	<p>운전면허증 사본 뒷 면</p>
-------------------------	-------------------------

5. 생활여건

위 이주정착가이드에 명시된 생활여건 이외에 카타르 생활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쇼핑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제도가 없어 거의 모든 상점이 면세점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현지에 가장 많은 까르프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서로 각각 상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가격 차이는 꽤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비교 구매가 필요하다.

□ 여가

카타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카타르인들은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근처 두바이등의 해외로 여가를 즐기러 떠나는 경향을 보인다. 카타르의 한정적인 관광자원에 대해 카타르 정부가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여가시설을 갖추고 있다.

□ 치안

카타르의 치안은 상당히 안전한 편에 속한다. 범죄율이 극히 낮으며, 범법행위에 대한 죄 또한 무겁다. 그러나 현지에 가족이 없는 남성 외국인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범죄 및 강도행위가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혼자 밤에 인적이 드문곳이나 택시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6. 취항정보

한국과 카타르를 오가는 직항은 카타르항공이 유일하며, 취항정보는 아래와 같다.

□ 취항스케줄

- 한국(인천) → 카타르(도하)
 - 출발: 00:45 (한국 시간)
 - 도착: 04:20 (카타르 시간)

- 카타르(도하) → 한국(인천)
 - 출발: 1:40 (카타르 시간)
 - 도착: 16:25 (한국 시간)

※ 한국 - 카타르간 항공편은 매일 같은시간에 운행한다.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카타르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카타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33개국(대부분 선진국) 외국인에 대해 상용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 공항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특례제도를 2001.12.27부터 시행 중.

(1) 공항비자(on arrival visa)

- 공항비자를 받으려면 왕복티켓을 소지하여야 함.
 - 체류기간: 1개월(연장가능)
 - 비자수수료: QR 100(약 US\$ 28)
 - [비자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ATM 또는 e-card)로만 지불 가능]
 - 비자 연장 정보(visitor visa)
 - 기관 명칭: Airport Immigration Office
 - 오릭스 로타나 호텔(oryx rotana hotel)에서 도보 십 분 거리
 - 구글 지도 검색어: Airport Immigration Office, Doha, Ad Dawhah, Qatar
 - 연락처 974-0462-1426
 - Airport Passport section 에서 번호표를 받아 대기 한 후, 신용카드 QR100 을 지불하면 30 일 추가 연장 가능.
- ※ 카타르는 QR100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30일간 허용하는 도착비자를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지 도착 후 도하 이민국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다. 한번 입국 시 2달을 도하에서 지낼 수 있고, 비자 만기일 전에 인근국가 (UAE, 오만 등)를 방문한 뒤, 다시 도하 공항에서 비자를 받는다.

(2) 가족비자 발급관련 서류

- 가족등록증명서, 혼인등록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3) 출입국 심사 및 통관

- 출입국 심사는 한국을 포함 선진국 여행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편이 아님. 출입국 카드 기재 제도 없음. 출국 시 공항이용료 없음.
- 통관심사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나, 회교국인 카타르는 회교 가르침에 위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으로 규정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
- 술, 돼지고기는 반입 금지되며, 비디오테이프는 통과가 제한됨.
- 그 외 언론인들의 통신 장비 반입도 사전허가를 받은 후 반입하도록 하고 있음.

8. 관광/호텔/식당/통역

□ 관광

- 코니쉬(Corniche): 13.5 km 해안 도로이며, 주요 관광코스임.
- 전통시장(Souq Waqif): 카타르의 전통시장. 아랍 전통상품 등을 구경할 수 있음.
- 펄 카타르(Pearl Qatar): 카타르의 인공 섬.
- 카타라(Katara): 문화마을. 다양한 공연과 고급 레스토랑, 해안가를 즐길 수 있음.
- 아쿠아 파크(aqua park): Salwa Road 에 위치한 수영장.
- Fanar (Islamic Cultural Center): 외국인들에게 이슬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

예술, 전시

전시장 이름	내용	관람일	가능관람시간	전화번호 & 홈페이지
Sheikh Faisal bin Qassim AlThani Museum(사립미술관)	수집품전시	일, 금 제외 평일	AM9-PM6	4486-1444 sheikhfaisalmuseum.com
Al Markjiya Gallery	전통시장	토-목 금	AM 10-12 PM 04-10 PM 04-10	4442-8007 almarkhiyagallery.com
Gallery One	펄카타르	토-목 금	AM10-PM10 PM 02-10	4495-3876 g-1.com
Qatar Museums Authority(QMA)	카타라	토-목 금	AM11-PM09 PM 02-09	5508-5553 qma.com.qa
Mathaf (Arab Museum of Modern Art)	에듀케이션 시티	월-화 금	AM11-PM06 PM03-09	4402-8855 mathaf.org.qa

- 성채/요새(Forts)
 - Al Ghuwair Castle 19 세기 지어짐. 130cm 두께의 두꺼운 진흙 벽을 자랑한다.
 - Al Huwaila Fort 동해안에 위치. Al Zubara 와 Doha 가 발전되기 전 주 도시였다.
 - Al Jumail Ruins Ministry of Artm culture and Heritage 보호 유적지
 - Al Koot Fort 20 세기 초 감옥으로 쓰임. 1970 년 재건축으로 손상되었으나 여전히 사진작가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이다.

- Al Rekiyat Fort: 전형적인 중동 군부대시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Al Wajbah Fort: 카타르에서 가장 오래된 요새로 1893년 오스만에 패배한 장소로 유명
 - Al Zubara Fort 총 900개 이상의 암석조각을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요새로, 일요일은 방문이 제한된다.
 - Borj Barzan Fort Barzan 은 아랍어로 ‘높은’이라는 뜻이다. 다른 요새들과는 달리 약 16m의 높은 탑을 볼 수 있다.
 - Murwab Fort 5개의 빌딩, 250개의 집, 2개의 사원이 있는 대규모의 성채이다.
 - 그 외: Al Thaqab Fort, Umm Slal Mohammed Fort
- 이슬람 사원
 - 이슬람 사원 입장 시 에티켓: 짧은 바지나 치마, 민소매 옷은 자제, 여성의 경우 머리를 덮는 아바야 착용
 - 대부분의 사원은 비-무슬림인 경우도 위의 에티켓을 준수할 경우 입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Muhammad ibn Abdul Wahhab, Sim Aisma 사원은 비-무슬림인 경우 입장이 불가하다.
 - 가이드 정보
 - 기본 활동: 드라이브, 낚시, 모래스키 등
 - 수상 활동: 크루즈 (도하 코니쉬, 사프리아 섬)
 - 시티 투어: 도하 내 주요 관광지 투어 (모스크 포함 시 의상 준비 필요)
 - 사막 투어

투어 이름	전화번호	사이트주소
Arabian Adventures	4436-1461	arabianadventureqatar.com
Black Pearl Tourism	5555-1169	qatar-bp.com
Gulf Adventures Tourism	4422-1888	gulf-adventures.com
Qatar International Adventures	4455-3954	qia-qatar.com
Qatar International Tours	4455-1141	qittour.com
Qatar Ventures Tourism	4431-8440	info@qatar-ventures.com
Regency Holidays	4434-4444	regencyholidays.com

□ 호텔

주요 5성급 호텔 목록

호텔명	홈페이지/위치	연락처
The Ritz-Carlton Doha	www.ritzcarlton.com/en/Default.htm Lagoon, 공항 30분거리	전화: +974-44848000 팩스: +974-44848484
Grand Heritage Doha	www.grandheritagedoha.com Aspire Zone, 공항 30분거리	전화: +974-44485555 팩스: +974-44455500
Grand Hyatt Hotel	www.doha.grand.hyatt.com Lagoon, 공항 30분거리	전화: +974-44481234 팩스: +974-44481235

호텔명	홈페이지/위치	연락처
InterContinental Doha	www.doha.intercontinental.com Lagoon, 공항25분거리	전화: +974-44844444 팩스: +974-44844999
La Cigale	www.lacigalehotel.com C ring로드, 공항 25분거리	전화: +974-44288888 팩스: +974-44288000
W DOHA	www.whoelldoha.com West bay, 공항 20분거리	전화: +974-44535000 전화: +974-44535354
Sheraton Doha Hotel & Resort	www.sheratondoha.com West bay, 공항 15분거리	전화: +974-44854444 팩스: +974-44832323
SHARQ Village & SPA	www.sharqvillage.com 공항 5분거리	전화: +974-44256666 팩스: +974-44256660
Marriott Doha	www.marriott-doha.com 공항 5분거리	전화: +974-44298888 팩스: +974-44418784

※이 외의 주요 호텔 목록은 현지 무역관 홈페이지 '호텔 리스트'참조

□ 식당

분류	식당이름	전화번호	배달여부	참고
한식	한국관	4442-1853/3371-8300	가능	
	아리랑	3385-3104	불가	도시락 포장가능
	이화	4441-9898/5532-6262	가능	
패스트푸드	Quiznos Sub	4421-7988	가능	Min 50 QR 이상 주문시 배달가능
		4421-7989		
	파파존스	4492-9793/4498-3770	가능	
	맥도날드	4407-6666	가능	www.mcdonaldsarabia.com
	버거킹	4493-0820	가능	
	KFC	4441-0410	가능	
중식	누들하우스	4495-3876/2531	가능	www.thenoodlehouse.com Min 50 QR 주문시 배달가능
	차우킹 (Chow King)	4437-1212/4431-4411	불가	
아랍식	알카이마	4444-6962	불가	양고기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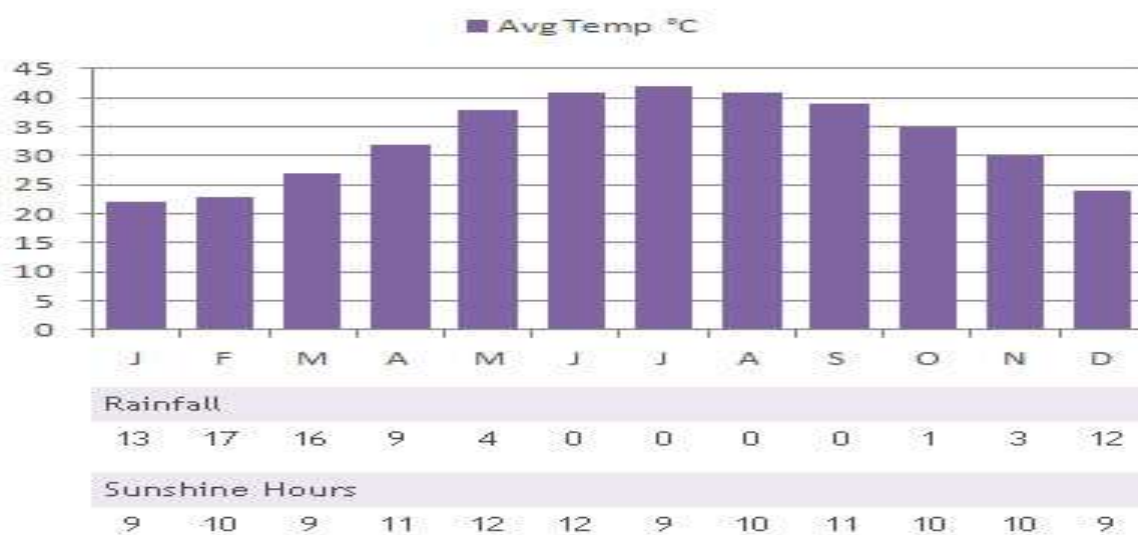
양식	bread & bagels	4411-0041	가능	
	Royal Istanbul	4493-3737/4498-1268	가능	
	Applebee's	4493-3208	가능	
일식	Sushi Minto	4467-5577	가능	Min 100 QR 주문시 배달가능
	Wagamama	4463-3876	불가	Take Away 가능

□ 통역

KOTRA 도하무역관은 통역원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무역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KOTRA 도하무역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유의사항은 대부분의 통역원이 승무원으로 비행 스케줄에 따라 연락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여유기간을 갖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통역비는 대체로 일당 US\$200 수준이다.

9. 출장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기후



- 사막성 기후: 고온 다습한 여름(최고 기온 50°C 이상), 온화한 겨울(최저 기온 10°C)
- 연중 강수량: 70mm 이하, 주로 겨울철에 집중

나. 시차/근무시간

- 시차: 6 시간 (ex. 카타르 도하 1/1 PM1:00 = 대한민국 서울 1/1 PM7:00)
- 근무시간: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 시간이며, 일주일 최대 48 시간이다. 라마단(금식월) 기간에는 하루 최대 6 시간이며 일주일 근무 시간은 36 시간으로 단축된다. 통근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에는 기도, 식사, 휴식 시간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하루에 1 시간 ~ 3 시간 사이여야 한다. 근로자는 휴식 없이 5 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일주일에 24 시간 이상의 휴일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금요일이 휴일로 지정돼있다. 하지만 시프트(교대)근무는 예외이다. 정부기관은 아침 7 시부터 오후 2 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라마단 기간에는 아침 8 시부터 오후 1 시까지로 조정된다.

다. 환전

- 환율: 1US\$ = 3.64QR (고정환율)
- 국내(대한민국)에서는 카타르리얄(QR)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출국 전 원(Won)화를 달러(US\$)로 환전해온 후, 도하 공항에서 QR 로 환전이 가능하다.
- 국내에서는 외환은행(주로 본사영업팀, 공항점, 무역센터점)에서 카트르리얄(QR)을 취급하지만 수시로 그 양과 보유여부가 변하고 직원들도 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외환은행 콜센터에 문의 후 방문할 것을 추천, 공항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 비교적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니 유념할 것
- 카타르 현지에서 달러(US\$)의 환전에 대한 적용환율에 거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달러(US\$)로 환전 시 환율 우대 등을 고려, 카타르리얄(QR)이나 달러(US\$) 중 선택하여 환전해야 할 것

라. 교통/통신

- 항공 직항 정보: ‘카타르항공’ (인천-도하 직항. 보통 AM00:00 시 전후 비행기로 하루에 하나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

Karwa Taxi (974)44588888	일반 택시		기본료 - 4QR(500m까지) 도하 시내/외 - 1.20QR/km, 1.80QR/km 최소 요금 - 10QR ※ 예약도 가능하나 예약자가 많아 최소 9시간 전에 예약 시 이용 가능하다. 예약 시 4QR의 금액이 추가로 청구되며, 예약시간 초과 15분 당 8QR이 부과된다. ※ 공항에서 승차 시 기본료 25QR에서 시작
	공항 택시		기본료 25QR에서 시작되며, 6인승 SUV이다.

마. 공휴일

- 9.3, Independence Day → 12.18, National Day 로 변경(2007 년)
- Eid Al Fitr, Eid Al Adha(이슬람력에 따름)
- National sports day 매년 2 월 둘째주 수요일

바. 관광

- 카타르의 주요도시로는 Doha(수도), Messaieed(= Umm Said: 석유화학산업 도시), ukhan(유전지역), Ras Laffan(가스 생산지)등이며, Doha 인근 해안 도시로 Al Wakrah, l Khor 등임. (지리적으로 10 개의 州로 구분되나 행정구역상의 구분은 없음.)
- 3 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영, 요트,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모래해안들이 이곳에 있으며, 사막관광, 낙타타기, 골프 등을 즐길 수 있음.
- 주요 쇼핑센터: City center, Landmark, Lagoona, The Gate, Villaggio, LuLu 등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사이트 이름	홈페이지 주소
카타르 정부포탈사이트	www.gov.qa/wps/portal
공공사업청	www.ashghal.com
카타르 관세항만청	www.customs.gov.qa
카타르 표준기구	www.qs.org.qa
카타르 과학기술단지	www.qstp.org.qa
카타르 금융센터	www.qfc.com.qa
카타르 금융규제청	www.qfcra.com
카타르 상공회의소	www.qcci.org
국제상공회의소 카타르 지회	www.iccwbo.org/id15450/index.html
상업등록 및 일반 문의	www.investinqatar.com.qa
상업 허가	www.mmaa.gov.qa
상업 등록번호 취득	www.moi.gov.qa
산업면허 신청	www.mei.gov.qa
산업회사 설립관련	www.qatarnv.org
엔지니어링 용역회사 설립	www.up.org.qa
관광회사 설립관련	www.qatartourism.gov.qa
보건의료기관 설립 관련	www.nha.org.qa
학교설립 관련	www.moe.edu.qa
대학 설립관련	www.english.education.gov.qa
법률사무소 설립관련	www.moj.gov.qa
주카타르 대사관	qat.mofat.go.kr
카타르 한인회	www.koreanqatar.com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무역관 연락처

- 주소: #2006 Palm Tower B, West Bay, Doha, Qatar, P.O. Box 24860
- 전화: +974 4016 2603
- 팩스: +974 4016 2602

나. 근무시간

- 근무요일: 일요일 ~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휴무)
- 근무시간: 08:00 am ~ 5:00 pm (점심시간: 12:00pm-01:00pm)

다. 도하 무역관 직원안내

성명	직책	담당업무	휴대전화
박태화	도하무역관장	무역관 업무 총괄	+974 5571 8907
이용호	대리	정보조사, 해외전시회, 취업, 투자	+974 5517 1518
박상준	대리	지사화	+974 6698 4664
Abhishek Pant	Marketing Consultant	지사화 및 마케팅	+974 5587 2833